

ISSUE PAPER 2020-13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동향·통계분석본부 ·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차 례

요약	5
----------	---

제1편 거시경제 전망

제1장 국내 실물경제 동향	29
----------------------	----

제2장 대외여건 전망	32
-------------------	----

1. 세계경제	32
2. 주요국 경제	37
(1) 미국 경제	37
(2) 일본 경제	39
(3) 유로 경제	40
(4) 중국 경제	42
3. 유가	44
4. 원/달러 환율	47
5. 세계 IT경기	49

제3장 2020년 국내경제 전망	53
-------------------------	----

1. 경제성장	53
2. 부문별 전망	55
(1) 민간소비	55
(2) 설비투자	58
(3) 건설투자	61
(4) 수출입	63

제2편 산업별 전망

제1장 개관	79
1. 2020년 상반기 동향	79
2. 2020년 하반기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89
3.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103
제2장 2020년 산업 전망	121
1. 자동차산업	121
2. 조선산업	134
3. 일반기계산업	144
4. 철강산업	157
5. 정유산업	169
6. 석유화학산업	179
7. 섬유산업	195
8. 가전산업	207
9. 정보통신기기산업	220
10. 반도체산업	233
11. 디스플레이산업	246
12. 이차전지산업	256



제1편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코로나 19 사태로 경기침체 가속

- 국내 실물경기는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약해진 가운데 올해 들어 수출 부진의 완화에도 코로나 19 확산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실물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민간소비가 올 1분기에 전년동기비 감소 전환되면서 크게 위축된 모습이나,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유지
 - 수출(통관기준)은 연초 소폭 회복세를 보이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인한 글로벌 교역의 급감과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단가 급락 등으로 4월부터 대폭 감소세로 전환

□ 세계경제: 연간 마이너스 성장

-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 19 사태가 추가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

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반기에 점차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연간 전체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과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높은 실업률과 소득 감소 등이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일본과 유로권은 서비스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활동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며, 중국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상황에서도 해외 수요 부진이 리스크 요인

□ 유가 및 환율: 유가 배럴당 42달러 수준, 환율 1,200원 내외 예상

- 유가는 연초 급락 이후 산유국의 추가 감산 결정과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및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면서 연평균 배럴당 40달러대 초반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인 상승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반기 국제 금융시장이 상반기보다 안정되고, 위험자산 기피 현상의 약화로 완만히 하락하면서 연평균 1,200원 내외가 예상

□ 2020년 국내 경제성장: 연간 성장률 0.1% 전망

- 2020년 국내경제는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 속에서 수출 감소세 지속과 소비의 감소 전환, 투자수요의 제한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0.1%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 국내외 공히 코로나 19 사태의 전개 추이가 가장 큰 변수이나,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경기 동향과 정책 효과, 미·중 분쟁 추이 등이, 국

내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효과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민간소비: 전년대비 2% 내외 감소 전망

- 소비는 대내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데다,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투자: 설비투자 1.8% 증가, 건설투자 0.8% 감소 전망

- 올해 설비투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이후 확장국면을 대비한 설비투자가 진행되면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와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부진함에 따라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출입: 하반기 수출 감소폭 축소되나, 연간 무역흑자 규모 축소 전망

- 2020년 하반기 수출은 코로나 19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결정되겠지만, 중국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든 국가들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연간 전체 수출은 9.1% 감소 전망
- 수입은 수출 감소와 국내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겠지만, 2019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회복세 등으로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연간 6.4% 감소 전망
- 무역수지는 2020년 전체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입보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8	2019년		2020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7	1.9	2.2	2.0	-0.7	0.8	0.1
민간소비	2.8	2.0	1.9	1.9	-3.8	0.0	-1.9
설비투자	-2.2	-12.2	-2.2	-7.5	1.2	2.4	1.8
건설투자	-3.9	-5.2	0.0	-2.5	-0.2	-1.4	-0.8
통관 수출 (억 달러, %)	6,049 (5.4)	2,711 (-8.6)	2,711 (-12.0)	5,422 (-10.4)	2,421 (-10.7)	2,509 (-7.5)	4,930 (-9.1)
통관 수입 (억 달러, %)	5,352 (11.9)	2,526 (-4.9)	2,508 (-7.0)	5,033 (-6.0)	2,350 (-6.9)	2,361 (-5.8)	4,711 (-6.4)
무역수지	697	186	203	389	71	148	219

자료: 산업연구원.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흑자 규모가 지난해(389억 달러)
보다 크게 줄어든 219억 달러에 그칠 전망

제2편 12대 주력산업 전망

1. 2020년 하반기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코로나 19 영향으로 세계수요 침체, 경쟁 심화, 단가 인하 지속
- (코로나의 영향과 업종별 세계수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수혜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투자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
 - 주요 수출시장의 하반기 시장은 업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등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상반기에 이어 양호
 -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수요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중국 등 경쟁국의 공급능력 증대에 따른 세계적 공급 과잉 상황이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
 - 기존 투자계획 및 공장 가동이 지연되나 수요 부족이 더 크게 작용하여 경쟁은 심화
- (제품 단가 변화) 제품의 글로벌 단가는 수출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영향이 큼.

- 철강의 경우 원료가격 인상 등이 예상되지만 과잉공급 및 재고 물량 증가가 단가 인하요인으로 작용
-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유는 하반기에도 전년 대비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정유의 단가도 큰 폭 하락 예상

□ 업종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상반기에 비해 국내 여건 개선 기대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산업에서 수요 여건이 좋지 않겠지만, 상반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고 국산 제품의 경쟁력도 향상될 전망
- (국내 수요 여건) 자동차, 섬유, 가전 등은 상반기에 실시되었던 소비진작책이 축소되어 회복이 부진하고, 관련 소재 및 부품산업 수요도 다소 위축되는 반면, 정보통신기기, SSD용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내 수요는 증가
 - 가전 산업에는 국내 성장 둔화와 소비지출 감소가 내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정보통신기기 산업에는 하반기에 5G 확산이 본격화되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나 단말 보조금 축소 및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소 부정적
- (국내 생산능력) 소재부품 조달망의 문제보다 해외이전 등의 요인으로 일부 산업에서 생산능력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자동차는 외자계 업체의 생산모델 축소 등으로 생산능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일반기계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특성상 주 52시간 노동이 문제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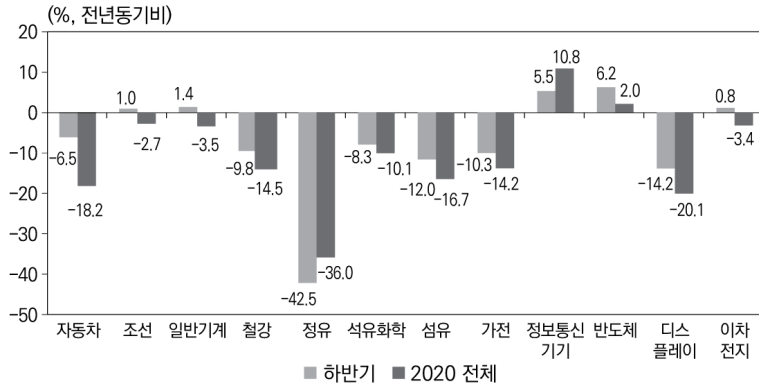
- (국산제품 경쟁력 변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국산제품의 경쟁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자동차는 고급브랜드 신차, 향상된 주행거리의 전기차 등을 출시하고, 철강은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가 예상되며, 석유화학은 국산제품의 원가경쟁력이 강화
 - 가전은 스마트홈 신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정보통신기기는 신제품 출시 및 SSD 개발역량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차전지는 공급 가능 품목의 다양화가 추진

2.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12대 산업,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6.1% 감소 전망
-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겠지만, 상반기의 -13.5%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축소
 - 최종 내구소비재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자동차, 가전), 소비재 성격이 강한 업종(섬유), 단가에 영향을 받는 업종(철강, 정유, 석유화학), 경쟁력 약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업종(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전년대비 감소 전망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 있는 정보통신기기 및 반도체는 하반기에 수출 증가가 예상
- (기계산업군) 조선과 일반기계가 증가세로 전환되며, 자동차의 감소세가 줄어 하반기 수출은 2.4% 감소하고, 2020년 전체로는 10.3% 감소 전망

- 하반기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침체와 외자계 업체의 수출물량 배정 조정으로 6.5%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8.2% 감소
 - 조선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도 연기 등이 우려되지만, 고가 선박 인도 등으로 하반기에 1.0%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2.7% 감소
 - 조선은 당장의 수출보다 수주가 중요한데, 하반기 이후 해상물동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선복량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선박금융 시장도 개선되기 어려워 신규발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수출은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 및 수요업종의 부진이 예상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1.4%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3.5% 감소
- (소재산업군) 소재산업군 수출은 하반기에도 주로 단가 인하의 영향으로 20.2%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20.1% 감소
- 철강은 수출단가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승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물량도 경기 침체 지속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하반기 수출은 9.8%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4.5% 감소
 - 정유는 유가 하락 등으로 단가 인하가 더 커져 수출물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수출금액은 하반기에 42.5%나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36.0% 감소
 - 석유화학은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더불어 수출단가가 하락하여 하반기 수출금액은 8.3%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0.1% 감소
 - 섬유는 글로벌 수요절벽, 이에 따른 경쟁 심화와 수출단가 약세 등으로 하반기에도 수출이 12.0%나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6.7% 감소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IT산업군) 코로나 19로 수혜를 보는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은 수출이 증가하지만,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등은 감소하여 하반기 수출은 2.2%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0.7% 감소

- 가전의 하반기 수출은 글로벌 수요 위축과 해외생산 증대로 10.3%나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4.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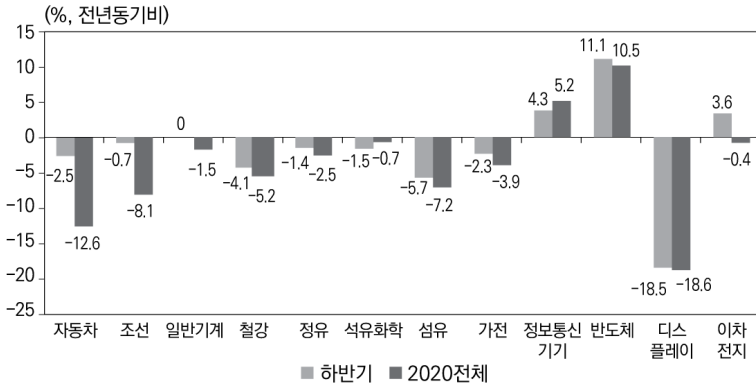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기는 하반기에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SSD 수요에 힘입어 5.5%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0.8% 증가

- 디스플레이 수출은 세계수요 둔화와 중국 생산 확대 등으로 하반기에도 14.2%의 감소가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20.1% 감소

- 이차전지는 경기 부진, 해외생산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전기차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은 0.8%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3.4% 감소할 전망

- 생산: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생산이 증가하거나 감소세 크게 둔화
-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차전지는 증가세로 전환되며,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여타 산업들의 생산 감소율은 크게 개선
 - 생산 감소율 개선은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이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기인
- (기계산업군) 하반기에 조선과 일반기계의 생산은 작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하고, 자동차도 생산 감소율이 크게 낮아져 전반적으로 기계산업군의 상황이 크게 개선
 - 하반기 자동차 생산은 외자계 생산 조정과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감소하겠지만 상반기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2.5% 감소에 그치고, 연간으로는 상반기의 침체로 12.6% 감소
 - 하반기 조선 생산은 코로나 19로 일부 인도 연기가 있겠지만, 수주 회복기 물량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0.7% 감소하는 데 그치고, 연간으로는 8.1% 감소
 - 하반기 일반기계 생산은 제조업의 내수 및 수출 침체가 악영향을 미치지만, 기주문 물량과 더불어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작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고, 연간으로는 1.5% 감소
- (소재산업군) 하반기에 수출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주로 단가 인하에 기인하여 생산량 감소는 다소 제한적
 - 철강은 내수 판매 및 수출 감소로 인해 하반기 철강 생산량도 4.1%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5.2% 감소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 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정유는 수송용 내수 감소에 기인하여 하반기 생산량도 1.4%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2.5% 감소
- 석유화학도 수요 부진이 이어져 하반기 생산량이 1.5% 감소하고, 연간으로 0.7% 감소
- 섬유는 의류와 관련 소재 등으로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 성격이 존재하여 하반기 생산금액이 5.7%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7.2% 감소
- (IT산업군) 소비재 성격이 강한 가전,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부진한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가전 생산은 해외생산 확대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 등으로 2.3% 감소하고, 연간으로 3.9% 감소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SSD와 더불어 5G 확산에 따른 기기 수요 증대 등으로 생산이 4.3% 증가하고, 연간으로 5.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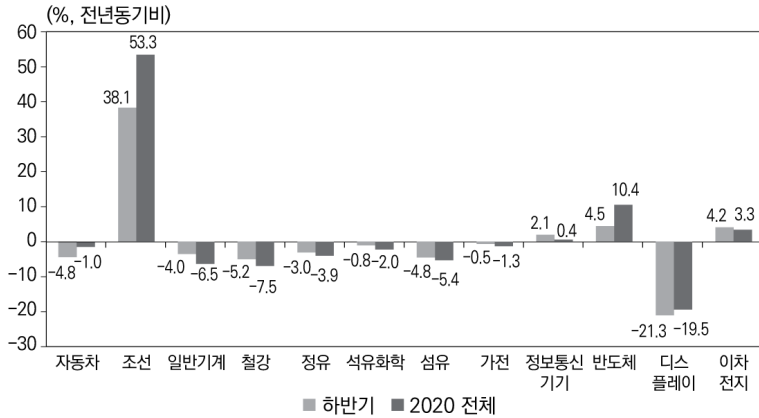
- 하반기 반도체 생산은 SSD용 내수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세공정 전환 등도 순조로워 11.1%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으로도 10.5% 성장이 예상
- 하반기 디스플레이 생산은 해외생산의 증가, 경쟁의 심화, 패널가의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비 18.5%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18.6% 감소
- 하반기 이차전지 생산은 해외 전기자동차의 수요뿐만 아니라 내수 전기차도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고, 연간으로 0.4% 감소

□ 내수: 자동차 등을 제외하면 상반기보다 감소세 둔화

- 상반기에 성장세를 기록했던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내수는 하반기에 감소세로 전환되거나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지만, 대부분 산업에서는 감소율이 개선될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조선도 증가율이 낮아지지만, 기계산업의 감소율은 하반기에 다소 개선
 - 하반기 자동차 내수는 대기수요 기실현, 경기 부진 지속, 내수 진작책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4.8%나 감소하고, 연간 1.0% 감소
 - 하반기 조선 내수는 해운산업 재건에 따른 발주 선박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에 이어 38.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53.3% 증가
 - 하반기 일반기계 내수는 국내 수요산업의 위축이 지속되어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하고, 연간으로 6.5% 감소
- (소재산업군) 하반기 소재산업은 전체적으로 내수가 감소하지만, 상반기에 비하면 감소율이 낮아진 수준

- 하반기 철강 내수는 상반기보다 개선되지만, 수요산업 생산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2% 감소, 연간으로 7.5% 감소
 - 하반기 정유 내수는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3.9% 감소
 - 하반기 석유화학 내수는 수요산업 전반의 부진이 악재로 작용하지만, 가전, 통신기기 등 IT산업의 수요 회복이나 경기 부양책의 기대로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0.8% 감소하는 데 그치며, 연간으로는 2.0% 감소
 - 하반기 섬유 내수는 민간소비, 국내 수요산업의 활동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하고, 연간으로 5.4% 감소
- (IT산업군) 반도체의 내수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내수가 개선
- 하반기 가전 내수는 경기 부진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신가전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0.5% 감소하는 데 그치고, 연간으로는 1.3% 감소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 수요 확대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고, 연간으로 0.4% 증가 전망
 - 하반기 반도체 내수는 SSD 수출 증가, 5G 및 신산업 생산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0.4% 증가
 - 하반기 디스플레이 내수는 자동차용 등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21.3%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9.5% 감소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 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하반기 이차전지 내수는 전기자동차의 내수 및 수출 확대에 4.2%만큼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3.3% 증가 예상

□ 수입: 12대 산업, 내수 부진, 단가 인하 등으로 하반기 5.9% 감소

○ 하반기에 자동차, 철강, 정유, 디스플레이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조선, 석유화학 등의 수입은 증가할 전망

- 이러한 업종별 수입액 증감에서의 차이는 내수 상황이나 제품 단가 등에 의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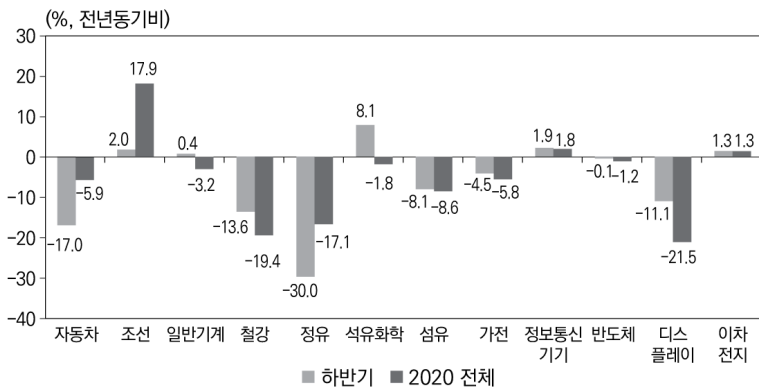
○ (기계산업군) 하반기 기계산업군의 수입은 자동차의 수입 감소에 의해 전년 동기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수입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공급물량 부족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의 여파, 국내 부품 수요 감소 등으로 하반기에 17.0%나 큰 폭

으로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5.9% 감소

- 하반기 조선 수입은 중고선 도입 및 중국 건조 선박의 수입 증가로 2.0%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7.9% 증가
 - 하반기 일반기계 수입은 첨단제조장비 핵심부품 수입 수요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내수 경기 위축으로 전년동기비 0.4% 증가에 그치고, 연간으로는 3.2% 감소
- (소재산업군) 석유화학 수입은 증가하지만, 철강, 정유, 섬유 등의 감소로 하반기에 12.8%, 연간으로 12.9% 감소
- 하반기 철강 수입은 높은 재고 수준과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6% 감소하고, 연간으로 19.4% 감소
 - 하반기 정유 수입은 수입물량이 늘어나지만,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0.0%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7.1% 감소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715) 제외 기준.

2020년 하반기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 하반기 석유화학 수입은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여 전년동기비 8.1% 증가, 연간으로 1.8% 감소
- 하반기 섬유 수입은 수요 부진으로 해외 의류의 역수입이나 중저가 소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비 8.1% 감소하고, 연간으로 8.6% 감소
- (IT산업군) IT산업 수입은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하반기에 0.3% 감소하는 데 그치고, 연간으로 1.7% 감소

- 하반기 가전 수입은 코로나 19로 해외 공급망 차질, 해외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4.5% 감소하고, 연간으로 5.8% 감소
-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5G망 구축, 외산 신제품 출시, 한국기업의 해외 공장 생산제품 역수입 등으로 하반기에 1.9%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8% 증가
- 하반기 반도체 수입은 제조 공정상 수입이 증가하지만, 자동차용 등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0.1% 감소에 그치고, 연간으로 1.2% 감소
-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수입은 국내 수요의 위축으로 11.1% 감소하고, 연간으로 21.5% 감소
- 이차전지의 경우 하반기에 중국 제품을 장착한 무선 가전이 증가하면서 1.3% 증가하고, 연간으로도 1.3% 증가

제1편

거시경제 전망

차 례

제1장 국내 실물경제 동향	29
제2장 대외여건 전망	32
1. 세계경제	32
2. 주요국 경제	37
(1) 미국 경제	37
(2) 일본 경제	39
(3) 유로 경제	40
(4) 중국 경제	42
3. 유가	44
4. 원/달러 환율	47
5. 세계 IT경기	49
제3장 2020년 국내경제 전망	53
1. 경제성장	53
2. 부문별 전망	55
(1) 민간소비	55
(2) 설비투자	58
(3) 건설투자	61
(4) 수출입	63

표 차례

〈표 2-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34
〈표 2-2〉 OECD 및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35
〈표 2-3〉 미국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38
〈표 2-4〉 일본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40
〈표 2-5〉 유로권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42
〈표 2-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4
〈표 2-7〉 국제유가 현황	45
〈표 2-8〉 2019년 및 2020년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46
〈표 2-9〉 2020년 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46
〈표 2-10〉 원/달러 환율 전망	48
〈표 2-11〉 원/엔(100엔) 환율 전망치	49
〈표 2-12〉 주요 선진국의 IT생산 증가율 추이	51
〈표 3-1〉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54
〈표 3-2〉 민간소비 추이	56
〈표 3-3〉 민간소비 전망	58
〈표 3-4〉 설비투자 추이	59
〈표 3-5〉 설비투자 부문별 추이	60
〈표 3-6〉 건설투자 추이	62
〈표 3-7〉 산업별 수출 증가율	66
〈표 3-8〉 가공단계별 수입	67
〈표 3-9〉 2020년 수출입 전망	69

그림 차례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30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31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31
〈그림 2-1〉 전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33
〈그림 2-2〉 OECD 산업생산 및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34
〈그림 2-3〉 세계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 추이	36
〈그림 2-4〉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37
〈그림 2-5〉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39
〈그림 2-6〉 유로권의 경제성장률 추이	41
〈그림 2-7〉 중국의 실물지표 증가율 추이	43
〈그림 2-8〉 국제유가 추이	45
〈그림 2-9〉 원/달러, 원/엔(100엔), 엔/달러 환율 추이	48
〈그림 2-10〉 주요국의 IT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50
〈그림 2-11〉 세계 반도체 판매액 증가율 추이	51
〈그림 3-1〉 재화별 소비 추이(전년동기비 증가율)	56
〈그림 3-2〉 민간소비와 실질GNI(전년동기비 증가율)	56
〈그림 3-3〉 취업자 추이	57
〈그림 3-4〉 고용률 추이(4월)	57
〈그림 3-5〉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57
〈그림 3-6〉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57
〈그림 3-7〉 설비투자 추이	59
〈그림 3-8〉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60
〈그림 3-9〉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62
〈그림 3-10〉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63

〈그림 3-11〉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64
〈그림 3-12〉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추이	65
〈그림 3-13〉 지역별 수출 증가율	67

제1장

국내 실물경제 동향



□ 현 경기 판단: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경기침체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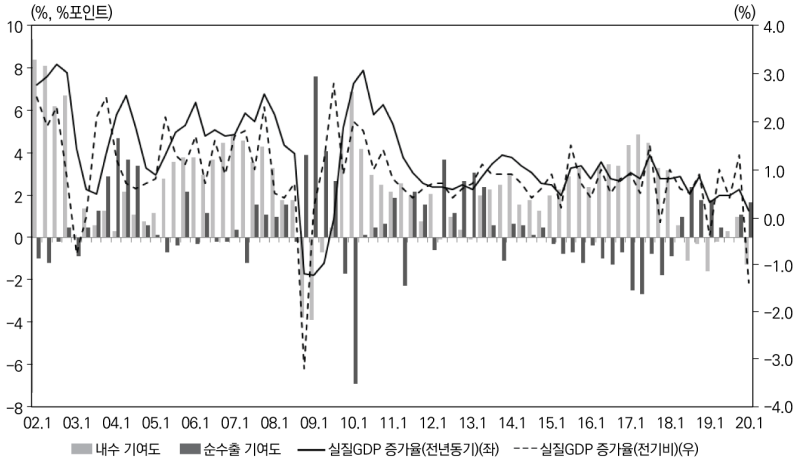
○ 국내 실물경기는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약해진 가운데 올해 들어 수출 부진의 완화에도 코로나 19 확산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실물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민간소비가 올 1분기에 전년동기비 감소 전환되면서 크게 위축된 모습이나,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유지

- 수출(통관기준)은 연초 소폭 회복세를 보이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인한 글로벌 교역의 급감과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단가 급락 등으로 4월부터 대폭 감소세로 전환

- GDP(전기비, %): (2019.2/4) 1.0 → (3/4) 0.4 → (4/4) 1.3 → (2020.1/4) -1.3
- GDP(전년동기비, 이하 同, %): (2019.3/4) 2.0 → (4/4) 2.3 → (2020.1/4) 1.4
- 민간소비(%): (2019.2/4) 1.8 → (3/4) 1.6 → (4/4) 1.9 → (2020.1/4) -4.8
- 설비투자(%): (2019.2/4) -7.0 → (3/4) -2.3 → (4/4) -2.0 → (2020.1/4) 7.3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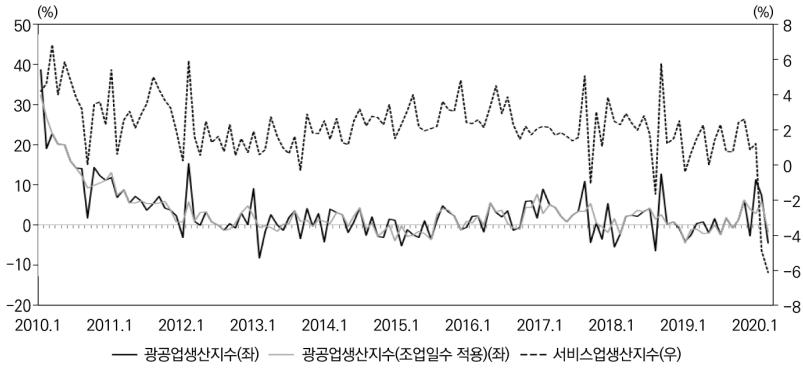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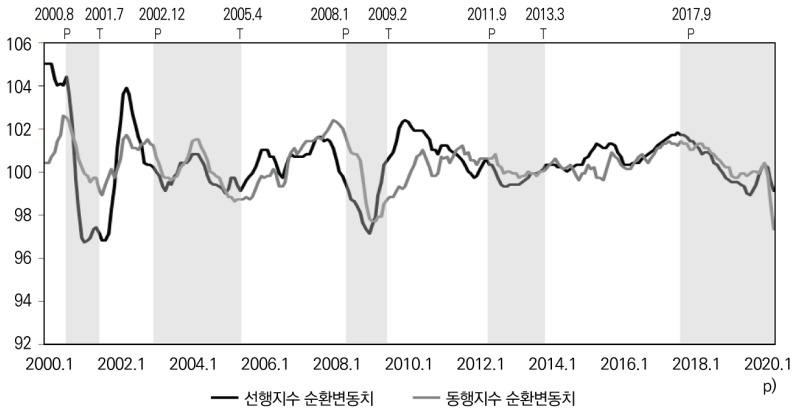
- 건설투자(%): (2019.2/4) -3.0 → (3/4) -2.7 → (4/4) 2.6 → (2020.1/4) 4.2
 - 통관수출(%): (2019.2/4) -8.7 → (3/4) -12.3 → (4/4) -11.8 → (2020.1/4) -1.8
- 그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던 서비스업생산이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이며, 광공업생산 증가율도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이후에 역시 하향세로 전환
- 광공업(전년동월비, %): (2019.1월) -2.8 → (2월) 11.3 → (3월) 7.7 → (4월) -5.1
 - 서비스(전년동월비, %): (2019.1월) 0.9 → (2월) 1.2 → (3월) -5.0 → (4월) -6.1
- 경기지표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모두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후 반락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
- 선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19.1월) 0.1 → (2월) -0.1 → (3월) -0.6 → (4월) -0.4
 - 동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19.1월) 0.2 → (2월) -0.6 → (3월) -1.2 → (4월) -1.3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제2장

대외여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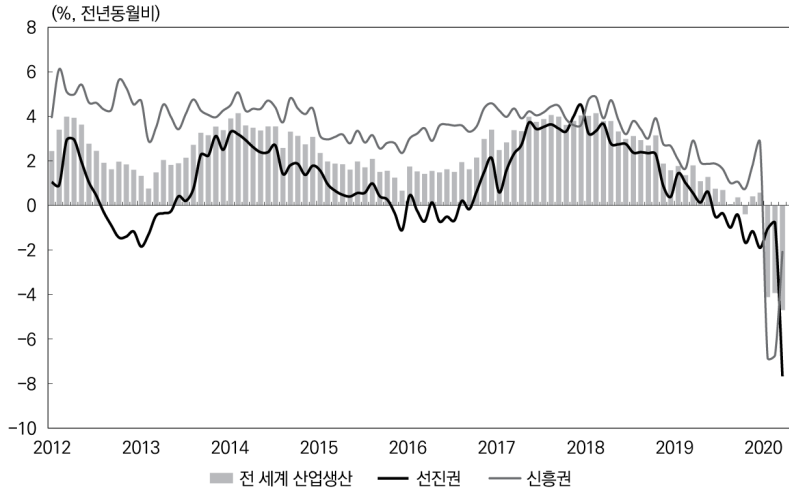


1. 세계경제

□ 2020년 상반기 동향: 연초 급락세

- 세계 실물경기는 지난해 말까지 선진권과 신흥권의 동반 약세가 이어진 이후에 올 들어서는 신흥권을 시작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
 - 선진권에서는 미국이 연초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급락하면서 전년 대비 0%대 성장률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유로존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
 - 신흥권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6% 수준까지 떨어지고, 올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브라질과 러시아도 지난해 1%대 성장률로 떨어진 이후에 약세가 지속
 - 전세계 산업생산은 2019년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진 이후에, 올 들어서는 -4%대 수준까지 급락한 모습

〈그림 2-1〉 전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전세계 산업생산: (2019) 0.8% (2019.하반기) 0.3% (2020.1분기) -4.3%
- 선진권: (2019) -0.3% (2019.하반기) -1.1% (2020.1분기) -3.2%
- 신흥권: (2019) 1.8% (2019.하반기) 1.5% (2020.1분기) -5.2%

□ 2020년 전망: 마이너스 성장

-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 19 사태가 추가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연간 전체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국경제는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과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높은 실업률과 소득 감소 등이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표 2-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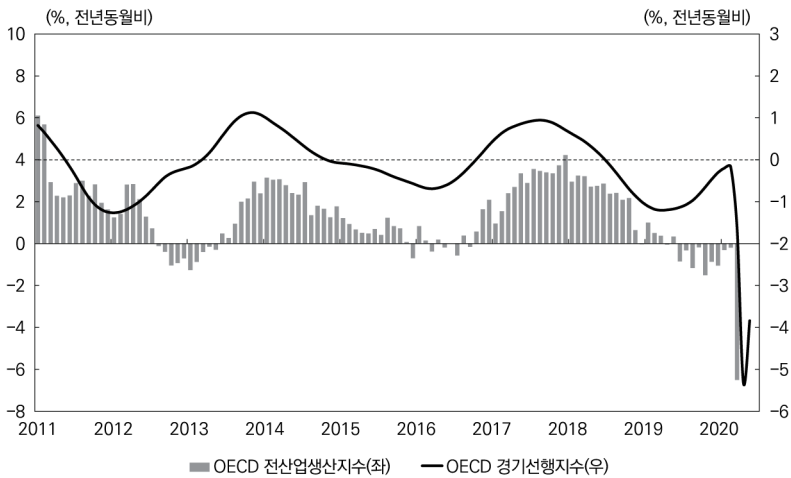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0(f)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IMF	세계은행	OECD ²⁾	
								표준	비관
세계	3.6			2.9		-3.0	-4.1	-6.0	-7.6
선진권 ¹⁾	2.2	1.7	1.7	1.7	-	-6.1	-7.0	-7.5	-9.3
미국	2.9	2.5	2.2	2.3	0.2 (-5.0)	-5.9	-6.1	-7.3	-8.5
유로존	1.9	1.3	1.2	1.2	-3.1	-7.5	-9.1	-9.1	-11.5
일본	0.3	0.9	0.5	0.7	-1.7	-5.2	-6.1	-6.0	-7.3
신흥권	4.5			3.7		-1.0	-2.5	-4.6	-6.1
중국	6.6	6.3	6.0	6.1	-6.8	1.2	1.0	-2.6	-3.7
세계교역	3.8			0.9		-11.0	-13.4	-9.5	-11.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4월); World Bank(2020.5월); OECD(2020.6월).

주: 1) () 안의 수치는 OECD 국가들의 성장률을 의미.

2) 표준은 Single-hit 시나리오, 비관은 Double-hit 시나리오 기준.

〈그림 2-2〉 OECD 산업생산 및 경기선행지수 변화를 추이



- 일본과 유로권에서도 서비스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활동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며, 중국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상황에서도 해외 수요 부진이 리스크 요인
-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들로는 코로나 19 사태의 전개 양상이 무엇

〈표 2-2〉 OECD 및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경기선행지수 (장기 추세=100)					전월비 변화율 (%)					전년 동월비	경기 전망 ²⁾
	2020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OECD	99.5	99.5	98.0	94.2	95.7	0.00	-0.05	-1.53	-3.80	1.51	-3.84	급속한 하강
유로권	99.4	99.3	97.1	93.5	95.0	-0.04	-0.07	-2.27	-3.67	1.64	-4.64	급속한 하강
아시아 신흥권 ¹⁾	98.8	91.9	94.9	95.2	95.6	-0.10	-6.96	3.30	0.27	0.49	-3.97	급속한 하강
선진권 (G7)	99.4	99.4	97.7	94.3	95.2	0.03	0.00	-1.73	-3.53	1.02	-4.23	급속한 하강
캐나다	99.3	99.5	98.0	97.1	97.9	0.18	0.23	-1.54	-0.90	0.87	-1.17	급속한 하강
프랑스	99.5	99.4	96.8	93.7	96.8	-0.07	-0.08	-2.62	-3.22	3.25	-2.70	급속한 하강
일본	99.4	99.2	98.9	98.4	97.6	-0.12	-0.15	-0.34	-0.49	-0.77	-2.42	급속한 하강
독일	99.3	99.4	96.9	92.2	93.6	0.11	0.09	-2.54	-4.88	1.60	-5.78	급속한 하강
이탈리아	99.4	99.3	96.0	93.5	95.0	-0.07	-0.10	-3.33	-2.60	1.54	-4.71	급속한 하강
영국	99.8	100.1	98.0	91.4	92.5	0.28	0.28	-2.06	-6.72	1.17	-6.37	급속한 하강
미국	99.4	99.4	97.8	93.9	94.8	0.03	-0.02	-1.59	-3.98	1.01	-4.51	급속한 하강
브라질	102.5	102.0	100.4	93.8	96.8	-0.29	-0.52	-1.53	-6.64	3.24	-5.15	급속한 하강
중국	97.8	85.5	94.2	96.1	96.2	-0.14	-12.55	10.15	2.08	0.06	-3.02	미약한 회복세
인도	100.1	100.1	93.6	90.9	92.6	0.01	0.01	-6.48	-2.83	1.81	-7.58	하강
러시아	99.8	99.4	98.1	91.1	91.9	-0.34	-0.46	-1.29	-7.10	0.82	-8.56	급속한 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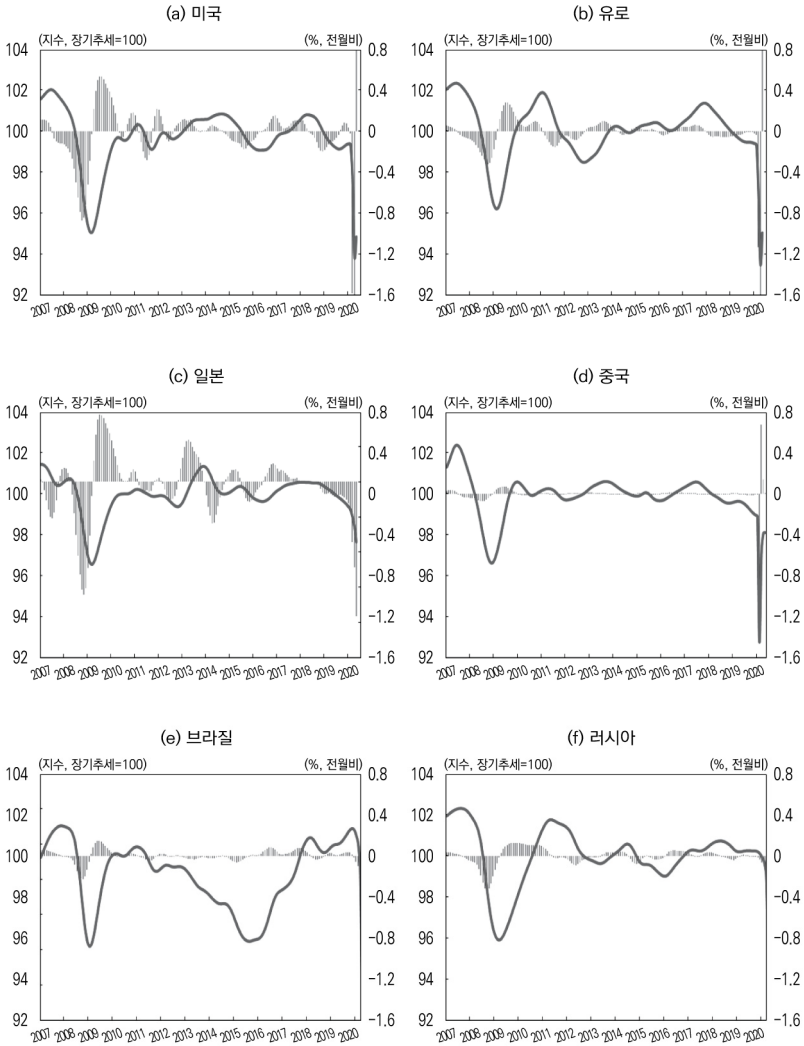
자료: OECD.

주: 1)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2)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하면 expansion(또는 downturn), 반대로 100 미만 (음영 부문)에서 상승(또는 하락)하면 recovery(또는 slowdown)를 의미.

보다도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 해소와 주요
국들의 정책 효과 발현 지속 여부 등이 주요 관건으로 대두

〈그림 2-3〉 세계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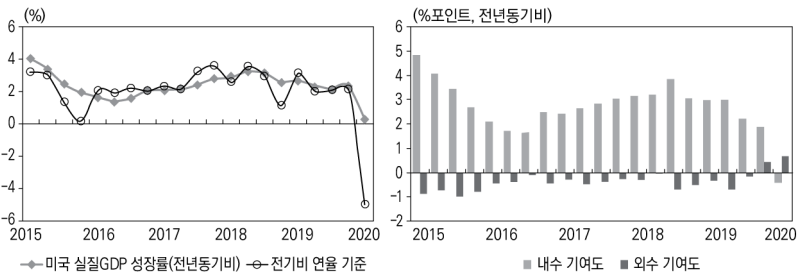
자료: OECD.

2. 주요국 경제

(1) 미국 경제

-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온 소비가 올 들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지난 연말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성장률이 크게 하락
 -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올 1분기 중 -5.0%까지 급락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4분기(-8.4%)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도 지난 2009.4분기(0.2%) 이후 최저치인 0.3%까지 하락
 -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올 1분기에는 2009.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에, 외수는 수입이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성장 기여도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
- 코로나 19 사태의 확산으로 올 상반기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와 연준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공표하면서

〈그림 2-4〉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미 상무부.

금융시장이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간 성장률의 급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총 2.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단행한 바 있으며, 연준(Fed)도 2차례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정책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금융시장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 다만, 실업률이 지난 2009.10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00만건을 웃도는 높은 수준이 이어지는 등 노동시장 여건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소득도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소비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물경기가 현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예상

〈표 2-3〉 미국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단위: %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전기비 연율)	2.9	2.3	2.7 (3.1)	2.3 (2.0)	2.1 (2.1)	2.3 (2.1)	0.3 (-5.0)
개인소비	3.0	2.6	2.5	2.6	2.6	2.7	0.6
민간투자	5.1	1.8	5.1	3.9	0.4	-1.9	-5.9
비주택투자	6.4	2.1	4.8	2.6	1.4	-0.4	-3.1
설비투자	6.8	1.3	3.3	2.7	1.0	-1.8	-6.2
IT 장비	9.2	3.9	5.3	6.1	1.8	2.4	-4.1
주택투자	-1.5	-1.5	-3.4	-3.2	-1.1	1.7	6.3
순수출*	-920.0	-953.9	-944.0	-980.7	-990.1	-900.7	-816.6
정부지출	1.7	2.3	1.8	2.3	2.2	3.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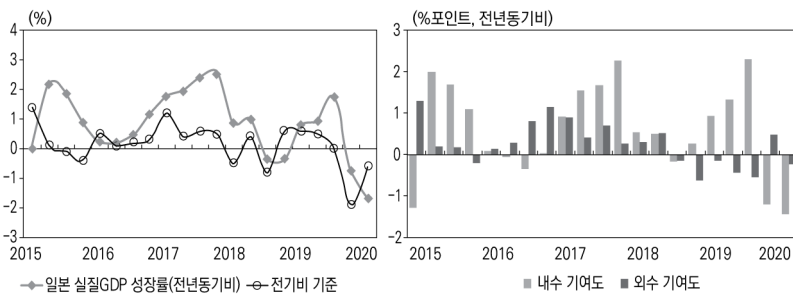
자료: 미 상무부.

주: 전년동기비 기준. 단, *는 10억 달러(실질) 기준.

(2) 일본 경제

-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지난 연말부터 동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수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의 영향들로 인해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와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지난 2019.4분기와 올 1분기 동안에 2분기 연속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반 침체를 보이는 양상
 -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소비와 투자가 지난 연말부터 동반 감소세를 보인 여파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수도 수출입의 동반 감소 영향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은 상황
-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대내외 실물경기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각종 경기대책을 단행하면서 경기 침체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전망

〈그림 2-5〉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표 2-4〉 일본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단위: %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전기비)	0.3	0.7	0.8 (0.6)	0.9 (0.5)	1.7 (0.0)	-0.7 (-1.9)	-1.7 (-0.6)
내수	0.3	0.8	0.9	1.4	2.3	-1.2	-1.5
민간소비	0.0	0.1	0.4	0.7	1.4	-1.9	-2.4
설비투자	2.1	0.7	1.4	0.5	5.5	-4.6	-1.8
정부지출	0.9	1.9	0.5	2.1	2.8	2.3	2.5
순수출*	-1,801	-2,625	-362	-679	-1,030	-554	-618
수출	3.5	-1.6	-1.8	-2.2	-0.5	-1.8	-6.2

자료: 일본 내각부.

주: 전년동기비 기준. 단, *는 10억 엔 기준(계절 조정).

-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베 정부가 2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총 140조엔)을 발표하고, 일본은행(BOJ)도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당초 내수 부양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 올림픽이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연기되면서 내수를 지지할 만한 모멘텀이 사라진 데다, 수출도 두 자릿수의 급감세가 이어짐에 따라 외수의 성장 기여도 역시 취약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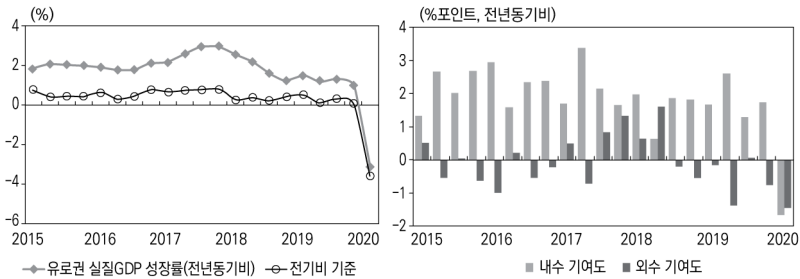
(3) 유로 경제

- 역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지난해 동안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다, 올 들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도 감소세

로 전환되면서 역내 성장률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

- 역내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기준으로 올 1분기 중 -3.6%까지 떨어지면서 유로화 출범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도 -3.1%까지 떨어져 지난 2009.4분기(-4.5%) 이후 최저치
 -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해 동안 일정 수준에서 플러스를 유지해 오다 올 1분기에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외수 역시 수출이 감소 전환되면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지속
- 역내 주요국들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 여파로 상당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들의 상이한 구조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경기 대책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역내 성장률은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저치가 예상
- 독일 등 재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견실한 국가들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여건인 반면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 구조로 인해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는 등 국가간 상이한 여건이 역내 경기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그림 2-6〉 유로권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유로 통계청.

〈표 2-5〉 유로권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단위: %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전기비)	1.9	1.2	1.5 (0.5)	1.2 (0.1)	1.3 (0.3)	1.0 (0.1)	-3.1 (-3.6)
내수	1.6	1.9	1.7	2.7	1.3	1.8	-1.8
민간소비	1.4	1.3	1.2	1.3	1.6	1.3	-3.9
고정자본형성	2.3	5.8	4.3	9.1	3.1	6.7	1.5
정부소비	1.1	1.8	1.5	1.5	2.2	1.9	1.0
순수출*	517.3	457.7	132.2	93.8	127.6	104.1	92.5
수출	3.5	2.5	3.3	2.3	2.7	1.8	-3.5

자료: 유로 통계청.

주: 전년동기비 기준. 단, *는 10억 유로(실질) 기준(계절조정).

-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주요국들이 경제회복기금(7.5천억 유로) 마련을 위해서 협상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이나, 올해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저치의 성장률 기록은 불가피할 전망

(4) 중국 경제

-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과 수출 등 외수 지표들이 지난 연말에 증가율이 모두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올 들어서는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성장률도 분기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 지난 연말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여파로 인해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고정투자 등 각종 내수관련 지표들이 올 1분기 중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월별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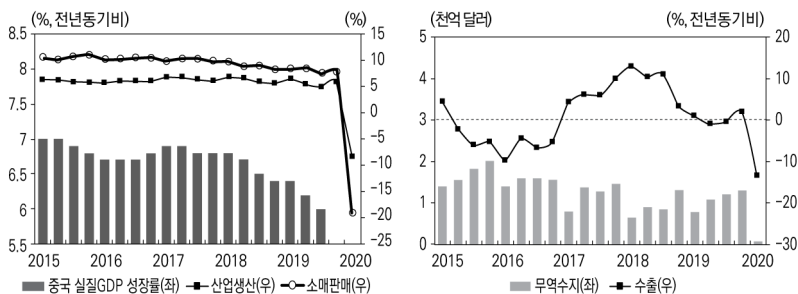
- 수출도 지난해 동안 미약한 흐름을 유지해 온 이후 연말에는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 1분기에는 다시 상당 폭 감소함에 따라 무역흑자 규모가 지난 2012.1분기 이후 최저치까지 큰 폭으로 축소

○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내수 지표들을 중심으로 실물경기의 급락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경기 침체로 인한 외수 여건의 부진과 코로나 19 재확산 관련 불확실성 등이 경기 회복을 제한하면서 소폭의 플러스 성장률에 그칠 전망

- 정부의 강한 방역 대책 등에 힘입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과 인민은행의 금융완화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각종 체감 및 선행지표들이 급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실물경기의 급락세가 진정

- 다만, 전세계 주요국들의 경기 급락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산발적인 지역 및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확진자 등으로 인해 코로나 19 재확산 가능성이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

〈그림 2-7〉 중국의 실물지표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표 2-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6.6	6.1	6.4	6.2	6.0	6.0	-6.8
산업생산	5.7	5.7	6.5	5.6	5.0	5.9	-8.4
고정투자*	5.9	5.4	6.7	5.8	5.4	5.4	-16.1
소매판매	8.3	8.0	8.3	8.5	7.6	7.7	-19.0
소비자물가	2.2	2.9	1.8	2.6	2.9	2.8	3.5
수출	9.2	0.5	1.0	-1.0	-0.3	2.0	-7.9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주: 전년동기비 기준. 단, *는 누계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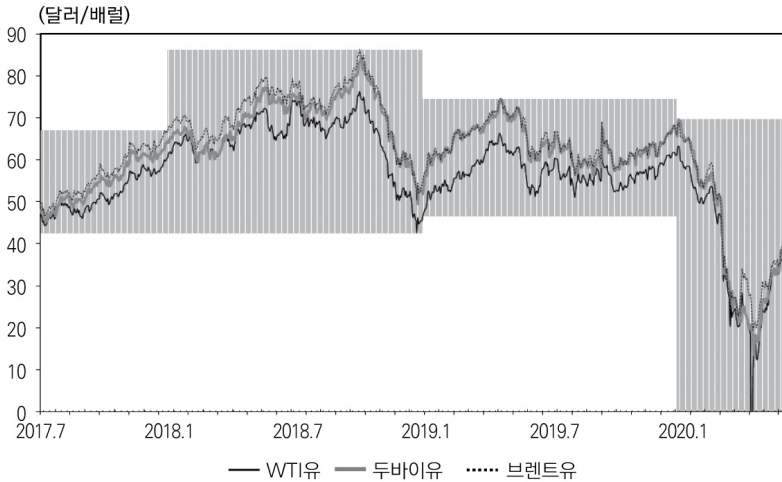
3. 유가

□ 전년대비 급락

- 연초 지정학적 요인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4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3달러 수준까지 급락한 이후 점차적으로 상승
 - 연초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 등 중동정세의 불안 요인과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로 인해 배럴당 69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1월 말 중국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하락 전환
 - 러시아의 반대로 인한 OPEC의 추가 감산 합의 결렬(3.5일)과 사우디의 증산 결정에 이어 WHO의 글로벌 팬데믹 선언(3.11일)으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유가는 급락세가 지속

- 이후 4월 두 차례의 OPEC+의 감산 합의와 비OPEC 국가들의 감산 결정 등의 공급측 요인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등 수요측 요인으로 유가는 상승 전환

〈그림 2-8〉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음영 부문은 연간 변동 범위(최소값~최대값)임.

〈표 2-7〉 국제유가 현황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18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5월	6월
WTI	62.9	67.9	69.5	59.1	50.9	54.9	59.9	56.4	56.9	57.0	46.1	29.9	37.9
Brent	67.2	75.0	75.8	68.4	54.7	63.8	68.5	62.0	62.0	63.5	50.6	32.4	40.5
Dubai	63.9	72.1	74.1	67.7	53.1	63.4	67.6	61.1	62.4	64.2	50.8	28.8	40.1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2019년 6월은 6.11일 현재 기준.

〈표 2-8〉 2019년 및 2020년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단위: 달러/배럴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WTI유	54.9	59.9	56.4	56.9	57.0	45.3	26.5	34.6	34.5	35.1
브렌트유	63.1	69.1	61.9	63.3	64.4	50.0	27.9	38.0	41.4	38.0

자료: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2020년 6월).

- 2020년 하반기 유가는 전세계 원유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연평균 전체로는 두 자릿수 하락률
 - 사우디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결정으로 공급 과잉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중국의 원유수입 증가와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 및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 상승을 지지할 전망
 -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과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등은 유가 상승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
- 2020년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상반기 배럴당 40.8달러(전년동기비 -37.7%), 하반기 43.5달러(-29.4%)를 기록하여 연평균 42.2달러(전년대비-33.7%)로 예상

〈표 2-9〉 2020년 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65.5 (-3.8)	61.6 (-13.1)	63.5 (-8.6)	40.8 (-37.7)	43.5 (-29.4)	42.2 (-33.7)

주: ()안은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

4. 원/달러 환율

□ 2019년 대비 소폭 상승

○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내외 불안정성이 상당한 가운데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 연초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란의 갈등 고조와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등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 중국발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WHO의 국제 비상사태 선언(1.30일)과 전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급증,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

- 특히 OPEC+ 감산 합의 결렬(3.5일)로 인한 유가 폭락과 WHO의 글로벌 팬데믹 선언(3.11일)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안전통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280원을 돌파

- 그러나 미 연준의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무제한 양적완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3.19일) 등으로 달러화 수요가 다소 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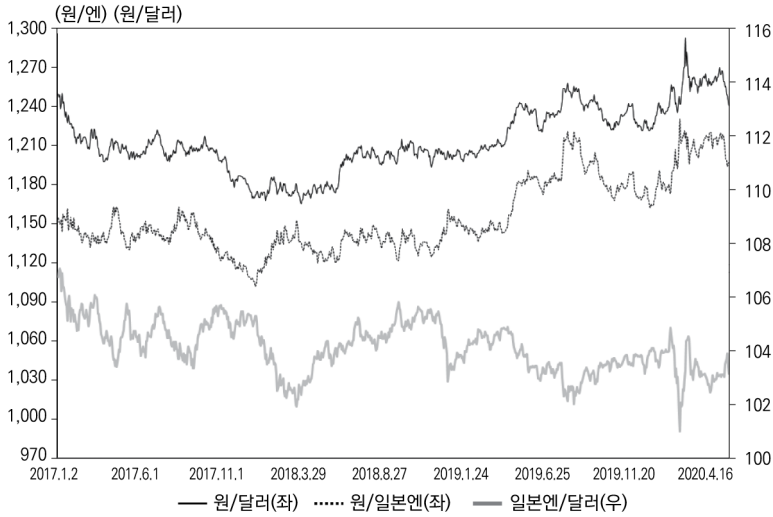
• 1분기 최고점은 1,285.7원 (3.19일)이며 최저점은 1,156.0원 (1.13일)

- 2분기 들어서는 코로나 19 확산세 둔화와 주요국들의 대규모 경제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가 불안과 세계경제 둔화 우려 등의 요인들로 인해 상승 전환

○ 2020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위험자산 기피 현상의 약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나, 연평균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예상

- 국내 코로나 19 사태의 진정과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인한 경기 회복 가능성은 원화 강세 요인(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작용

〈그림 2-9〉 원/달러, 원/엔(100엔),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또한 주요국들의 추가 부양책과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세계 수요 회복 기대감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도 달러화 약세로 작용
- 그러나 코로나 19의 종식 전 미국과 유럽의 경제활동 재개는 2차 확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원/달러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표 2-10〉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기간 평균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146.6 (6.6)	1,170.2 (4.1)	1,158.4 (5.3)	1,210 (5.5)	1,192.5 (1.9)	1,201.1 (3.7)

주: 1) () 안은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

2) 2020년 상반기는 2020년 6월 현재 기준.

〈표 2-11〉 원/엔(100엔) 환율 전망치

단위: 기간 평균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041.6 (5.3)	1,073.4 (7.0)	1,057.5 (6.2)	1,115.4 (7.1)	1,092.1 (1.7)	1,103.6 (4.4)

주: 1) () 안은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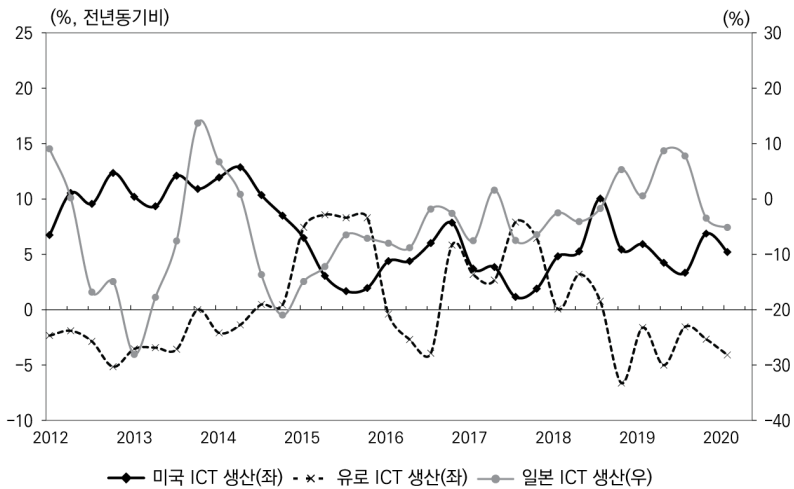
-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210원(전년동기비 5.5%), 하반기 1,192.5원(1.9%), 연간 1,201.1원(전년대비 3.7%) 내외 예상
- 2020년 하반기 원/엔 환율은 원/달러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여 우하향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하반기 엔화는 일본경기 부진 및 세계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 등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상반기 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반면,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 등은 추가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
 - 2020년 상반기 1,115.4원(전년동기비 7.1%), 하반기 1,092.1원(전년동기비 1.7%), 연간 1,103.6원(전년동기비 4.4%) 내외 예상

5. 세계 IT경기

- 주요 선진권의 IT경기는 미국에서 지난해 이후 올 들어서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인 반면에, 일본은 지난 연말 이후 현저히 약화된 모습이고, 유로존에서는 침체가 지속되는 양상

- 미국의 ICT 생산은 지난해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연말에 소폭 다시 확대되고, 올 들어서는 지난해 연평균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
 - 일본의 ICT생산은 지난해 2~3분기에 비교적 높은 증가율로서 견조한 흐름을 보인 이후 연말에 감소세로 전환되고, 유로존에서도 지난해 연중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 올 들어서까지 감소세가 지속
-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연중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 이후 연말과 올 초에는 반등하는 모습인 반면에, 스마트폰과 PC 판매가 지난 연말까지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이후에 올 1분기 중 두 자릿수 감소세를 시현
- 전세계 반도체 매출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폭이 현저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올 들어서는 미주 지역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그림 2-10〉 주요국의 IT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표 2-12〉 주요 선진국의 IT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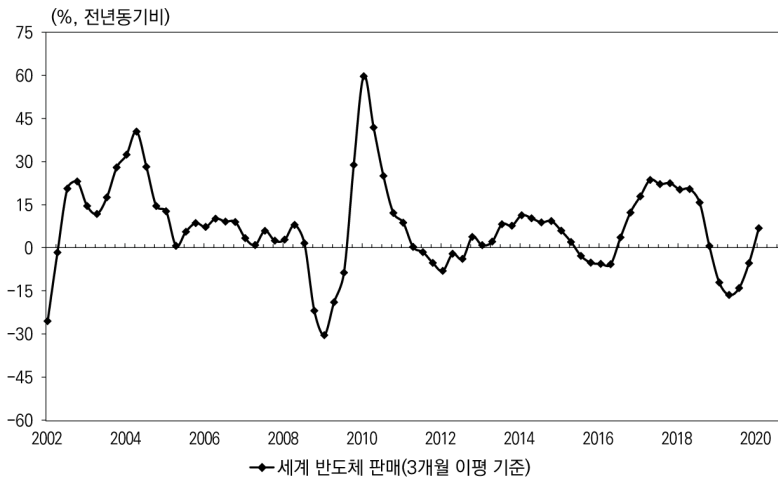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미국	6.4	5.1	5.9	4.2	3.3	6.9	5.2
일본	-0.7	3.4	0.6	8.7	7.8	-3.5	-5.1
유로	-0.7	-2.7	-1.6	-5.0	-1.6	-2.7	-4.1

자료: 미 연준(Fed); 일본 경제산업성(METI); 유로 통계청(Eurostat).

회복한 데다, 일본과 아태 지역에서도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로 전환

- 반면에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 연말까지는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올 1분기에 다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고, PC 출하도 지난해 중순 이후에 한 자릿수 증가율이 미약하나마 확대되다

〈그림 2-11〉 세계 반도체 판매액 증가율 추이



자료: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올 들어서 두 자릿수 감소세

- 세계 스마트폰 판매(전년동기비, Gartner 기준): 2019.2분기 -1.7% → 3분기 -0.4% → 4분기 -0.4% [2019년 전체 -1.0%] → 2020.1분기 -20.0%
 - 세계 PC 출하(전년동기비, Gartner 기준): 2019.2분기 1.5% → 3분기 1.1% → 4분기 2.3% [2019년 전체 0.6%] → 2020.1분기 -12.3%
- 글로벌 IT경기는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가 반등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최종 소비재로서 스마트폰과 PC 판매는 소비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주와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달리 플러스 증가율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유럽과 일본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위축되는 양상이 이어지나, 그 강도는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2019년 -12.0% → 2020년 3.3%
 - 권역별 반도체 시장 전망(2019년 → 2020년): 미주 -23.7% → 12.8%, 유럽 -7.3% → -4.1%, 일본 -9.9% → -4.4%, 아·태 -8.8% → 2.6%
 - 스마트폰과 PC 구매는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수요자들의 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1. 경제성장

- 2020년 국내경제는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 속에서 수출 감소세 지속과 소비의 감소 전환, 투자수요의 제한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0.1%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 수출이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가 예상되고, 소비는 상반기에 감소한 영향으로 연간 전체로도 감소세가 예상되며, 투자는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겠지만 건설투자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올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감소세가 다소 진정될 것이나, 상반기 중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전체로는 전년과 비슷한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수출은 전년대비 9.1%, 수입은 6.4% 각각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전년(389억 달러)보다 줄어든 219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예상

○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연간 전체 기준 감소세가 불가피해 보이나, 설비투자에서는 소폭 증가하면서 연간 전체 기준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설비투자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이후 확장국면을 대비한 설비투자가 진행되어 소폭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와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부진세가 예상됨에 따라 감소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소비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급감한 여파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가 예상되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공공일자리 확대, 재난지원금 등으로 감소 폭이 제한되면서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표 3-1〉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8	2019		2020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7	1.9	2.2	2.0	-0.7	0.8	0.1
민간소비	2.8	2.0	1.9	1.9	-3.8	0.0	-1.9
설비투자	-2.2	-12.2	-2.2	-7.5	1.2	2.4	1.8
건설투자	-3.9	-5.2	0.0	-2.5	-0.2	-1.4	-0.8
통관 수출 (억 달러, %)	6,049 (5.4)	2,711 (-8.6)	2,711 (-12.0)	5,422 (-10.4)	2,421 (-10.7)	2,509 (-7.5)	4,930 (-9.1)
통관 수입 (억 달러, %)	5,352 (11.9)	2,526 (-4.9)	2,508 (-7.0)	5,033 (-6.0)	2,350 (-6.9)	2,361 (-5.8)	4,711 (-6.4)
무역수지	697	186	203	389	71	148	219

자료: 산업연구원.

- 국내외 공히 코로나 19 사태의 전개 추이가 가장 큰 변수인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경기 동향과 정책 효과, 미·중 분쟁 추이 등이, 대내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효과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올 들어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해외여행 감소로 인한 서비스 부문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
 - 실질총소득(GNI)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수출물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포함 (전기비 0.8% 감소)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한국은행, 2015=100): 2018.4Q 93.0 → 2019.1Q 93.9 → 2019.2Q 90.9 → 2019.3Q 91.5 → 2019.4Q 90.9 → 2020.1Q 89.7
 - 수출물가지수 (한국은행, 2015=100): 2018.4Q 103.9 → 2019.1Q 100.1 → 2019.2Q 98.4 → 2019.3Q 95.8 → 2019.4Q 93.9 → 2020.1Q 91.8
 - 소매판매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전년동기비 -19%) 판매가 급감한 여파로 2020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2.9% 감소
- 취업자 수가 지난 3월과 4월에 전년동기비 감소폭이 확대되고, 고용률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고용 여건은 소비에 부정적

〈표 3-2〉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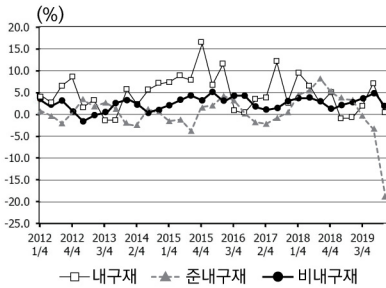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2018	2019				2020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4월
민간소비	3.2	1.4 (0.1)	1.8 (0.7)	1.6 (0.2)	1.9 (0.9)	1.7	-4.8 (-6.5)	- -
소매판매액지수	4.3	1.6 (0.9)	2.0 (0.5)	2.2 (0.3)	3.4 (1.9)	2.4	-2.9 (-6.4)	-2.2 (5.3)
실질 GNI	1.6	-0.4 (0.1)	0.0 (-0.2)	0.0 (0.4)	0.8 (0.6)	0.1	0.0 (-0.8)	-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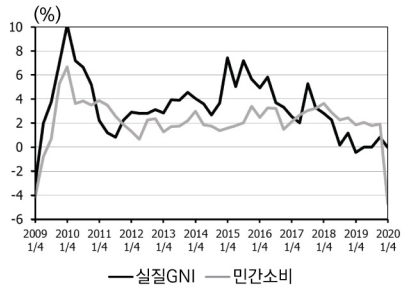
주: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3-1〉 재화별 소비 추이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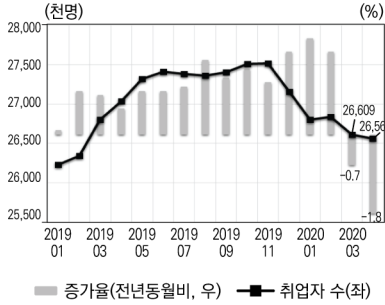
〈그림 3-2〉 민간소비와 실질GNI
(전년동기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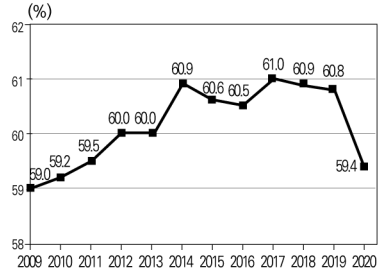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19만 6천명 감소(-0.7%)한 2,661만명, 4월 취업자 수는 47만 6천명 감소(-1.8%)한 2,656만명
-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선(100)에 크게 못 미치는 80 이하로 떨어지고, 가계부채 역시 누적되고 있는 점은 가계소비 증대의 제약 요인

〈그림 3-3〉 취업자 추이



〈그림 3-4〉 고용률 추이(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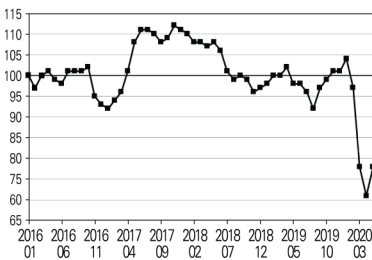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은 소비에 긍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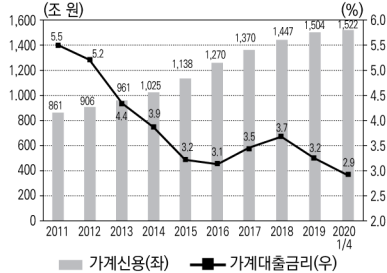
○ 2020년 민간소비는 대내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데다,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림 3-5〉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3-6〉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3-3〉 민간소비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2.0	1.9	1.7	-3.8	0.0	-1.9

자료: 산업연구원.

- 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데다, 소상공인 대출이 확대되는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민간 소비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2)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로 2018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비 증가세로 전환
 - 올 1분기의 증가세는 최저점이었던 2019년 1분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부문별로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부진했던 기계류 설비투자가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특이사항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3월과 4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이 크게 하락
 - 운송장비 중 기타운송장비의 설비투자지수가 지난 3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98.7%(2월) → -0.1%(3월)), 기계류 설비투자지수도 2월과 3월에 반등하였으나, 4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11.9% → 12.1%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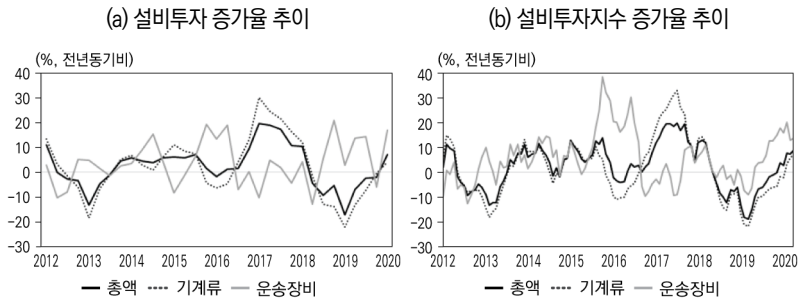
〈표 3-4〉 설비투자 추이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전년 동기비	설비투자	-17.4 (-8.5)	-7.0 (2.6)	-2.3 (1.7)	-2.0 (2.6)	-7.5	7.3 (0.2)
	기계류	-22.2 (-6.1)	-13.4 (0.4)	-7.3 (-1.3)	-0.3 (7.1)	-11.5	4.3 (-2.1)
	운송장비	3.0 (-14.7)	13.8 (8.9)	14.4 (9.6)	-6.1 (-8.2)	5.3	16.9 (-2.1)

자료: 한국은행.

주: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그림 3-7〉 설비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2020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나, 기저효과 (설비투자가 2018년 이후 감소세)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향후 확장구면을 대비한 설비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전년보다 1.8% 증가할 전망
- 반도체는 코로나 19 이후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초격차 전략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표 3-5〉 설비투자 부문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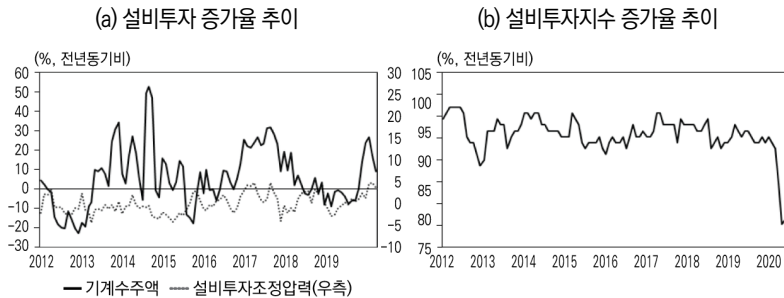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비

	2019					202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¹⁾	4월 ¹⁾
총지수	-2.2	-0.4	-1.6	1.1	11.1	-4.1	16.0	10.1	1.4
기계류	-6.5	-6.2	-6.2	-4.7	5.4	-7.3	11.9	12.1	-0.9
일반기계류	-12.6	-14.4	-11.6	-8.7	7.7	-8.1	20.0	22.8	3.1
전기및전자기기	4.0	8.2	5.5	1.4	3.1	-3.9	-7.7	-2.4	-2.5
정밀기기	-1.9	-1.0	-5.5	1.8	0.8	-10.0	15.2	1.7	-11.9
기타기기	-2.6	7.2	-3.1	-3.7	4.2	-7.0	10.4	-0.1	-7.1
운송장비	8.8	18.0	10.6	15.8	26.4	4.7	28.8	4.5	7.9
자동차	-4.4	12.1	5.6	-4.4	14.5	-15.5	-8.3	7.2	11.1
기타운송장비	28.7	26.4	18.6	48.4	44.2	36.2	98.7	-0.1	2.9

자료: 통계청.

주: 1) 잠정치.

〈그림 3-8〉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기계수주(불변, 선박을 제외한 국내수요)와 설비투자조정압력은 3개월 중심향 이동 평균.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3)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설비에서도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¹⁾

- 디스플레이도 LCD에서 OLED 생산으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생산설비의 확장이 이루어질 전망
- 코로나 19 대유행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비 1.2%, 하반기에는 2.4% 각각 증가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

(3)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2분기부터 감소폭이 줄고,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에는 증가세로 전환 (2020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4.2% 증가)
 - 올해 확대 재정정책 기조에서 SOC 예산이 예년보다 증액되었는데, 토목건설은 2019년 2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여 2019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크게 증가하면서 건설투자의 회복세를 이끄는 모습
 - 주거용 건물건설은 2019년 4분기 이후 감소세가 줄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비주거용 건물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주춤
 - 주체별로 보면 토목을 중심으로 한 정부부문 건설의 회복세와 민간 부문 건설의 부진이 대비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코로나 19의 영향이 발효되기 시작한 지난 3월과 4월에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부동산 심리지수도 횡

1) 삼성전자는 올해 평택공장에 1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라인과 8조원 규모의 차세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9년 전체 (명목)설비투자의 11.2%, 기계류 설비투자의 15.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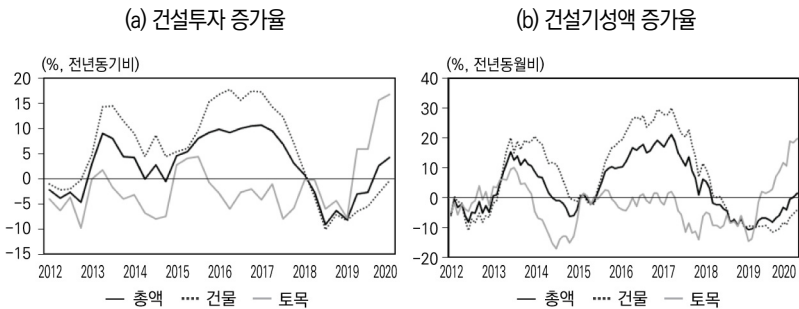
〈표 3-6〉 건설투자 추이

단위: %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¹⁾	
전년 동기비	건설투자	-8.1	-3.0	-2.7	2.6	4.2	
	형태별	건물건설	-8.2	-6.5	-5.4	-2.8	-0.3
		주거용 건물	-12.7	-11.8	-14.0	-9.0	-4.0
		비주거용 건물	-2.4	-0.8	3.9	3.7	4.0
		토목건설	-7.8	5.9	5.9	15.7	16.9
	주체별	민간	-9.0	-6.9	-5.1	-3.2	-1.3
		정부	-3.3	8.6	12.4	22.2	33.9
전기비	건설투자	-0.7	2.9	-6.4	8.0	0.5	
	형태별	건물건설	-1.3	-1.0	-5.6	6.2	0.5
		주거용 건물	-4.5	-2.2	-5.5	3.8	-0.2
		비주거용 건물	2.1	0.2	-5.6	8.5	1.2
		토목건설	0.8	13.1	-8.3	12.4	0.3
	주체별	민간	1.3	-1.2	-5.6	3.6	1.2
		정부	-8.4	19.9	-9.1	23.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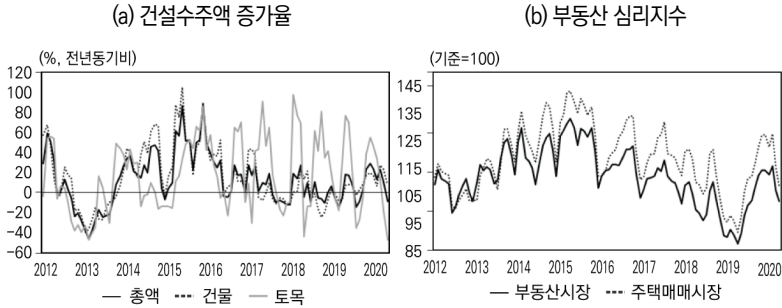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잠정치 기준.

〈그림 3-9〉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건설기성액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그림 3-10〉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국토연구원.
 주: 건설수주액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보 후 하락함에 따라 하반기 건설경기의 회복세는 어려울 전망

- 회복세를 보였던 토목건설의 건설수주액 역시 올해 3~4월에 급감
- 2020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건설이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와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보다 0.8% 감소할 전망
- 정부가 경기부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해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계획함에 따라 건설투자는 상반기 0.2% 감소, 하반기 1.4% 감소로 상호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코로나 19로 인한 건설 지연과 3차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한 주요 SOC 사업예산 삭감 가능성은 하반기 건설경기에 추가적인 제약 요인

(4) 수출입

- 2020년 상반기 동향: 코로나 19 사태 확산으로 교역 대폭 감소
- 연초에 소폭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

치로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교역 규모의 급감과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수출단가 급락으로 4월부터 대폭 감소

- 수입은 반도체 경기회복 기대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했으나, 유가 급락 등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입의 급감으로 감소세가 지속

• 수출(전년동기비, %): (2019) -10.4 → (2020.1~3월) -1.8 → (4월) -25.5 → (5월) -23.7

• 수입(전년동기비, %): (2019) -6.0 → (2020.1~3월) -1.6 → (4월) -15.8 → (5월)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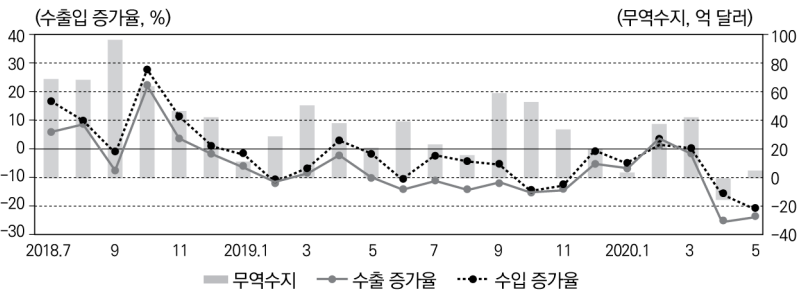
○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살펴보면, 올 1분기에 미·중 무역분쟁 합의와 대중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유가 하락 등으로 단가가 대폭 하락하고 물량도 감소세로 전환

- 3월까지의 실적에는 코로나 19 영향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으나, 4월 이후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수출물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수출단가도 유가 급락 등으로 큰 폭 하락

• 수출물량(전년동기비, %): (2019) -2.1 → (2020.1~3월) 5.7 → (4월) -12.6 → (5월)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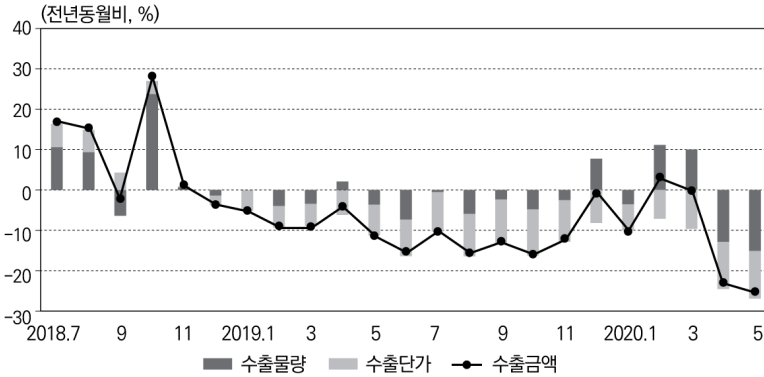
• 수출단가(전년동기비, %): (2019) -8.3 → (2020.1~3월) -7.8 → (4월) -11.7 → (5월) -11.9

〈그림 3-11〉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12〉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DB.

주: 수출단가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정.

○ 산업별로는 컴퓨터 수출만 큰 폭 증가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일반기계가 소폭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석유화학·디스플레이·자동차 및 부품·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에서 전년동기비 두 자릿수 감소

-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으로 서버용 SSD수요가 증가하면서 컴퓨터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단가의 회복과 서버용 수요 증가로 감소폭이 축소
- 반면, 석유제품·석유화학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수요 급감 및 산유국간 감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대폭 확대
- 각국의 생산중단 및 이동제한으로 인한 조업차질과 판매망 중단,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등도 수출 감소폭이 대폭 확대

- 조선의 경우 2017년 수주한 고가 선박의 수출로 연초 증가세로 전환 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선박 인도 연기로 감소 전환
 - 한편, 코로나 19 진단키트와 방호물품 등 K-방역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요 산업의 수출 감소를 일부 상쇄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
- 지역별로는 경기둔화와 조업중단 등 봉쇄조치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ASEAN, EU, 중남미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감소

〈표 3-7〉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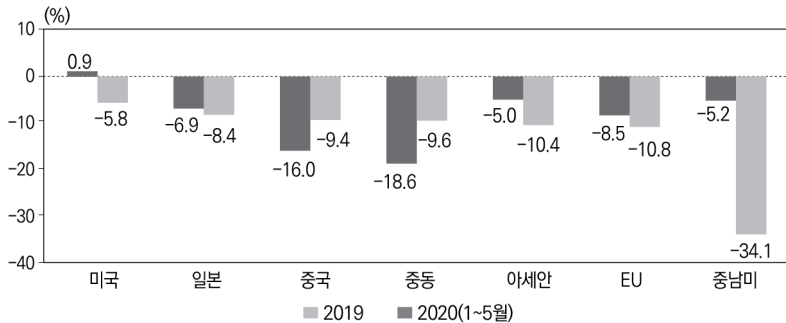
	수출 증가율			수출비중		
	2018	2019	2020 (1~5월)	2018	2019	2020 (1~5월)
컴퓨터	17.2	-20.6	78.5	1.8	1.6	2.7
반도체	29.4	-25.9	-1.5	20.9	17.3	19.1
선박	-49.6	-5.3	-8.5	3.5	3.7	4.1
일반기계	10.2	-1.9	-10.2	8.9	9.7	9.9
무선통신기기	-22.7	-17.6	-12.5	2.8	2.6	2.4
가전	-18.3	-3.6	-18.0	1.2	1.3	1.2
섬유류	2.5	-8.0	-18.3	2.3	2.4	2.3
철강	-0.7	-8.6	-18.7	5.6	5.7	5.4
석유화학	11.9	-14.8	-21.5	8.3	7.9	7.2
자동차부품	-0.1	-2.5	-25.5	3.8	4.2	3.5
자동차	-1.9	5.3	-26.1	6.8	7.9	6.6
디스플레이	-9.9	-17.0	-26.2	4.1	3.8	3.0
석유제품	32.3	-12.2	-35.0	7.7	7.5	5.5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2020년 5월은 잠정치 기준.

- 대중 수출은 코로나 19 사태 발발 이후 생산 중단 및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급감하였고, 미국과 대아세안 수출도 1분기 증가세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4월 이후 급감
- 대중남미 수출은 조업 중단과 신규 투자프로젝트 연기 등으로 인해 두 자릿수 이상 대폭 감소

〈그림 3-13〉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3-8〉 가공단계별 수입

단위: 억 달러, %

	2019		2020(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5,033	-6.0	1,944	-8.5	100.0
1차산품	1,168	-10	390	-21.5	20.1
(원유)	703	-12.6	220	-27.3	11.3
중간재	2,499	-3.1	982	-7.1	50.5
자본재	653	-15.4	290	6.2	14.9
소비재	690	1.7	271	-5.3	14.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은 반도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가 급락 등으로 원유 등 1차산품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경기부진으로 소비재 수입도 감소세 전환
- 한국의 경우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조업중단이나 이동제한 등의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본재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에 비해 수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

□ 2020년 하반기 전망: 코로나 19 사태 진정으로 수출 감소폭 축소

- 2020년 하반기 수출은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결정되었으나, 중국 등 진정국면에 접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연간 수출은 9.1% 감소 전망
- 중국과 유럽 등 코로나 19 진정세에 접어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글로벌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 감소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코로나 19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 수출이 소폭 반등하겠으나, 미·중 분쟁 재발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도 높아질 전망²⁾
- 2019년 수출 부진(-10.3%)에 대한 기저효과와 주요국 생산재개에 따른 반도체 단가 및 물량 회복세 유지, 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수출 감소세는 둔화될 전망

2) 미·중간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되면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 중국의 IT관련 제품과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우리 기업에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 있음.

〈표 3-9〉 2020년 수출입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6,049 (5.4)	2,711 (-8.6)	2,711 (-12.0)	5,422 (-10.4)	2,421 (-10.7)	2,509 (-7.5)	4,930 (-9.1)
통관기준 수입	5,352 (11.9)	2,526 (-4.9)	2,508 (-7.0)	5,033 (-6.0)	2,350 (-6.9)	2,361 (-5.8)	4,711 (-6.4)
무역수지	697	186	203	389	71	148	219

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수입은 수출 감소와 국내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겠지만, 2019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회복세 등으로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연간 6.4% 감소 전망
- 2020년 전체 교역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389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219억 달러에 그칠 전망

제2편

산업별 전망

차례

제1장 개관	79
1. 2020년 상반기 동향	79
2. 2020년 하반기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89
3.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103
제2장 2020년 산업 전망	121
1. 자동차산업	121
2. 조선산업	134
3. 일반기계산업	144
4. 철강산업	157
5. 정유산업	169
6. 석유화학산업	179
7. 섬유산업	195
8. 가전산업	207
9. 정보통신기기산업	220
10. 반도체산업	233
11. 디스플레이산업	246
12. 이차전지산업	256

표 차례

〈표 1-1〉 주요 산업을 둘러싼 세계수요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90
〈표 1-2〉 주요 수출 대상국의 하반기 수요 전망	92
〈표 1-3〉 주요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94
〈표 1-4〉 주요 산업의 단가 관련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96
〈표 1-5〉 주요 산업의 국내수요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98
〈표 1-6〉 주력산업의 2020년 설비투자 전망 기상도	100
〈표 1-7〉 주요 산업의 국산제품 경쟁력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01
〈표 1-8〉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주요 요인	105
〈표 1-9〉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의 생산 변화 주요 요인	108
〈표 1-10〉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의 내수 변화 주요 요인	111
〈표 1-11〉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의 수입 변화 주요 요인	116
〈표 1-12〉 2020년 12대 하반기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117
〈표 1-13〉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118
〈표 1-14〉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119
〈표 1-15〉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120
〈표 2-1〉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125
〈표 2-2〉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25
〈표 2-3〉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26
〈표 2-4〉 자동차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127
〈표 2-5〉 자동차산업의 2020년 하반기 여건변화 전망	128
〈표 2-6〉 자동차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131
〈표 2-7〉 자동차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133
〈표 2-8〉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134
〈표 2-9〉 조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38
〈표 2-10〉 조선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139
〈표 2-11〉 조선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139

〈표 2-12〉 조선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143
〈표 2-13〉 조선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144
〈표 2-14〉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148
〈표 2-15〉 일반기계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49
〈표 2-16〉 일반기계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49
〈표 2-17〉 일반기계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150
〈표 2-18〉 일반기계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151
〈표 2-19〉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155
〈표 2-20〉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156
〈표 2-21〉 일반기계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157
〈표 2-22〉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161
〈표 2-23〉 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62
〈표 2-24〉 철강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64
〈표 2-25〉 철강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164
〈표 2-26〉 철강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165
〈표 2-27〉 철강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168
〈표 2-28〉 철강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168
〈표 2-29〉 정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71
〈표 2-30〉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172
〈표 2-31〉 정유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73
〈표 2-32〉 정유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174
〈표 2-33〉 정유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175
〈표 2-34〉 정유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177
〈표 2-35〉 정유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178
〈표 2-36〉 정유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178
〈표 2-37〉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183
〈표 2-38〉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86
〈표 2-39〉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189
〈표 2-40〉 석유화학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189

〈표 2-41〉 석유화학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190
〈표 2-42〉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194
〈표 2-43〉 석유화학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195
〈표 2-44〉 섬유산업 생산 추이	198
〈표 2-45〉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199
〈표 2-46〉 섬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00
〈표 2-47〉 섬유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02
〈표 2-48〉 섬유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202
〈표 2-49〉 섬유산업의 2020 하반기 여건변화 전망	203
〈표 2-50〉 섬유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205
〈표 2-51〉 섬유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207
〈표 2-52〉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211
〈표 2-53〉 가전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12
〈표 2-54〉 가전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14
〈표 2-55〉 가전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214
〈표 2-56〉 가전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215
〈표 2-57〉 가전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217
〈표 2-58〉 가전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218
〈표 2-59〉 가전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219
〈표 2-60〉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224
〈표 2-61〉 정보통신기기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25
〈표 2-62〉 정보통신기기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27
〈표 2-63〉 정보통신기기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227
〈표 2-64〉 정보통신기기산업의 2020년 하반기 여건변화 전망	228
〈표 2-65〉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230
〈표 2-66〉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232
〈표 2-67〉 정보통신기기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232
〈표 2-68〉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236
〈표 2-69〉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변화 전망과 영향	238

〈표 2-70〉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변화 전망과 영향	239
〈표 2-71〉 반도체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240
〈표 2-72〉 반도체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241
〈표 2-73〉 반도체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243
〈표 2-74〉 반도체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245
〈표 2-75〉 반도체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245
〈표 2-76〉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249
〈표 2-77〉 디스플레이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49
〈표 2-78〉 디스플레이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50
〈표 2-79〉 디스플레이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250
〈표 2-80〉 디스플레이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251
〈표 2-81〉 디스플레이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253
〈표 2-82〉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255
〈표 2-83〉 디스플레이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255
〈표 2-84〉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259
〈표 2-85〉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60
〈표 2-86〉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262
〈표 2-87〉 이차전지 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262
〈표 2-88〉 이차전지 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264
〈표 2-89〉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265
〈표 2-90〉 이차전지 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267
〈표 2-91〉 이차전지 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267

그림 차례

〈그림 1-1〉 2020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추정	82
〈그림 1-2〉 2020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추정	84
〈그림 1-3〉 2020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추정	86
〈그림 1-4〉 2020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수입 증가율 추정	88
〈그림 1-5〉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전망	106
〈그림 1-6〉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전망	109
〈그림 1-7〉 2020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전망	112
〈그림 1-8〉 2020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수입 증가율 전망	115
〈그림 2-1〉 국내외 열연강판 내수가격 동향	162
〈그림 2-2〉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 동향	163
〈그림 2-3〉 석유화학제품 생산활동 추세	181
〈그림 2-4〉 석유화학 유도품 생산 추세	181
〈그림 2-5〉 주요 수출국별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추세	184
〈그림 2-6〉 권역 내 국가별 경영성과 비교	185
〈그림 2-7〉 석유화학산업 전망	192
〈그림 2-8〉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및 수출량 전망	193

제1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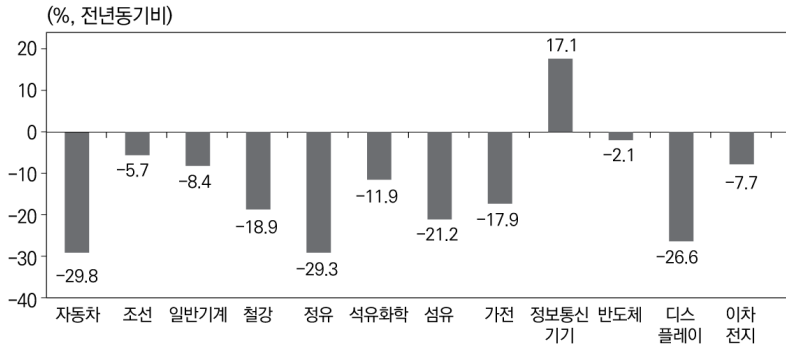
1. 2020년 상반기 동향

- 수출: 상반기 코로나 19로 대부분 산업에서 큰 폭 감소
- 상반기 12대 주력산업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수요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원유가 하락, 경쟁 심화 등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수출액이 13.5%나 큰 폭 감소
 - 최종 소비재로서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나 섬유, 가전 등과 더불어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한 철강, 디스플레이, 원유가격 하락과 연계되어 있는 정유 등의 수출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
 - 인도 지연, 수요 부족 등으로 조선, 일반기계,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도 수출이 비교적 크게 감소
 -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 및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데이터 저장을 위한 SSD를 포함하는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 내수 형태로 SSD 수출에 기여하는 반도체는 자체 수출이 약간 감소했지만, 여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
- (기계산업군) 코로나 19로 세계 수요가 크게 위축된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고, 인도 지연 등이 발생한 조선과 일반기계의 수출도 일정 수준 감소하여 실적이 전년동기비 18%나 큰 폭 감소
 - 자동차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미국, 유럽 등 우리 수출시장의 경제 활동이 정지되면서 자동차 소비 수요가 급감하고, 해외공장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출 역시 29.8%나 감소
 - 상반기 조선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도가 다소 늦어져 4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5월부터 정상화되면서 감소 폭이 -5.7%로 개선
 - 현재 수출 및 생산은 이미 주문이 이루어진 부분을 인도하는 것으로 코로나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수주는 4월까지 전년 대비 80%나 감소한 수주절벽에 직면
 - 일반기계는 2/4분기부터 중국에 대한 건설기계 수출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중국에 대한 1/4분기 실적이나 코로나 19가 여전히 심각한 미국, 유럽, 인도 등에 대한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이 8.4%나 감소
- (소재산업군) 상반기 소재산업 수출은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부족과 더불어 원유가 인하 등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20.2%나 감소
 - 철강의 공급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해져 수출 물량감소와 더불어 가격하락이 동반되어 수출액이 18.9%나 하락

- 석유 제품의 경우 수출 물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수출금액은 29.3%나 감소
 - 석유화학도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 생산활동 위축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단가도 하락하여 수출액도 11.9% 하락
 -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중심인 섬유산업의 수출은 소비재적 성격이 강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21.2%나 큰 폭 감소
- (IT산업군) 코로나 19로 공급과잉문제가 더 심각해져 수출이 크게 감소한 디스플레이가 존재하나, 데이터 저장과 관련한 SSD 수요의 큰 폭 증가로 인해 수출이 전년동기비 3.6% 감소
- 내구소비재 성격을 지닌 가전도 경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팬데믹 상황이 본격화된 4월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상반기 17.9%나 감소
 - 정보통신기기의 상반기 수출은 코로나 19로 스마트폰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비대면 사회 도래에 따른 데이터센터용 SSD 수출이 크게 늘어 17.1%나 급증
 -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감소하였지만, 중국 등이 재가동을 대비하여 재고를 확보해둠에 따라 감소 폭은 크지 않은 -2.1% 수준
 -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해 경쟁이 더 격화되면서 수요 위축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동반하여 수출액이 26.6% 하락

〈그림 1-1〉 2020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추정



주: 달러 표시 가격 기준.

- 이차전지 수출은 코로나 19로 해외 수요제품 공장 및 해외 이차전지 공장 등의 가동 중단으로 7.7% 감소

□ 생산: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 감소로 주력업종 위축

-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수요의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은 대부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일부 품목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재의 물량 기준 생산은 단가 인하로 수출액에 비해 감소세가 완화

-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는 코로나 19에 따른 데이터용 내수 및 수출 등이 반영되어 생산이 비교적 크게 성장

- (기계산업군) 수출 부진으로 자동차의 생산이 가장 크게 줄었고, 저가격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어 조선 생산물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일반기계도 생산이 다소 감소

- 자동차는 코로나 19로 초기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해외 수요 부족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생산도 22.3%나 감소

- 코로나 19로 중국 블록공장의 생산 차질, 인력이동 제한으로 3~4월 생산이 크게 감소했지만, 5월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상반기 조선 생산은 14.5% 감소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위축 등으로 수출 감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 수주물량의 생산, 수출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장비의 수출 증가 등으로 생산감소율은 -3.0%로 크지 않음.

○ (소재산업군) 가격하락으로 물량 기준 소재산업 판매감소는 크지 않아 생산 감소 또한 수출액에 비해 적은 수준

- 내수 판매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철강 생산도 6.3% 감소하였으며, 국내외 수요 부진이 컸던 2/4분기 이후 가동 중단 등 탄력적 생산에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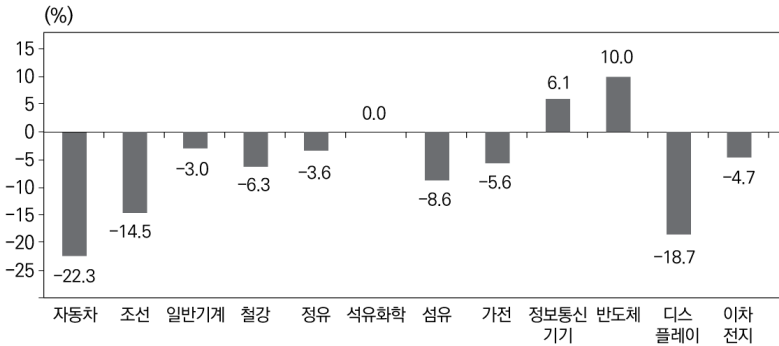
- 정유의 경우 정제설비 고도화로 생산능력은 확대되었지만, 내수 감소 및 정제 마진 하락으로 가동률 하향조정 및 정기보수 확대로 생산 물량 3.6% 감소

- 상반기 석유화학 생산물량의 경우 수요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단가하락 등으로 인해 감소하지 않음.

- 섬유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하락하여 생산이 8.6%나 감소

○ (IT산업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각각 수출 및 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생산도 비교적 크게 증가했지만, 가전,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감소

〈그림 1-2〉 2020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추정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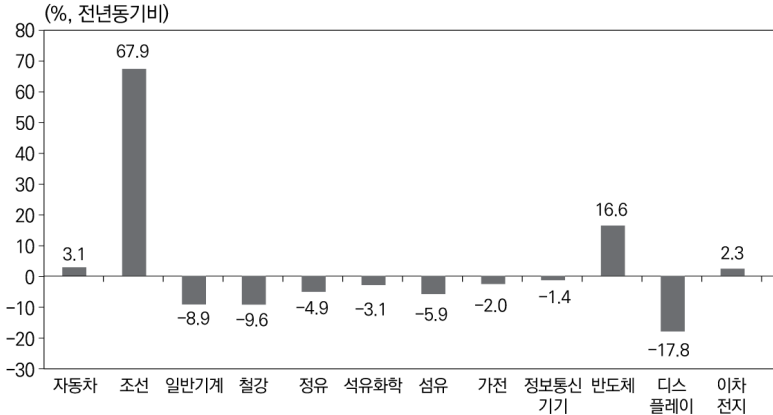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의 생산은 각각 6.1%, 10.0% 증가했지만, 디스플레이는 18.7%나 감소
- 가전 생산은 해외생산 증가가 국내 생산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5.6% 감소하였으며, 디스플레이는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수출 감소가 생산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
- 이차전지 생산은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위험보다 수요처의 가동 중단 등 수요 부족에 기인하여 4.7% 감소

□ 내수: 코로나 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 다수의 산업에서 내수가 감소했지만, 그 감소 폭이 크지 않고, 일부 산업은 내수가 오히려 증가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등은 수요산업의 수출 수요가 위축되어 내수 또한 감소하였으며, 가전 및 정보통신기기 등 IT 내구 소비재는 국내 판매가 줄었으나 하락 폭이 크지 않음.

- 반면, 다수의 신차 출시와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루어진 자동차,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진 조선, 수요산업의 수출이 확대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은 내수가 오히려 증가
- (기계산업군) 자동차나 조선은 내수 진작책 등으로 내수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수요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반기계산업은 수요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내수가 위축
 -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신차효과와 내수진작책으로 자동차 내수는 3월부터 이미 증가세로 돌아서 올 상반기는 3.1% 성장
 - 조선산업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발주된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다수의 선박이 본격 인도됨에 따라 내수가 67.9%나 폭발적으로 증가
 - 1/4분기까지 기계류의 내수가 증가했지만, 주요 수요산업의 수출이 위축되기 시작한 2/4분기 이후 내수가 감소하여 상반기 8.9% 감소
- (소재산업군) 소재는 주요 수출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출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소재 내수 또한 위축
 -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의 큰 폭 생산 감소와 더불어 건설경기 악화로 철강 내수가 9.6%나 감소
 - 산업용 정유제품 수요는 큰 변화가 없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송용, 항공유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정유의 내수는 4.9% 축소
 - 석유화학 내수는 자동차,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3.1% 감소

〈그림 1-3〉 2020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추정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의류 소비 위축과 더불어 주요산업의 부진으로 의류용 및 산업용 소재의 판매 감소가 이루어져 섬유 내수는 5.9% 감소

○ (IT산업군)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IT산업 내수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등 비교적 양호

- 가전은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판매 증가, 가전 보조금 지급 정책 등으로 내수가 -2.0%의 낮은 감소 폭 기록

- 5G 서비스 및 윈도10 교체수요 확대 등의 호재가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정보통신기기의 내수도 1.4% 감소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국내 서버용 및 관련 개인용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SSD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반도체 내수는 16.6%로 큰 폭의 증가 기록

- 전반적인 대형화 및 고급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산업의 위축 등으로 디스플레이 내수는 17.8% 감소
- 전기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차전지의 내수도 2.3% 증가

□ 수입: 코로나 19에도 내수와 마찬가지로 낮은 하락 폭 기록

○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산업도 존재하나,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증가로 일부 산업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12대 산업 전체 수입은 5.8% 감소하는 데 그침.

- 내수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 조선 등의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고, 정보통신기기 및 이차전지도 다소 증가
- 반면, 수요산업의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소재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섬유의 단가 하락과 우리 수출과 관련 있는 디스플레이 등은 수입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으며, 일반기계, 정유, 가전, 반도체 역시 감소

○ (기계산업군) 내수에서 호조를 보인 자동차와 조선의 수입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의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로는 0.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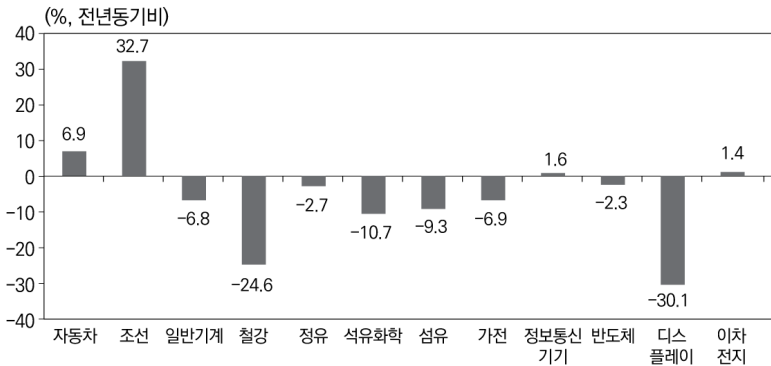
- 일본차에 대한 불매운동, 자동차 생산 감소에 따른 부품 수입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 내수의 증가 등에 의해 6.9%나 성장
- 조선도 선박용 부품이나 엔진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유조선 및 벌크선 등 화물선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32.7%의 높은 성장세 기록
- 코로나 19로 인해 수요 위축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부품을 중심으로 일반기계 수입은 6.8%나 감소

○ (소재산업군) 가격경쟁력에 의한 수입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등으로 13.1%나 감소

- 철강 수입은 환율, 전반적인 단가 인하 등에 따라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의해 수입 물량이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4월 이후에는 단가하락도 수입액 감소에 기여하여 상반기 전체로 24.6%나 감소
- 정유는 수입 물량이 석유화학 원료를 중심으로 13%나 증가하였음에도 국제유가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금액이 2.7% 감소
- 석유화학은 수입단가 하락률이 -1.3%에 불과하였으나, 국내 수요 감소로 수입물량이 크게 줄어 전체 수입액도 10.7% 감소
- 섬유는 수입단가가 다소 하락하였지만, 의류 및 섬유 소재의 수입 수요가 줄면서 수입액도 9.3% 하락

○ (IT산업군) 디스플레이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가전과 반도체 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정보통신기기 수입이 다소 증가하여 IT산업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3.1% 감소한 데 그침.

〈그림 1-4〉 2020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수입 증감률 추정



주: 달러 표시 가격 기준.

- 코로나 19에 따른 해외생산 차질과 미국, 일본 등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가전 수입은 6.9% 감소
- 수입이 시스템반도체 위주로 발생하는 반도체의 경우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수입이 2.3% 감소
- 정보통신기기는 휴대폰부품과 PC부문이 감소한 반면 휴대폰과 5G 통신장비, SSD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6% 소폭 증가

2. 2020년 하반기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코로나 19 영향 지속으로 세계수요 침체, 경쟁 심화, 단가 인하 지속
- (코로나의 영향과 업종별 세계수요)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다른 요인들 역시 코로나 19의 영향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
 - 코로나 19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반기에 비해 나아지겠지만 세계수요를 위축시키고,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 이에 따른 제품 단가 인하 등이 지속
 - 비대면 사회로 인한 수혜 산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산업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는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자동차 수요 사이클이 이미 하강국면이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침.
 - 코로나 19는 해상 물동량 감소, 유가 하락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감소, 주요 육해상 에너지 프로젝트의 취소 및 연기, 해운사 위기에

〈표 1-1〉 주요 산업을 둘러싼 세계수요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자동차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글로벌 수요 부진	☹☹
	미국, 유럽 자동차 수요 사이클 하강국면 진입	☹
조선	해상 물동량 감소	☹☹
	유가 하락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감소	☹☹
	주요 육해상 에너지 프로젝트의 취소 및 연기	☹☹
	해운사 위기로 인한 인도 연기	☹☹
일반기계	경기침체로 수요산업의 생산 및 설비투자 축소 예상	☹☹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 예정	☺
	유가하락으로 자원보유국의 프로젝트 발주 감소	☹☹
철강	세계 경제성장률 저하	☹☹
	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
정유	차량 및 항공용 석유제품 수요 감소	☹
	석유 화학용 석유제품 수요 확대	☺
	기타 석유제품 수요 감소	☹
석유화학	의약품, 개인보호용품, 음식 포장재 중심 소재 수요 증가	☺
	중국 경기 회복세, 주요 수출국 경기부양책 시행 기대	☺
	경기 하락에 따른 주요 전방산업 수요 부진	☹☹
섬유	글로벌 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 수요 감소	☹☹
	세계 생산활동 둔화에 따른 산업용섬유 수요 둔화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확대	☺
가전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둔화와 소비지출 변화	☹☹
	OLED TV, 청정가전 등 신제품 수요	☺
정보통신기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요 부진	☹
	디지털기반 비대면 확산으로 SSD 채용 가속화	☺☺
반도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지속	☺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전자기기 수요 회복 지연	☹☹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신기종 출시	☺
	가전시장 회복 지연	☹☹
이차전지	각국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
	EV 신모델 출시	☺
	정보통신기기, 무선 가전시장 회복 지연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의한 인도 연기 등으로 조선산업의 수주뿐만 아니라 생산 및 수출에도 영향을 미침.

-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투자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

- 섬유산업의 수요도 글로벌 소비 위축에 따른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비대면 온라인거래 활성화는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

-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 일부 산업에서는 자체 및 수요산업의 신제품 출시가 글로벌 수요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평가

-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제품의 수요 증대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등의 시장 상황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반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상반기에 이어 상대적으로 양호

- 자동차 수요는 우리 수출의 56%에 달하는 미국, EU 등의 시장이 5~10% 수준에서 감소하고, 러시아 같은 신흥국에서는 10% 이상 감소할 전망

- 섬유 수요는 베트남, 미국 등에서 10% 넘게 감소하고, 중국에서도 -10 ~ -5% 수준에서 감소할 전망

- 디스플레이 수요는 국내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중국에서 10% 넘게 감소

〈표 1-2〉 주요 수출 대상국의 하반기 수요 전망¹⁾

	국가	비중 ²⁾	영향	국가	비중	영향	국가	비중	영향
자동차	미국	36.8	↑	EU	19.1	↑	러시아	4.7	↑↑
일반기계	중국	30	↔	미국	20	↔	베트남	10	↔
철강	선진국	35	↔	동남아	25	↔	남미 등	25	↑
정유	미국	20	↔	중국	14	↔	유럽	17	↔
석유화학	중국	43.6	↔	인도	5.7	↔	미국	5.4	↔
섬유	베트남	19.4	↑↑	중국	16.5	↑	미국	11.9	↑↑
가전	미국	37.0	↔	일본	8	↔	중국	7.1	↔
정보통신기기	미국	28.0	☆	중국	26.0	☆	베트남	14.0	↔
반도체	중국	39.7	☆	홍콩	23.7	☆	베트남	11.4	☆
디스플레이	중국	50	↑↑↑	베트남	40	↑	기타	10	↑↑
이차전지	중국	15.8	↔	독일	14.5	↔	폴란드	10.9	↔

주: 1)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비대면 사회 등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미국, 중국 등의 시장에서 5~10% 수준에서 증가세 지속
 -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수요는 동결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
 - 철강 수요의 경우 동남아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지 않겠으나, 선진국은 다소 감소하고, 남미 및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5~10% 수준에서 감소 예상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중국 등 경쟁국의 공급능력 증대에 따른 세계적 공급 과잉 상황이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

-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투자계획 및 공장 가동이 지연되었지만 수요 부족이 더 크게 작용하여 경쟁은 심화
- 자동차는 일부 자동차업체가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리 기업들에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
- 중국의 수주 확대나 일본 조선사의 수주 잔량 부족은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 철강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각국의 무역 규제 강화가 우리의 경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 정유는 코로나 19로 신규 정제설비 증설이 지연되었지만, 수요 감소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석유화학의 경우 중동, 중국과의 경쟁은 심화되었지만, 원유와 연계된 우리 석유화학산업으로서는 유가 하락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
- 우리 섬유산업은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불리한 측면이 심화
- 중국이 5G 폰 및 장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5G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지만, SSD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반도체 업계에 있어 해외 부문과의 경쟁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디스플레이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및 양산기술 향상이 지속되어 우리의 경쟁 환경은 더 악화 전망

〈표 1-3〉 주요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자동차	미국, 유럽 내 사업 집중도가 높은 포드, 혼다, FCA, PSA, 르노-닛산 등은 경쟁력 약화	☹
조선	가격, 금융 및 화물 기반의 중국 수주 확대	☹☹
	일본 조선사의 수주잔량 부족	☹☹
일반기계	중국 및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	☹↑
철강	중국 조강생산량 확대	☹☹
	각국의 무역 규제 강화	☹☹
정유	신규 정제설비 증설	☹☹
	공급과잉으로 기존 설비 가동률 하향 조정	☹↑
석유화학	국제유가 하락으로 NCC 기반 제품의 원가경쟁력 회복	☺
	중동, 중국 중심 COTC 생산설비 투자	☹☹
섬유	가격경쟁력	☹☹
	품질 제고	☹☹
정보통신기기	중국 5G폰(세계 2위), 5G장비(1위) 경쟁 심화 전망	☹☹
	미국 5G폰 신규 출시로 하반기 한·미 경쟁 심화	☹☹
	한·미·일 경쟁 구도이지만 SSD시장에서 한국이 1위	☺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경쟁 관계 변동 없음.	☹☹
디스플레이	중국 생산 능력 확대 및 양산기술 향상	☹☹
이차전지	가격 경쟁력	☹☹
	견고한 내수 시장확보	☹☹
	주요 EV 제조사로부터 수주	☹☹
	원자재 확보	☹☹

주: 전년대비 우리 산업의 경쟁력, ↑↑↑ 경쟁력 큰 폭 약화, ↑ 경쟁력 약화, ☹☹☹ 경쟁력 다소 약화, ☹☹☹ 경쟁력 다소 개선, ☺ 경쟁력 개선, ☺☺ 경쟁력 크게 개선.

- 이차전지는 단기적으로 큰 폭의 공급 과잉 상황이 초래되지 않아 글로벌 경쟁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제품 단가 변화) 제품의 글로벌 단가는 수출금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자동차나 일반기계 등은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아 분석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조선은 후판 가격 등 비용 인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존재하지만, 수주 시황 악화와 조선사 간 경쟁 심화로 기본적으로 수주 단가의 인하가 예상
 - 철강도 원료가격 인상 등이 예상되지만, 과잉공급 및 재고 물량 증가가 단가 인하요인으로 작용
 -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유는 하반기에도 전년대비 큰 폭의 유가 하락 전망으로 단가가 큰 폭 하락 예상
 - 석유화학 역시 유가 하락 및 수요 부족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단가 하락이 예상
 - 섬유는 환율, 유가, 원자재가 등이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정보통신기기는 고용량화로 SSD의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되며, 반도체는 대표품목들의 제품 단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는 대형 라인을 중심으로 가동이 확대되어 제품 단가가 다소 하락할 전망
 - 이차전지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해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평가

〈표 1-4〉 주요 산업의 단가 관련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조선	수주 시황 악화와 조선사 경쟁 심화	☹☹
	후판 가격 인상	☹
철강	과잉공급 및 재고 물량 증가	☹☹
	원료 가격 인상	☼
정유	국제 유가 하락(두바이유 기준)	☹☹
	정제마진 하락	☹☹
석유화학	석유화학제품 수요의 평년 수준 회복 여부 불투명	☹
	국제 유가 하락	☹
	미국산의 동아시아 공급량은 감소, 동아시아 지역 NCC 가동률이 정상 유지로 공급 증가	☹
섬유	환율	☹
	유가	☹☹
	원자재가(천연섬유소재)	☹
정보통신기기	보급형 폰과 프리미엄폰 등 시장 양극화 확대	☹
	고용량화로 SSD 단가 상승	☼
반도체	국내 기업의 대표품목 제품 단가는 안정세로 전환	☹
디스플레이	대형 라인 가동 확대	☹☹
이차전지	원자재 가격 변동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상반기 대비 국내 여건 개선 기대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산업에서 전년대비 수요가 줄어들고 생산능력과 경쟁력 역시 약화되었으나 상반기 대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국내 수요 여건) 코로나 19의 여파로 하반기에도 경기는 위축될 전망

이며, 상반기에 실시되었던 소비진작책이 약화되어 자동차, 섬유, 가전 등은 회복이 부진하고, 관련 소재 및 부품산업 수요도 다소 위축이 전망되는 반면, 정보통신기기, SSD용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내 수요는 증가

- 하반기에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상반기에 내수진작책으로 수요가 실현되었으나, 소비심리는 하반기에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 국내 수요 여건은 상반기보다 악화 전망
- 일반기계는 자동차, 전자 등 수요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정유, 이차전지 등의 산업에서 설비투자 수요가 기대되며, 정부 주도 건설 투자 등으로 국내 수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철강산업은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국내 수요 여건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
- 정유는 수송용, 가정, 상업, 발전 등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어 전반적인 수요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석유화학은 일부 의료보건 등과 관련된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대규모 주력 수요산업에서 수요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도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섬유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민간소비나 수요산업 생산활동 위축은 섬유의 국내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
- 가전은 국내 성장 둔화와 소비지출 감소가 내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정보통신기기는 하반기 5G 확산의 본격화 및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가 기대되나 단말 보조금 축소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소 부정적

〈표 1-5〉 주요 산업의 국내수요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 조정	☹☹
	정부 내수진작책에 따른 대기수요 실현	☹☹
	실업률 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	☹
일반기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수요산업의 기계류 수요 감소	☹☹
	반도체, 정유, 이차전지 산업의 적극적 설비투자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 주도의 건설투자 증가	☹
철강	경제성장률 저하	☹☹
	수요산업의 생산 부진	☹☹
정유	수송용 부문의 수요 회복	☹
	석유화학제품용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	☹
	가정, 상업 및 발전부문 수요 회복	☹
석유화학	의약품, 소독용, 세정용, 음식 포장재 중심 수요 증가	☹
	ICT산업 제외 수요산업 수요 부진	☹☹
섬유	국내 경제 성장률/민간소비	☹☹
	의류 및 수요산업 생산활동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
가전	국내 경제성장 둔화 및 소비지출	☹☹
	정부정책을 통한 소비진작	☹
	가전 신제품 수요	☹
정보통신기기	5G 전국서비스 및 고도화 투자 확대	☀
	하반기 국내외 신규 보급형·고급형 스마트폰 출시	☀
	단말 보조금 축소, 코로나 19 등 소비심리 저하	☹☹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	☹
반도체	SSD용 수요 확대	☀
	자동차를 비롯한 시스템반도체 수요산업 부진	☹☹
이차전지	국내 전기차 생산량	☀☀
	국내 휴대폰 생산량 및 무선가전 수요	☹
	ESS 보급 현황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반도체는 SSD용의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시스템반도체에서의 내수가 부진할 전망
- 디스플레이는 국내 수요가 큰 의미가 없는 반면 이차전지는 국내 전기차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내수 확대가 예상
- (국내 생산능력) 소재부품 조달망의 문제보다 해외이전 등의 요인으로 일부 산업에서 생산능력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자동차는 외자계업체의 생산모델 축소 등으로 생산능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일반기체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특성상 주 52시간 노동이 문제로 작용
 - 석유화학은 수요 감소로 기존에 예정되었던 신증설 완료 시기의 지연이 우려되며, 섬유산업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위축될 우려 존재
 - 가전이나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해외생산으로 인해 국내 생산라인을 폐쇄하거나 생산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
 - 한편,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생산능력 확충이 계획되어 있어 생산능력 확대가 기대
- (국산제품 경쟁력 변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 국산제품의 경쟁력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자동차는 고급브랜드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행거리가 향상된 전기차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 코로나 19나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나 일본 등으로부터의 핵심부품 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 등은 일반기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

〈표 1-6〉 주력산업의 2020년 설비투자 전망 기상도

	2019	2020
자동차	☂☂	☂☂
조선	☀	☀
일반기계	☂	☁
철강	☁	☁
정유	☂☂	☀☀
석유화학	☀☀	☁
섬유	☂	☂☂
가전	☁	☂
정보통신기기	☁	☁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이차전지	☀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철강산업은 경쟁력에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확대 등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환경규제, 노동시장, 에너지 가격, 수입재의 가격 등의 문제로 경쟁력이 약화
- 석유화학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산제품 원가경쟁력 강화나 중국에 대한 적시 납기 대응 능력 등이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중국산 범용제품 수입 규모 확대는 부정적인 요인
- 섬유산업은 품질수준에서 우리가 다소 우위요인이 있으나, 가격경쟁력에 있어 지속적으로 불리한 상황
- 가전은 국내 스마트홈 신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제품경쟁력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성비를 갖춘 중국 제품의 내수 영

〈표 1-7〉 주요 산업의 국산제품 경쟁력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자동차	국내업체 고급브랜드 신차 출시	☀
	주행거리 향상된 전기차 판매 확대	☁
일반기계	코로나 19 및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납기 지연 가능성	☹
	핵심부품의 조달애로 발생 가능성	☹
	코로나 19로 지연된 중국발 부품의 대체 수요 증가	☁
철강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	☁
	환경규제	☹
	노동시장 변화	☹
	에너지 가격 (전력 등)	☹
	환율 하락 및 수입재 가격 하락	☹
석유화학	국제유가 하락으로 ECC 대비 국산제품 원가경쟁력 회복	☀
	중국 저자급률 품목 중심 적시 납기 대응 능력 확보	☁
	중국산 범용제품 수입 규모 확대	☹
섬유	가격경쟁력	☹
	품질 수준	☁
가전	국내 스마트홈 신분야에서 국내기업 매출	☁
	가성비를 갖춘 중국 브랜드 제품의 내수 영향력	☹
	국내기업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	☹
정보통신기기	스마트폰(폴더블폰, 5G폰) 신제품 출시 확대	☀
	국내 5G 장비시장에서 국산제품의 경쟁력 제고	☁
	세계 최고 수준의 SSD 개발 역량과 경쟁력	☀
	미국기업의 5G 스마트폰 출시	☹
	중국기업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본격 진출	☹
	외산 5G 장비 경쟁력 강화	☹
	중국의 기업용 SSD 시장 진출 확대	☹

(계속)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반도체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의 경쟁력 유지	☀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여전히 국내 기술이 열악한 상황	☹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OLED 채택 확대	☀
	저가폰 수요 지속	☂
이차전지	기술 경쟁력	☀
	공급가능 품목의 다양성	☀

주: 전년대비, ☂☂ 매우 부정적, ☂ 부정적, ☹ 다소 부정적, ☺ 다소 긍정적, ☀ 긍정적, ☀☀ 매우 긍정적.

향력 확대와 해외 생산제품의 역수입 등으로 국내 제품에 부정적

- 정보통신기기는 신제품 출시나 SSD 개발역량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미국기업의 5G 본격 출시, 중국산 스마트폰의 국내시장 진출, 외산 5G 장비의 높은 경쟁력, 중국의 기업용 SSD 시장 진출 확대 등의 불리한 요소가 존재
-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열악한 상황
-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OLED의 스마트폰 채택이 확대되어 우리에게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양극화로 저가폰 수요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 시장 경쟁에 긍정적으로 작용
- 이차전지는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 및 공급 가능 품목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위를 보유

3.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12대 산업,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6.1% 감소

○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도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겠지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그 감소폭이 축소

- 최종 내구소비재로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을 비롯하여 소비재 성격이 강한 섬유 등과 더불어 단가에 영향을 받는 철강, 정유, 석유 화학 등, 경쟁력 약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감소 전망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 있는 정보통신기기 및 반도체는 하반기에 수출 증가가 예상

- 조선과 일반기계도 기주문량의 인도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증가

○ (기계산업군) 조선과 일반기계의 증가세 전환 및 자동차의 감소세 약화로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2.4%를 기록하고, 2020년 전체로는 10.3% 감소 전망

- 하반기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침체와 외자계업체의 수출물량 배정 조정으로 6.5%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8.2% 감소

- 조선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도 연기 등이 우려되지만, 수주 회복기의 고가 선박 인도 등으로 하반기에 1.0%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2.7% 감소하는데 그침.

- 조선은 하반기 이후 해상물동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선박량이 충분하고, 선박금융 시장도 개선되기 어려워 신규발주는 극히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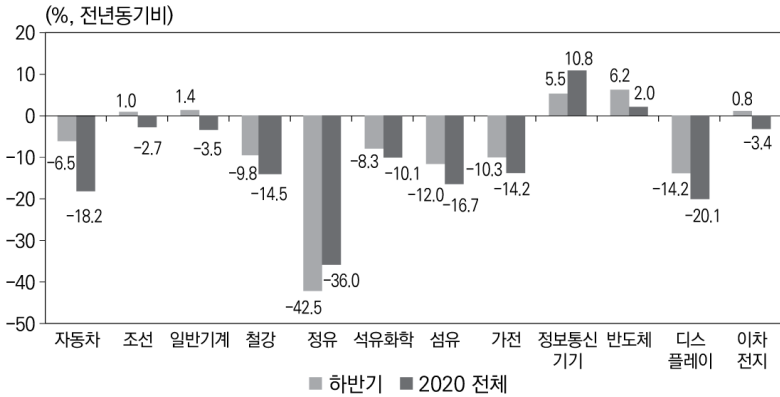
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수출은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 및 수요업종의 부진이 예상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경기부양 설비투자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1.4%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3.5%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소재산업군 수출은 하반기에도 단가 인하의 영향으로 20.2%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20.1% 감소 전망
 - 철강은 수출단가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승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물량도 경기 침체 지속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하반기 수출은 9.8%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4.5% 감소
 - 정유는 유가 하락 등으로 단가 인하가 더 커져 수출 물량은 증가해도 수출금액은 하반기에 42.5%나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36.0% 감소
 - 석유화학은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와 더불어 수출 단가가 하락하여 하반기 수출금액은 8.3% 하락, 연간으로는 10.1% 감소
 - 섬유는 글로벌 수요절벽, 이에 따른 경쟁 심화와 수출단가 약세 등으로 하반기에도 수출이 12.0%나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6.7% 감소
- (IT산업군) 코로나 19로 수혜를 보는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은 수출이 증가하지만,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등은 감소하여 하반기 수출은 2.2%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0.7% 감소
 - 가전의 하반기 수출은 글로벌 수요 위축과 해외생산 증대로 10.3%나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4.2% 감소
 - 정보통신기기는 하반기에도 비대면 사회에 따른 SSD 수요에 힘입어 5.5%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0.8% 증가

〈표 1-8〉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주요 요인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수출단가 상승 - 코로나 19로 지연된 수요 실현	- 코로나 19로 글로벌 수요 총량 감소 - 외자계 수출 물량 감소	글로벌 수요 침체와 외자계업체 수출물량 배정 조정으로 감소
조선	- 고가의 LN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출증가	- 회복기 수주의 낮은 선가 - 미인도, 취소된 Drillship - 해운사 인도연기	수주 회복기 고가 선박 수출,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 가능성
일반기계	- 중국의 경기 부양과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증가 - 기수주한 EPC 프로젝트	- 교역환경 불확실성 증가 - 주요 수입국의 경제침체 - 자원보유국의 발주 위축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경기부양 등 기대
철강	- 신흥국 철강수요 회복 - 수출제품 고도화	- 세계 철강수요 감소 - 수출경쟁, 보호무역 심화	세계 철강수요 회복 속도가 관건
정유	- 주요국의 수요 회복 - 저유황 유류의 수요 확대 - 글로벌 설비증설 지연	- 중국 및 글로벌의 신규 정제설비 가동 및 가동률 상향 조정	수출 물량은 확대되지만, 단가하락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
석유화학	- 미국산 유입량 감소 - 중국 경제활동 정상화	-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 - 공급 증가로 단가 하락	수요 감소, 공급 증가로 수출단가 하락
섬유	- 한류기반 의류와 방역제품의 수출 확대 - 역직구 활성화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 - 수출단가 약세	글로벌 수요절벽, 수출단가 약세, 경쟁 심화 등
가전	- 청정 및 프리미엄 가전 수요 증가	- 경기와 세계시장 위축 - 해외 생산 확대	세계시장 위축과 해외생산 증대로 위축
정보통신기기	- 신제품 출시 비대면 서비스 확대, SSD 단가 회복	- 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 - 세계 5G 상용화 지연 - 해외생산 확대	세계 시장수요 회복과 SSD 수요에 힘입어 수출증가세 지속
반도체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 메모리반도체 용량 증가 및 단가 안정	- 스마트폰 매출 감소 - 주요국의 소비심리 악화	코로나 19 영향으로 수출 증가 폭 축소
디스플레이	- OLED 스마트폰 적용확대 - 비대면 문화 확산	- 상반기 저가폰 수요 지속 - 광저우 OLED 양산시작	세계 경기 둔화와 중국내 생산 확대로 수출 감소
이차전지	- 각국 경기부양책으로 전기차 보조금 증액	- 해외생산의 증가 - 중국 이차전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생산 증가로 장기 수출은 부정적이나 부분품 수출 증가

〈그림 1-5〉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전망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디스플레이 수출은 세계수요 둔화와 중국 생산 확대 등으로 하반기에도 14.2%의 감소가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20.1% 감소
- 이차전지는 경기부진, 해외생산 증가 등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등으로 하반기 수출은 0.8%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3.4% 감소할 전망

□ 생산: 12대 산업 생산은 하반기에 회복 국면

○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차전지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여타 산업들의 생산 감소율이 크게 개선

- 물량기준으로 보면 소재산업들도 수출 감소율이 크지 않으며, 여타 산업들은 수출이 상반기보다 개선된데 기인

- (기계산업군) 하반기에 조선과 일반기계의 생산은 작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하고, 자동차도 생산 감소율이 크게 낮아져 전반적으로 기계산업군의 상황이 크게 개선
 - 하반기 자동차 생산은 외자계 생산 조정과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감소하기는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2.5% 감소에 그치고, 연간으로는 상반기의 침체로 12.6% 감소
 - 하반기 조선 생산은 코로나 19로 일부 인도 연기가 있지만, 수주 회복기 물량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0.7% 감소하며, 연간으로는 8.1% 감소
 - 하반기 일반기계 생산은 제조업의 내수 및 수출 침체로 악영향을 미치지만, 기주문 물량과 더불어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기인하여 수출 증가 등으로 작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고, 연간으로는 1.5% 감소
- (소재산업군) 수출물량의 감소 등으로 소재산업군의 생산 또한 감소할 전망이지만, 수출금액 하락이 주로 단가 인하에 기인하여 생산량 감소는 제한적
 - 철강은 내수 판매 및 수출 감소로 인해 하반기 철강 생산 역시 4.1% 감소하며, 연간으로는 5.2% 감소 전망
 - 정유는 수송용 내수 감소에 기인하여 하반기 생산물량이 1.4%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2.5% 감소
 - 석유화학도 수요 부진이 이어져 하반기 생산이 1.5% 감소하고, 연간으로 0.7% 감소
 - 섬유는 의류와 관련 소재 등으로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적 성격이 존재하여 하반기 생산 감소 폭이 다른 소재보다 더 큰 -5.7% 수준이고, 연간으로는 -7.2%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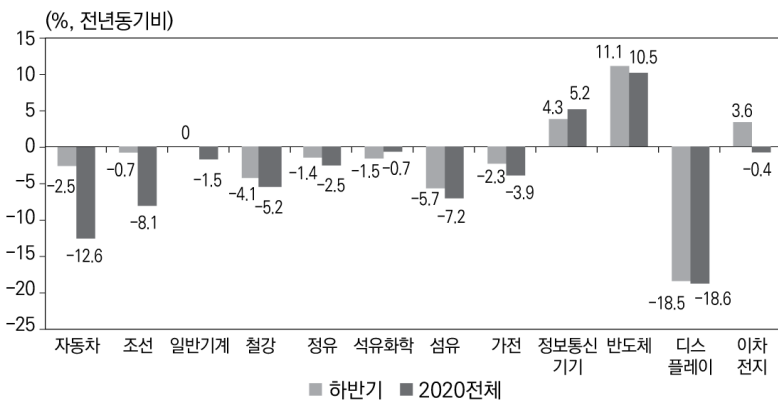
〈표 1-9〉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의 생산 변화 주요 요인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신규 차종 생산	- 외자계 모델 생산 중단 - 수출 부진과 재고 증가	외자계 생산 조정과 수출 부진으로 감소
조선	- 수주 회복기 물량의 인도	- LNG운반선 생산급증으로 인력/설비 부족 - 해운사 인도연기	LNG운반선 생산으로 물량 감소 및 코로나 19로 인도 연기
일반 기계	-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	- 제조업 전반의 내수 및 수출 침체	내수 및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감소
철강	- 설비 효율성 제고 - 친환경설비 투자 확대	- 내수판매 및 수출 감소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품목 고도화 시도
정유	- 수출 물량 확대 - 아시아 역내의 경기 회복	- 수송용 석유 내수 감소 - 저유가와 정제마진 약세	내수 위축으로 인한 생산 감소
석유 화학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경쟁력 회복	- 수요 위축에 따른 가동률 하향조정 불가피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향조정
섬유	-	- 내수 및 수출 부진 - 국내 투자 감소 및 생산 기반 약화	내수 및 수출 부진, 해외생산 확대 및 수입 증가로 생산 부진
가전	- 글로벌 공급망 어려움에 따른 국내 대체 생산 증가 및 수입 감소	- 해외생산 확대 - 국내 설비투자 감소 - 국내 수출 감소	부정적 여건
정보통신기기	- 수출 확대 및 내수 회복 - 신제품 출시 확대 - 탈중국화와 글로벌기업의 국내 조달 비중 확대	- 해외생산 및 현지 부품조달 확대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제약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지속 증가
반도체	- 수출 향상 및 미세공정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 - 생산 설비투자가 차질없이 진행 중	- 수요가 애초 예상보다 저조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지만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생산은 점진적으로 확대 중
디스플레이	-	- LCD 라인 폐쇄 - 패널 단가 하락	LCD 생산 축소 및 불확실성 확대
이차전지	-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부분품 수출 증가 및 국내 수출용 전기차 생산 증가	- 해외생산의 증가	내수 및 수출 증가에 따라 생산 증가가 예상

○ (IT산업군) 소비재 성격이 강한 가전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부진한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생산이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생산이 증가

- 하반기 가전 생산은 해외생산 확대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 등으로 2.3% 감소하고, 연간으로 3.9% 감소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SSD와 더불어 5G 확산에 따른 기기 수요 증대 등으로 생산이 4.3% 증가하고, 연간으로 5.2% 증가
- 하반기 반도체 생산은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지만 SSD용 내수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세공정 전환 등도 순조로워 11.1%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연간으로도 10.5% 성장이 예상
- 하반기 디스플레이 생산도 해외생산의 증가, 경쟁의 심화, 패널가의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비 18.5%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18.6% 감소

〈그림 1-6〉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하반기 이차전지 생산은 해외 전기자동차의 수요뿐만 아니라 내수 전기차도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고, 연간으로 0.4% 감소

□ 내수: 많은 산업에서 상반기보다 높은 증가세 기록

- 상반기에 성장세를 기록했던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내수는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지만,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율이 둔화하는 양상으로 전환

- (기계산업군) 자동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조선도 증가율이 낮아지지만, 기계산업의 감소율은 다소 둔화

- 하반기 자동차 내수는 대기수요 기실현, 경기 부진 지속, 내수 진작책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4.8%나 감소하고, 연간 1.0% 감소

- 하반기 조선 내수는 해운산업 재건에 따른 선박발주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에 이어 38.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53.3% 증가

- 하반기 일반기계 내수는 세계적으로 국내 수요산업의 위축이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하고, 연간으로 6.5% 감소

- (소재산업군) 전체적으로 내수가 감소하지만 상반기에 비해 감소율이 낮아짐

- 하반기 철강 내수는 상반기보다 개선되지만, 수요산업 생산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하고, 연간으로 7.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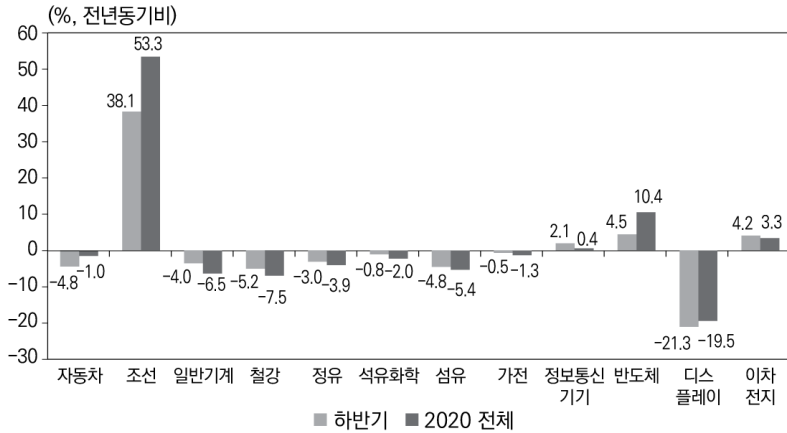
- 하반기 정유 내수는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3.9% 감소

〈표 1-10〉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의 내수 변화 주요 요인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상품성 높은 신차 출시 - 공격적 판매 전략 추진	- 소비심리 위축 - 대기수요 감소	대기수요 실현, 경기 부진 지속으로 감소
조선	- 국내 해운 선복 확충 노력 - 친환경 선박 교체 발주 및 친환경 기자재 설치 수요	- 가격 요인으로 국내 선사 의 중국발주 - 코로나 19로 인도 지연	해운산업 재건으로 내수 증가
일반 기계	- 반도체 대규모 설비투자 -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 코로나로 수요산업의 생 산 감소	수요산업 위축에 따른 내 수 감소
철강	- 수요산업의 내수 축소 둔화 -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 수요산업의 생산 감소 - 경제성장률 둔화	상반기 대비 회복되나 전 년 대비 감소
정유	-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 프타 및 LPG 수요 확대	- 항공용 및 차량용 석유제 품의 소비 감소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 위축
석유 화학	- ICT 산업 중심 수요 회복 - 의료 및 포장용 수요 증가 - 경기부양책 시행 효과	- ICT 외 전방산업 수요 부 진에 따른 재고량 증가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따 라 전년 대비 감소
섬유	- 금리 인하 - 비대면 온라인 거래활성화	- 경기 및 민간소비 부진 - 수요산업의 부진	민간소비, 국내 산업 활동 위축
가전	-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 신가전 수요 증가	- 경기 부진 - 부정적 소비지출 전망	부정적 여건이 다소 심화
정보통 신기기	- 5G 서비스 및 신제품 출시 -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산	- 소비심리 위축 - 휴대폰·PC 교체주기 연장	5G 서비스 확대로 개선 기대
반도체	- SSD 수출 증가 - 5G 통신 및 신산업 확대	- 시스템반도체 수요산업 부 진 및 소비 심리 악화	감소요인도 있으나 전체 내 수는 증가
디스 플레이		- LCD 생산 감소 - 프리미엄 제품 수요 감소	생산 감소로 패널, 소재, 부품 수요에 부정적
이차 전지	수출용 전기차 생산 증가	-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의 수요 감소 - 소비침체	친환경 정책으로 하반기 내 수 확대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그림 1-7〉 2020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전망



- 하반기 석유화학 내수는 수요산업 전반의 부진이 악재로 작용하지
만, IT산업의 수요 회복이나 경기부양책의 기대로 작년 하반기와 비
슷한 0.8% 감소하는 데 그치고, 연간으로는 2.0% 감소
- 하반기 섬유 내수도 민간소비, 국내 수요산업의 활동 위축 등으로 전
년동기대비 4.8% 감소하고, 연간으로 5.4% 감소
- (IT산업군) 반도체의 내수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가전, 정보통신
기기, 이차전지 등은 상반기에 비해 내수가 개선
- 하반기 가전 내수는 경기 부진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 소비촉진 정책, 신가전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0.5% 감소하는데 그치고, 연간으로는 1.3% 감소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5G 서비
스 수요 확대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고, 연간으로 0.4% 증가 전망

- 하반기 반도체 내수는 여전히 SSD 수출 증가, 5G 및 신산업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10.4%가 증가
- 하반기 디스플레이 내수는 실질적인 내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자동차용 등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21.3%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9.5% 감소
- 하반기 이차전지 내수는 전기자동차의 내수 및 수출 확대로 4.2% 만큼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3.3% 증가 예상

□ 수입: 12대 산업, 내수부진, 단가인하 등으로 하반기 5.9% 감소

○ 자동차, 철강, 정유, 디스플레이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이며, 조선, 석유화학 등의 수입은 증가세 기록

- 이러한 업종별 수입 증감에서의 차이는 내수 상황이나 단가 등에 의해 발생

○ (기계산업군) 하반기 기계산업군의 수입은 자동차의 수입 감소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수입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공급 물량 부족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의 여파, 국내 부품 수요 감소 등으로 하반기에 17.0%나 큰 폭 감소하고, 연간으로 5.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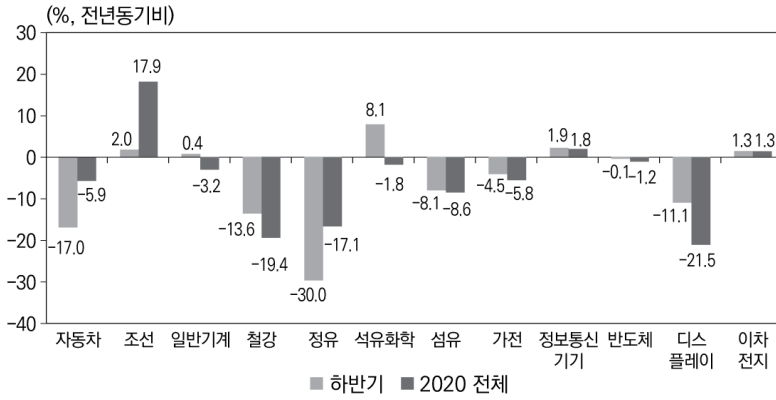
- 하반기 조선 수입은 중고선 도입 및 중국 건조 선박의 수입 증가로 2.0%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7.9% 증가

- 하반기 일반기계 수입은 첨단제조장비 핵심부품 수입 수요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내수 경기 위축으로 전년동기비 0.4% 증가하는데 그치고, 연간으로는 3.2% 감소

○ (소재산업군) 석유화학 수입은 증가하지만, 철강, 정유, 섬유 등의 감

- 소로 하반기에 -12.8%, 연간으로 12.9% 감소
- 하반기 철강 수입은 높은 재고 수준과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6% 감소, 연간으로 19.4% 감소
 - 하반기 정유 수입은 수입물량이 늘어나지만,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비 30.0%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7.1% 감소
 - 하반기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액이 급증하여 전년동기비 8.1% 증가, 연간으로 1.8% 감소
 - 하반기 섬유 수입은 수요 부진으로 해외 의류의 역수입이나 중저가 소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비 8.1% 감소하고, 연간으로 8.6% 감소
- (IT산업군) 하반기 IT산업 수입은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하는 데 그치고, 연간으로 1.7% 감소
- 하반기 가전 수입은 코로나 19로 해외 공급망 차질, 해외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전년동기비 4.5% 감소하고, 연간으로 5.8% 감소
 - 정보통신기기의 하반기 수입은 5G망 구축, 외산 신제품 출시, 국내 제품 역수입 등으로 전년동기비 1.9%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8% 증가
 - 하반기 반도체 수입은 제조 공정상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 등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에 그치고, 연간으로 1.2% 감소
 -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수입은 국내 디스플레이 수요의 위축으로 11.1% 감소하고, 연간으로 21.5% 감소
 - 하반기 이차전지 수입은 무선 가전에 중국 제품이 채택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하고, 연간으로도 1.3% 증가

〈그림 1-8〉 2020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수입 증가율 전망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표 1-11〉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의 수입 변화 주요 요인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초고가 브랜드차 수요증가로 수입단가 상승	- 공급물량 부족 - 국내 고급브랜드 폴라인업 구축 - 일본제품 불매 운동 여파	수입단가 상승에도 공급물량 부족과 일본제품 불매 운동 여파로 감소
조선	- 기자재 국산화율이 낮은 LNG운반선 건조 증가 - 중고선과 중국 선박 수입	- 친환경-고기술 선박 수요 증가	중고선 도입 및 중국 건조 선박의 수입증가
일반기계	- 첨단 제조장비 핵심부품 수입 수요	- 주요 제조업의 생산감소에 따른 부품수입 감소	전반적 내수 경기 위축으로 수입 감소세
철강	- 수입 대응재 비중 확대 - 환율 상승	- 중국의 높은 재고 수준 - 낮은 진입장벽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가장 큰 감소
정유	- 석유화학제품용 석유제품 수요 확대 - 국내 석유제품 생산 감소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수입물량 확대와 단가하락으로 인한 수입액 감소
석유화학	- 수입단가 하락 폭 확대	- 중국산 범용제품 수입량 증가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액 증가
섬유	- 비대면 온라인거래 활성화 - 수입단가 하락	- 해외 의류 역수입 감소 - 중저가 소재 수입 감소	수요 부진으로 수입 감소
가전	-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역수입 증가 - 경쟁국 제품경쟁력 개선	- 글로벌 공급망 차질 - 해외공장 가동 중단 - 국내기업 브랜드 우위	부정적 여건 심화
정보통신기기	- 5G망 구축 확대 - 외산 신제품 출시 확대 - 국내 제품 역수입 증가	- 소비심리 위축 - 코로나 장기화로 글로벌 기업 신제품 출시 지연	5G 투자 및 신제품 수요로 증가
반도체	- 제조 공정상 수입 증가	- 특수목적용 시스템반도체 수요 감소	시스템반도체용 수요 감소로 수입 감소
디스플레이		- 수출량 감소로 인한 축소	세계 시장 축소로 인하여 감소
이차전지	- 무선가전 수요 확대	- 무선가전 등의 중국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완제품 수입의 확대	인도어 활동 증가로 무선가전 등의 저렴한 중국산 수요 증가

〈표 1-12〉 2020년 12대 하반기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64,005 (-1.3)	32,982 (3.5)	32,595 (1.4)	65,577 (2.5)	23,143 (-29.8)	30,492 (-6.5)	53,635 (-18.2)
조선	21,275 (-49.6)	11,042 (2.1)	9,117 (-12.9)	20,159 (-5.2)	10,411 (-5.7)	9,212 (1.0)	19,623 (-2.7)
일반 기계	53,557 (10.2)	26,386 (0.5)	26,171 (-4.1)	52,557 (-1.9)	24,180 (-8.4)	26,550 (1.4)	50,730 (-3.5)
철강	33,973 (-0.7)	15,932 (-5.1)	15,161 (-11.8)	31,093 (-8.5)	12,921 (-18.9)	13,675 (-9.8)	26,596 (-14.5)
정유	46,349 (32.3)	20,018 (-9.0)	20,672 (-15.1)	40,690 (-12.2)	14,145 (-29.3)	11,878 (-42.5)	26,023 (-36.0)
석유 화학	49,985 (11.9)	21,688 (-13.1)	20,890 (-16.5)	42,578 (-14.8)	19,113 (-11.9)	19,163 (-8.3)	38,276 (-10.1)
섬유	14,080 (2.5)	6,617 (-7.8)	6,342 (-8.2)	12,959 (-8.0)	5,213 (-21.2)	5,580 (-12.0)	10,793 (-16.7)
가전	7,216 (-18.3)	3,535 (-4.3)	3,422 (-2.9)	6,957 (-3.6)	2,902 (-17.9)	3,069 (-10.3)	5,972 (-14.2)
정보통 신기기	28,428 (-10.8)	10,567 (-28.0)	12,577 (-8.6)	23,144 (-18.6)	12,369 (17.1)	13,272 (5.5)	25,641 (10.8)
반도체	126,726 (29.4)	47,476 (-22.5)	46,481 (-29.0)	93,957 (-25.9)	46,470 (-2.1)	49,348 (6.2)	95,818 (2.0)
디스 플레이	24,679 (-9.9)	9,716 (-9.8)	10,777 (-7.4)	20,493 (-8.5)	7,133 (-26.6)	9,243 (-14.2)	16,376 (-20.1)
이차 전지	7,224 (21.4)	3,686 (9.0)	3,731 (-2.9)	7,418 (2.7)	3,404 (-7.7)	3,761 (0.8)	7,165 (-3.4)
12대 합계	477,498 (4.9) 〈78.9〉	209,645 (-10.4) 〈77.3〉	207,936 (-14.6) 〈76.7〉	417,582 (-12.5) 〈77.0〉	181,404 (-13.5) 〈74.9〉	195,243 (-6.1) 〈77.8〉	376,648 (-9.8) 〈76.4〉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2대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표 1-13〉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4,029 (-2.1)	2,028 (1.2)	1,922 (-5.0)	3,951 (-1.9)	1,577 (-22.3)	1,860 (-3.2)	3,437 (-13.0)
조선 (만 CGT)	772 (-26.9)	512 (14.8)	442 (35.2)	954 (23.6)	438 (-14.5)	439 (-0.7)	877 (-8.1)
일반기계 (10억 원)	123,319 (2.1)	60,732 (-1.6)	60,263 (-2.2)	120,995 (-1.9)	58,890 (-3.0)	60,250 (0.0)	119,140 (-1.5)
철강 (천 톤)	75,211 (-2.4)	37,388 (-1.7)	36,172 (-2.7)	73,560 (-2.2)	35,043 (-6.3)	34,689 (-4.1)	69,732 (-5.2)
정유 (십만 배럴)	12,589 (2.4)	6,245 (1.4)	6,255 (-2.7)	12,501 (-0.7)	6,022 (-3.6)	6,166 (-1.4)	12,189 (-2.5)
석유화학 (백만 톤)	21,553 (-1.9)	10,770 (-0.4)	10,767 (0.3)	21,537 (-0.1)	10,766 (0.0)	10,611 (-1.5)	21,377 (-0.7)
섬유 (10억 원)	74,128 (-0.2)	36,250 (-1.9)	35,802 (-3.7)	72,052 (-2.8)	33,120 (-8.6)	33,744 (-5.7)	66,864 (-7.2)
가전 (10억 원)	27,574 (-4.1)	13,230 (-0.9)	13,599 (-4.4)	26,829 (-2.7)	12,492 (-5.6)	13,291 (-2.3)	25,783 (-3.9)
정보통신기기 (10억 원)	53,259 (-5.1)	23,553 (-14.4)	24,306 (-5.6)	47,859 (-10.1)	24,992 (6.1)	25,342 (4.3)	50,334 (5.2)
반도체 (10억 원)	140,962 (26.4)	56,001 (-19.2)	56,225 (-21.5)	112,256 (-20.4)	61,622 (10.0)	62,463 (11.1)	124,085 (10.5)
디스플레이 (10억 원)	60,727 (10.4)	25,024 (-11.5)	27,268 (-15.9)	52,292 (-13.9)	20,344 (-18.7)	22,223 (-18.5)	42,568 (-18.6)
이차전지 (10억 원)	7,896 (32.7)	4,551 (7.7)	4,852 (8.5)	9,403 (8.1)	4,339 (-4.7)	5,026 (3.6)	9,364 (-0.4)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1-14〉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1,804 (0.6)	859 (-4.3)	904 (-0.4)	1,762 (-2.3)	885 (3.1)	840 (-7.0)	1,725 (-2.1)
조선 (만 CGT)	217 (-26.7)	131 (13.9)	126 (23.5)	257 (18.4)	220 (67.9)	174 (38.1)	394 (53.3)
일반기계 (10억 원)	97,175 (-4.9)	49,332 (-0.9)	47,555 (-0.8)	96,887 (-0.8)	45,921 (-8.9)	45,641 (-4.0)	91,562 (-6.5)
철강 (천 톤)	53,710 (-4.6)	27,644 (3.2)	25,579 (-5.0)	53,223 (-0.9)	24,990 (-9.6)	24,242 (-5.2)	49,232 (-7.5)
정유 (십만 배럴)	9,348 (-0.6)	4,576 (-2.4)	4,753 (2.0)	9,329 (-0.2)	4,350 (-4.9)	4,611 (-3.0)	8,961 (-3.9)
석유화학 (백만 톤)	11,199 (-3.7)	5,595 (-1.7)	5,388 (-2.2)	10,984 (-1.9)	5,421 (-3.1)	5,345 (-0.8)	10,766 (-2.0)
섬유 (10억 원)	77,494 (2.1)	37,564 (0.0)	39,272 (-1.7)	76,836 (-0.8)	35,343 (-5.9)	37,371 (-4.8)	72,714 (-5.4)
가전 (10억 원)	27,466 (4.7)	13,438 (0.8)	13,565 (-4.1)	27,003 (-1.7)	13,167 (-2.0)	13,497 (-0.5)	26,664 (-1.3)
정보통신기기 (10억 원)	51,110 (0.4)	25,977 (1.0)	25,849 (1.8)	51,826 (1.4)	25,616 (-1.4)	26,402 (2.1)	52,018 (0.4)
반도체 (10억 원)	50,796 (7.2)	28,609 (13.7)	29,891 (16.6)	58,499 (15.2)	33,360 (16.6)	31,240 (4.5)	64,600 (10.4)
디스플레이 (10억 원)	38,819 (31.3)	16,894 (-11.2)	17,008 (-15.5)	33,902 (-12.7)	13,895 (-17.8)	13,385 (-21.3)	27,280 (-19.5)
이차전지 (10억 원)	1,259 (47.8)	1,184 (3.4)	1,391 (11.8)	2,573 (7.5)	1,211 (2.3)	1,449 (4.2)	2,658 (3.3)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1-15〉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17,516 (6.3)	8,025 (-12.4)	9,300 (11.3)	17,326 (-1.1)	8,578 (6.9)	7,717 (-17.0)	16,295 (-5.9)
조선	2,636 (-6.9)	1,229 (-3.2)	1,151 (-15.9)	2,380 (-9.7)	1,631 (32.7)	1,174 (2.0)	2,805 (17.9)
일반 기계	29,796 (-0.8)	14,437 (-5.0)	14,324 (1.9)	28,761 (3.5)	13,462 (-6.8)	14,386 (0.4)	27,848 (-3.2)
철강	21,849 (-0.2)	11,471 (4.1)	10,177 (-6.0)	21,648 (-0.9)	8,649 (-24.6)	8,793 (-13.6)	17,442 (-19.4)
정유	21,443 (41.8)	8,264 (-17.1)	9,275 (-19.2)	17,539 (-18.2)	8,041 (-2.7)	6,491 (-30.0)	14,532 (-17.1)
석유 화학	14,534 (5.5)	6,699 (-5.4)	5,977 (-19.8)	12,676 (-12.8)	5,984 (-10.7)	6,458 (8.1)	12,442 (-1.8)
섬유	17,141 (12.8)	7,771 (0.8)	9,359 (-0.8)	17,130 (-0.1)	7,050 (-9.3)	8,600 (-8.1)	15,650 (-8.6)
가전	7,119 (7.7)	3,716 (1.3)	3,394 (-1.7)	7,110 (-0.1)	3,450 (-6.9)	3,241 (-4.5)	6,701 (-5.8)
정보통 신기기	26,475 (-3.2)	12,680 (-2.5)	13,889 (3.1)	26,569 (0.4)	12,885 (1.6)	14,153 (1.9)	27,038 (1.8)
반도체	44,726 (8.6)	23,562 (11.5)	23,463 (-0.6)	47,025 (5.1)	23,026 (-2.3)	23,447 (-0.1)	46,473 (-1.2)
디스 플레이	5,199 (-1.1)	2,580 (-5.5)	2,119 (-14.1)	4,699 (-9.6)	1,803 (-30.1)	1,884 (-11.1)	3,687 (-21.5)
이차 전지	1,551 (73.7)	808 (8.7)	773 (-4.3)	1,581 (1.9)	819 (1.4)	783 (1.3)	1,602 (1.3)
12대 합계	209,986 (7.1) 〈39.2〉	101,242 (-1.4) 〈40.1〉	103,201 (-3.8) 〈41.1〉	204,444 (-2.6) 〈40.6〉	95,378 (-5.8) 〈40.6〉	97,127 (-5.9) 〈41.1〉	192,515 (-5.8) 〈40.9〉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2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1. 자동차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내수, 신차효과 및 정부 내수부양책 영향으로 증가

○ 2020년 상반기 내수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국내외 거시변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차효과와 정부 내수진작책 효과로 증가세 반전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내수가 감소세로 시작되었으며 2월 코로나 19의 국내확산으로 내수 감소 폭 확대
- 2분기 이후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정부의 내수진작책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내수 증가로 반전
- 전년동기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공급차질을 겪었던 수입차는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의 증가 기록

- 2020년 상반기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한 885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코로나 19 여파로 수요절벽에 따른 큰 폭 하락

- 2020년 1분기 부품조달 차질에 따른 공급부족에서 2분기 주요 수출 시장 폐쇄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전환되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기록

-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시작되어 봉쇄되면서 중국의존도가 높은 일부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해 공급부족이 발생되면서 수출 감소

- 코로나 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어 유럽과 미국 대부분의 딜러숍이 휴업에 들어가고 산업활동이 정지되면서 소비수요 급감에 따른 큰 폭의 수출 감소

- 부품의 경우 미국, 유럽지역 대부분의 완성차 공장이 5월까지 생산을 중단하고 있어 부품 수요 급감으로 전년동기대비 28.4% 감소한 80.9억 달러 예상

- 2020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8% 감소한 231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생산, 수출부진과 부품공급 차질에 따른 큰 폭 감소

- 코로나 19가 초기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중국의존도가 높은 부품 공급이 차질을 겪으면서 국내 완성차 공장 가동이 1~2주일 중단되면서 1분기 자동차 생산이 감소

- 이후 코로나 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어 이들 국가에서 조달되는 일부 부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일부 차종 생산이 지연
- 또한 수출 물량이 급감하고 재고 누적 등의 이유로 수출 비중이 높은 차종을 중심으로 생산공장 가동 중지가 반복되면서 상반기 가동률이 50~60% 수준
- 생산의 65%가 수출되는 자동차산업 구조상 코로나 19로 인한 미국, 유럽의 자동차 수요 급감은 자동차 생산에도 부정적
- 상반기 자동차생산은 157만여 대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22.3%의 큰 폭 하락 예상

□ 수입, 신차효과 및 기저효과로 증가

- 코로나 19 여파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완성차는 전년 실적부진에 대한 기저효과와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차종의 신모델 투입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19년 상반기 내내 인증제도 변경으로 공급차질을 겪었던 수입차는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의 증가 기록
- 반면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업체들은 상반기 내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부품도 국내 생산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른 여파로 감소
- 상반기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한 85.7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미국, 유럽은 하반기 코로나 19 여파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단기간 수요 회복은 어려울 전망
 - 미국은 자동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이 금융위기를 상회하고 있어 구매력이 낮아진 상황
 - 미국 신차수요 20%를 차지하는 Fleet 판매 수요가 렌트카 업체 파산 등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며 렌트카 업체 파산에 따른 중고차 물량 증가도 신차 판매에 부정적 영향
- 중국은 2분기 이후 코로나 19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하반기 이연수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으로 자동차 소비가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갈등 심화와 같은 불확실성 상존
- 우리 자동차업체들의 판매비중이 높은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은 선진국 대비 판매정상화가 지연될 전망
 - 의료인프라 부족 등으로 코로나 19 영향이 하반기에도 이어져 신흥시장 자동차 수요 부진은 2020년 내내 지속될 전망
 - 브라질, 러시아는 유가 등 원자재 의존도도 높아 유가하락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이 확산되어 자동차 수요 위축 예상

〈표 2-1〉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미국	36.8	↗↗	↗	실업률 상승,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	4.7	↗↗	↗↗	저유가 지속 경기불안, 코로나 회복속도 부진
중국	2.4	↗↗	☼	코로나 회복 후 수요증가, 신차투입
EU	19.1	↗↗	↗	경기진작을 위한 유럽 각국 정부의 수요진작책 효과 기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기차 판매 확대
합계	100	↗↗	↗	이연소비 확대 기대, 신형시장 코로나 여파 지속으로 회복 지연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또한 현지통화 약세로 우리업체들의 환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완성차 및 부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

○ 고정비가 높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은 코로나 19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주요 전략 변화

- 유럽과 미국내 판매 및 생산비중이 높은 포드, 혼다, FCA, PSA, 르노-닛산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큰 편으로 이들 업체는 유동성 확대, 투자축소, 비용감축 등 단기적 위험 완화를 위한 전략 수행 예상

〈표 2-2〉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글로벌 수요 부진	↗↗
	미국, 유럽 자동차 수요 사이클 하강국면 진입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미국, 유럽 내 사업 집중도가 높은 포드, 혼다, FCA, PSA, 르노-닛산 등은 경쟁력 약화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국내 여건 변화

- 글로벌 자동차시장 침체 지속으로 자동차업체들은 수익성 개선과 전
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시장 대비를 위해 구조조정 시행
 - 구조조정 여파로 외자계 완성차업체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수행하
였고 생산 모델 감축 계획
 - 외자계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모델을 국내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으로
판매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생산 위축 예상
 - 내수 부진을 수출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모기업 글로벌 판매 전략으로
한계가 있어 생산 감소는 지속될 전망
- 2020년 상반기 외자계 완성차업체들은 신모델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
출시장 확보가 어려워 생산 증가에 한계
 - 외자계업체 부진이 지속되면서 협력업체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
며 2020년에도 부진이 지속될 전망

〈표 2-3〉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개별소비세 인하 폭 조정	☹
	상품성 높은 신차 투입	☀
	정부 내수진작책에 따른 대기수요 실현	☹
	실업률 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	☹
국내 생산능력	외자계업체 생산모델 축소	☹
국산 제품의 경쟁력	국내업체 고급브랜드 신차 출시	☀
	주행거리 향상된 전기차 판매 확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4〉 자동차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연구개발, 생산라인 교체			
투자수요 특성	- 설비효율 증대 위한 개체, 유지보수 - 연비규제 강화에 따른 차량연비 개선			
원인	-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설비투자 감소 지속 - 부품산업은 물량감소 및 비용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설비투자 여력 부족 - 외자계 완성차업체도 신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신차생산을 위한 설비교체 관련 투자 예상 - 현대기아차는 전기동력차,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투자 증가 예상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자동차산업은 하반기 설비투자는 산업 전반의 부진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내수 및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생산물량 감소 및 비용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부품산업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될 전망
- 전기동력차, 자율주행차 등 향후 미래기술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위주로 투자가 진행될 전망

□ 업종별 특징적인 여건변화

- EU는 유럽 내 판매되는 승용차 대당 CO₂ 배출량을 기존 130g/km에서 95g/km로 감소시킨 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
- 현재 도요타, 르노를 제외하고 규제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완성차업체들은 부과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 완성차업체들은 규제 충족을 위해 배터리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공급을 늘리거나 내연기관 차량의 공급을 줄이는 등 수요와 공급간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비교적 전기동력차 대응이 늦은 독일 업체들도 2020년을 기점으로 배터리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며 테슬라와 같은 기존 전기차업체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2016년 이후 부진이 이어지면서 생산능력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
- 코로나 19로 상반기 자동차업체들의 영업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실적 만회를 위해 하반기 가동률을 높여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업체별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

〈표 2-5〉 자동차산업의 2020년 하반기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상품성 높은 신차출시 - 공격적인 내수판매 전략 수행	-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대기수요 감소	대기수요 실현과 경기부진 지속으로 감소
수출	- 수출단가 상승 - 코로나 19로 이연된 수요 실현	- 코로나 19로 글로벌 수요 총량 감소 - 외자계업체 수출물량 감소	글로벌 수요 침체와 외자계업체 수출물량 배정 조정으로 감소
생산	- 신규 차종 생산	- 외자계업체 판매저조 모델 생산 중단 - 수출 부진 지속 - 재고물량 증가	외자계업체 생산물량 조정과 수출 부진에 따른 감소
수입	- 초고가 브랜드차 수요 증가로 수입단가 상승	- 코로나 19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한 공급물량 부족 - 국내 고급브랜드 풀라인업 구축 - 일본제품 불매 운동 여파	수입단가 상승에도 공급물량 부족과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감소

-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한 상황으로 우리 업체들의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 부품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완성차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진출한 외자계업체들의 구조조정 여파로 생산 모델 축소가 이어질 전망

2) 2020년 전망

□ 내수는 경기부진, 대기수요 소진 등의 이유로 감소

○ (증가요인) 상품성 높은 신차출시와 업체들의 공격적인 내수판매 전략 수행

- 수출부진 지속으로 완성차업체들은 내수 위주의 판매전략을 수행하면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긍정적 요인
- 상반기 대부분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신차를 출시하였으며 안전관련 첨단기술과 가격 등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인

○ (감소요인)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일부 차종 공급부족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

- 코로나 19의 산업영향이 상반기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고용불안정 등이 커지면서 고가내구재인 자동차 수요 감소로 작용
- 상반기 큰 폭의 개소세 인하로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가 실현되면서 하반기 대기수요 감소는 부정적 요인
- 상품성이 좋은 일부 신차는 주문이 밀린 상황에서 생산유연성 부족으로 이들 차종 공급 차질은 내수에 부정적

○ 2020년 하반기 내수는 경기부진, 실업률 증가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한 84만여 대를 기록할 전망

- 따라서 2020년 자동차 내수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172만 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수출, 이연수요 기대되나 전반적인 수요부진 속에 공급경쟁 심화로 감소

○ (증가요인) SUV를 중심으로 신규 모델을 미국 등 수출시장에 투입하고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할 전망

- 수출단가 상승 기조는 가격이 높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대형SUV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 미국, 유럽 등 상반기 코로나 19로 이연된 자동차 수요가 하반기 일부 실현될 것으로 기대

○ (감소요인) 글로벌 자동차 수요 부진, 외자계업체 수출물량 조정 등 부정적 요인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이 지속되나 하락 폭은 감소

- 코로나 19로 글로벌 자동차시장 수요가 기관별로 15~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극심한 자동차 수요 감소 예상

-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는 3분기 초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수출에 부정적

- EU의 CO₂ 배출규제 강화도 유럽지역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부 업체는 유럽지역의 수출을 축소할 가능성

〈표 2-6〉 자동차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유럽	전체
상반기 추정	☂☂	☂	☂☂	☂	☂☂	☂☂
하반기 전망	☂	☂	☂	☂	☂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부품은 우리 완성차업체들의 현지생산은 상반기에 비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나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감소에 영향으로 전년대비 19.2% 하락한 182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해외공장 가동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반기 판매망 폐쇄로 재고가 크게 증가하여 부품 수요 증가에 제한적
 - 브라질, 인도 등의 신흥국 현지생산은 3분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전망으로 이들 지역 하반기 부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2020년 자동차 수출은 산업수요 하강국면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자동차 공급 및 수요가 급락하면서 전년대비 18.2% 하락한 536억 달러(부품 포함)를 기록 2015년 이후 지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날 전망
 - 완성차 수출은 전년대비 20.7% 하락한 190만대 수준으로 248만여 대로 2013년 이후 지속된 하락에서 증가로 반전할 전망
- 생산, 수출급감과 외자기업체 생산물량 조절로 감소
- (증가요인) 상품성 높고 CUV, 고급브랜드 SUV 그동안 국내 완성차업

체들이 생산하지 않았던 세그먼트의 신차 출시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판매 증가로 이어져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

○ (감소요인) 글로벌 판매부진에 따른 수출감소 및 외자계업체의 글로벌 판매전략 변화에 따른 생산물량 조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 예상

- 르노삼성의 닛산 위탁생산 및 판매부진 모델 생산 중단 등으로 생산물량 감소와 한국GM 일부 차종 수출물량 조정으로 생산 감소 예상

- 상반기 극심한 수출부진에도 최소한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생산하여 누적된 재고 물량은 하반기 생산에 부담으로 작용

○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2020년 자동차 생산은 전년대비 13.0% 감소한 343만여 대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며 2004년 이후 최소 예상

-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55.4%로 수출이 자동차산업 생산에 기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 비중은 크게 하락

□ 수입, 일본업체 철수, 국내 완성차 경쟁력 강화 등으로 부진

○ (증가요인) 초고가 브랜드 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과 디젤게이트로 부진했던 폭스바겐의 신차 투입 등은 증가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 19에도 고급브랜드 차량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고급차종이 많은 수입차 판매에는 긍정적 영향

- 국내에서 판매 및 AS 네트워크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외자계업체들은 해외생산 차종을 늘리고 있어 수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부품의 경우 최근 수입 완성차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증가와 안전 및 편의 관련 첨단기능 장착 증가는 부품 수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

- (감소요인)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입국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상반기 생산중단으로 인한 수입물량 감소는 하반기 수입에 부정적 영향 예상
 - 국내 완성차업체 고급브랜드의 풀라인업 체제 구축으로 수입차 수요 일부를 흡수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
 -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일본업체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 판매부진 누적으로 닛산의 한국 철수도 예정되어 있어 부정적 영향
- 2020년 수입은 하반기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전년대비 5.9% 감소한 162억여 달러(자동차부품 포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완성차는 전년대비 10.4% 감소한 21.9만여 대 수준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이 12.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표 2-7〉 자동차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단위: 천 대,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4,029 (-2.1)	2,028 (1.2)	1,922 (-5.0)	3,951 (-1.9)	1,577 (-22.3)	1,860 (-3.2)	3,437 (-13.0)
수입	272 (8.2)	109 (-25.8)	136 (8.4)	245 (-10.1)	119 (9.7)	100 (-26.5)	219 (-10.4)
내수	1,804 (0.6)	859 (-4.3)	904 (-0.4)	1,762 (-2.3)	885 (3.1)	840 (-7.0)	1,725 (-2.1)
수출	2,450 (-3.2)	1,241 (2.1)	1,160 (-6.0)	2,401 (-2.0)	783 (-36.9)	1,120 (-3.5)	1,903 (-20.7)

주: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2-8〉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64,005 (-1.3)	32,982 (3.5)	32,595 (1.4)	65,577 (2.5)	23,143 (-29.8)	30,492 (-6.5)	53,635 (-18.2)
수입	17,516 (6.3)	8,025 (-12.4)	9,300 (11.3)	17,326 (-1.1)	8,578 (6.9)	7,717 (-17.0)	16,295 (-5.9)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기준).

2. 조선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수주는 코로나 19로 해운산업이 급격한 불황에 놓이며 절벽 상황

○ 2020년 상반기 해운시황은 유조선만 유가하락에 따른 저장수요로 양호했고 다른 선종은 코로나 19로 급격히 악화

- 벌크선 운임지수는 2019년 연평균 1,344에서 2020.5.22일 평균 596으로 하락했으며,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운임지수인 BCI는 한때 음의 값을 기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 컨테이너선 운임은 유류할증료를 고려한다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고, 용선지수는 연초 778에서 5.22일 평균 586까지 하락

○ IMO2020(SOx 규제 강화) 시행으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던 해운사의 발주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절벽 상태

- 4월까지 세계 수주는 전년동기비 58% 감소한 380만CGT로 수주절벽이었던 2016.4월 390만CGT와 유사
- 동기간 우리나라 수주는 전년동기비 80% 감소한 70만CGT로 자국발주에 힘입은 중국(230만CGT, -24% YoY)에 크게 뒤처짐.
-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원유 수요 하락에도 산유국의 감산 불발로 유가가 폭락하면서,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차이가 축소되어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도 급감
 - 연초 싱가포르항 기준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차이는 348.75달러/톤을 기록했으나, 유가하락으로 6.5일 현재 58.5까지 하락하여 친환경선박이나 연비가 좋은 선박에 대한 선호 감소
- 카타르발 대규모 LNG운반선 생산슬롯 예약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과 불확실성도 존재
 - 카타르 프로젝트는 2024~2025년에 많은 LNG가 출하될 계획으로, 선박의 건조기간을 고려하면 본 계약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
- 내수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본격 인도로 전년동기비 37.5% 성장한 88만CGT로 추정
- 2019년 상반기 내수 성장은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비롯하여 폴라리스쉬핑의 초대형 광석선, 장금상선, SM상선 등의 선박이 다수 인도됐기 때문
- 수출은 코로나 19에 따른 생산지연으로 예상보다 낮았지만, 점차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동기비 5.7% 감소한 104억 달러로 추정
- 2월 해양플랜트가 인도되면서 크게 증가했지만,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도 지연, 선주사의 인도 연기 요청이 발생하면서 수출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5월부터 지연된 수출이 재개되면서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생산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3~4월에 일부 지연이 발생했으나 5월 이후 점차 안정화되어, 전년동기비 14.5% 감소한 438만CGT 추정

○ 중국 블록공장의 생산 차질,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이동 제한에 따른 서비스엔지니어, 인수선원 이동 문제로 발생한 생산차질은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

□ 수입은 코로나 19로 선박용 부품이나 엔진의 수입은 감소했지만, 유조선과 벌크선의 반입으로 증가

○ 코로나 19로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생산되는 선박의 척수가 감소하면서 선박용 부품과 엔진의 수입은 감소했지만, 유조선 및 벌크선 등 화물선 수입이 크게 증가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 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코로나 여파로 단기간 해상물동량의 정상화는 어렵겠지만, 4/4분기부터는 해운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서서히 신조 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하반기에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발생하고 유가도 낮게 유지된다면 수주 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 LNG연료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발주는 저선가에서 선제적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제외하면 낮은 유가로 인해 제한적일 전망
 - 연기됐던 LNG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일부 LNG운반선의 발주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낮은 국제유가 및 에너지 패권 경쟁 등으로 추가 연기 가능성
- 금융과 수입 물동량을 기반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수주가 확대되나, 새로운 수주절벽으로 한중일 조선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
- 중국은 리스사를 통한 자국 발주뿐만 아니라 자국 화물을 기반으로 LN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
 - 일본은 국내 조선사의 재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편으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중 합작사도 운영 중
 - 한중일 3국 중에는 일본의 수주잔량이 가장 부족하고, 우리나라는 일부 중형조선사의 수주잔량이 부족
 - 중국도 내수 물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중일 모두 코로나 19로 인한 새로운 수주절벽으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
- 해운불황으로 인한 해운사의 신조선 인도 연기 가능성
- 코로나 19로 해운산업이 급격히 위기에 놓이면서 선박금융조달이나 용선시황 악화에 따라 발주한 선박의 인도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 조선사는 대부분 우량 해운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인도연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하지만, 클락슨 리서치에서는 2020년 세계 건조량의 10~20%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취소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 19 팬데믹이 장기화된다면 2009년과 같이 상당한 물량이 연기될 수도 있음.
- 새로운 수주절벽과 조선사의 수주잔량 부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선가는 소폭 하락할 전망
- 철강산업 불황에도 철광석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후판가격은 보합 또는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선가는 발주량 감소로 조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락할 듯

〈표 2-9〉 조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해상물동량 감소	☹☹
	유가하락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감소	☹☹
	주요 육해상 에너지 프로젝트의 취소 및 연기	☹☹
	해운사 위기로 인한 인도연기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중국의 리스사 자국발주	☺
	가격, 금융 및 화물 기반의 중국 수주 확대	☹☹
	일본 조선사의 수주잔량 부족	☹☹
	국내 일부 중형조선사 수주잔량 부족	☹☹
제품 단가	수주 시황 악화와 조선사 경쟁 심화	☹☹
	후판가격 인상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국내 여건 변화

○ 조선산업은 2021년 대량의 LNG운반선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생산설비 투자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규모는 작지만, 미래 조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친환경 선박 및 스마트야드 관련 기술개발도 지속

〈표 2-10〉 조선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기존설비 확장, 연구개발, 합리화			
투자수요 특성	- LNG운반선 건조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유지보수			
원인	- LNG운반선의 생산이 2021년 52척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생산설비의 투자가 예상 - 스마트선박, 친환경선박, 스마트야드에 대한 기술개발도 지속			

-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표 2-11〉 조선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수주	- LNG운반선 대량 슬롯 계약 등 우리나라 조선사의 기술력	- 가격, 금융, 해상물동량 요인으로 해운사의 중국발주 - 코로나 19로 인한 해운사의 발주연기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수주절벽
내수	- 해운재건을 위한 국적선사의 선박확충 노력 - 국적선사의 친환경경기차 교체 발주 및 친환경기자재 설치 수요 증가	- 가격 요인으로 국내 선사의 중국발주 - 코로나 19로 인한 인도지연	해운산업 재건으로 내수 증가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수출	- 고가의 LN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출 증가	- 회복기 수주물량의 낮은 선가 - 일부 장기 미인도 또는 취소된 Drillship - 코로나 19로 인한 해운사 인도 연기	수주 회복기 고가 선박이 수출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연기 가능성
생산	- 수주회복기 물량의 인도	- 고기술 선박생산증가로 건조척수는 감소 - LNG운반선 생산급증으로 관련 인력/설비 부족 - 코로나 19로 인한 해운사 인도 연기	LNG운반선 위주 생산으로 물량감소 및 코로나 19로 인한 인도 연기
수입	- 친환경 고기술 선박 수요 증가	- 기자재 국산화율이 낮은 LNG운반선 건조 증가 - 중고선 또는 중국 건조 선박 수입	중고선 도입 및 중국 건조 선박의 수입증가

2) 2020년 전망

- 하반기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수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LNG운반선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조선사의 물량만 기대되어 2019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
- 해운사의 어려움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낮은 유가로 인해 노후선박의 퇴출이나 해양플랜트 및 LNG관련 투자는 지연될 가능성
 - 하반기 이후 해상물동량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선박이 계선되어 있어 선복량은 충분하고, 선박금융 시장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해운사의 신규 발주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
 - 낮은 유가로 폐선이나 스크러버 리트로핏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여 선복량 감소는 제한적이고, 해양플랜트 및 LNG관련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관련 발주도 적을 것으로 예상

- 유조선도 저장수요로 이용되던 선박이 하반기 이후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신규 발주는 제한적

○ 한편 물량 부족에 따른 조선사의 적극적인 영업과 낮은 선가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려는 해운사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4/4분기부터는 서서히 수주가 회복될 전망

- 2019년 일부 계약만 이루어졌던 Arctic LNG 프로젝트와 슬롯 계약한 카타르 일부 물량, 모잠비크 등 주요 LNG프로젝트의 연내 발주가 기대

-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이 재확산되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면 수주회복 시기는 2021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

□ 내수는 하반기에도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폴라리스 쉬핑의 초대형 광석선이 지속 인도되면서 증가

○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021년까지, 폴라리스 쉬핑의 초대형 광석선은 2022년까지 인도될 예정이어서 2020년 하반기에도 내수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

- HMM의 23,000TEU급 컨테이너선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하반기에도 6척, 폴라리스 쉬핑의 초대형 광석선은 현대중공업에서 3척 인도 예정

- 그 외에도 다수의 고려해운, 장금상선, 남성해운 등의 피더 컨테이너선, H-Line 벌크선 등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한 인도연기, 낮은 유가로 인한 Drillship 매각 어려움 등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한 196억 달러 수준 예상
- 당초 탱커가 2019년 대비 25척이 감소하지만, 고가의 LNG운반선이 8척, 컨테이너선이 10척 증가하고, 유가가 높게 유지되어 계약 취소된 Drillship까지 매각된다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낮은 유가로 Drillship 매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선박의 수출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소폭의 감소가 예상
- 다만, 하반기에는 인도 연기가 발생하지 않고, 상반기 지연된 물량을 만회한다면 전년 수준의 수출은 가능
- 반면 코로나 19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지연이나 취소도 예상

- 생산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건조물량 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인도 연기로 전년대비 8.1% 감소한 877만CGT에 그칠 전망
- 건조량은 2019년 236척까지 회복했지만, 2020년에는 예정된 생산물량이 223척으로 감소
- 탱커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정상적으로 건조된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약 2~3% 수준의 감소가 예상됐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추가적인 인도 연기가 예상
- 수출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가 더 심각해진다면 10% 이상의 건조물량이 2021년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음.

- 수입은 국내 해운사의 해외 발주 물량 및 중고선 도입과 LNG운반선용 기자재 수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
- 국내 해운사가 중국에 발주하여 인도받은 선박은 2019년에 약 10여 척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 인도됐거나 예정인 벌크선만 26척으로 크게 증가
 - 선박은 편의치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수된 선박 대부분이 수입액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으나, 국적취득이 예상되는 중소 벌크선이 다수 존재
- 다만, 중국 조선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연초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등 수개월간 심각한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조선사와는 다르게 상당한 인도지연이 예상되어 수입도 지연될 가능성
- 한편 우리나라 조선사의 건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외국 기자재 탑재율이 높은 LNG운반선의 건조가 많아지면서 기자재 수입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표 2-12〉 조선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단위: 만CGT,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772 (-27.0)	512 (14.8)	442 (35.2)	954 (23.6)	438 (-14.5)	439 (-0.7)	877 (-8.1)
수입	117 (-39.1)	67 (55.8)	60 (-18.9)	127 (8.5)	132 (97.0)	74 (23.3)	206 (62.2)
내수	217 (-26.7)	131 (13.9)	126 (23.5)	257 (18.4)	220 (67.9)	174 (38.1)	394 (53.3)
수출	672 (-29.5)	448 (19.8)	376 (25.8)	824 (22.6)	350 (-21.9)	339 (-9.8)	689 (-16.4)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이며, 국내 해운사의 국내 건조물량을 포함.

〈표 2-13〉 조선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입	2,636 (-6.9)	1229 (-3.2)	1,151 (-15.9)	2,380 (-9.7)	1,631 (32.7)	1,174 (2.0)	2,805 (17.9)
수출	21,275 (-49.6)	11,042 (2.1)	9,117 (-12.9)	20,159 (-5.2)	10,411 (-5.7)	9,212 (1.0)	19,623 (-2.7)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MTI746 기준으로 화물선, 선박부분품, 군함,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

3. 일반기계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내수는 전년도 발주 물량 대응과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1분기까지 양호하였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2분기부터 하락 본격화

○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와 전기업 등 공공부문 증가에 따라 국내기계수주 증가

- 건설기계는 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생활 SOC 부문 예산 증가 및 관련 착공 본격화로 소형장비 중심의 수요

- 공작기계의 경우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부진과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영업의 어려움으로 1분기 내수 수주는 전년비 32.4% 감소

• 기계류 설비투자(전년동월비, %): (2020.1) 5.4 → (2020.2) 11.9 → (2020.3) 12.1 → (2020.4) -0.9

- 국내기계수주(전년동월비, %): (2020.1) 22.8 → (2020.2) 17.9 → (2020.3) 9.7 → (2020.4) -0.2

- 수출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중국의 수요둔화와 주요국의 출입국 금지 및 현지 내 지역 이동 중지 등으로 감소
- 1분기 중국 내 산업기계 수요 급감과 코로나 19 본격화에 따른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입수요 감소로 수출 감소
 - 건설기계는 2분기부터 중국으로의 굴삭기 판매량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공장가동 중단과 수요 하락으로 중국, 북미, 인도 지역에서의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
 - 중국(2월) 및 인도(3월) 공장 섯다운으로 인한 주요 건설기계업체의 매출액은 20% 감소
 -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따라 3~4월은 수요 증가 추세이나 4월까지 전년 동기비 -22.5%, 인도 및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각 -43.5%, -22.5%의 높은 감소율 시현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화학기계 수요 감소와 신흥국의 투자 감소
 - 화학기계 수출(2020.4 누적 기준, 전년동기비): 인도 -54.4%, 태국 -92.3%, 말레이시아 -74.1%, 중국 -22.5%
- 자동차, 가전 등 전방산업 공장의 휴무로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 금형의 수요 급감

- 생산은 공공부문 중심의 국내기계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 및 수주 감소로 전품목에 걸쳐 감소세

- 해외매출 의존도가 높거나 기술영업 미팅 및 국내 파견 기술자를 활용한 사후 관리서비스가 중요한 주문맞춤형 기계류는 인력이동 제한 지속으로 해외영업에 타격
 - 중고위 난이도의 기계류는 수요맞춤형 제작이 많고 높은 기술수준의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
- 자동차, 조선, 항공 등 국내 수요산업의 수출감소가 금형, 공작기계, 부품 등의 내수 감소로 이어져 생산 감소
- 수입은 생산감소에 따라 공작기계, 건설기계, 금형을 중심으로 감소
-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차질 및 글로벌 수요 제조업 경기 악화에 따른 생산감소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계류의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
 - 2020.4 기준 건설기계 -20.8%, 공작기계 -20.6%, 금형 -19.1% 등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2019년 미중 무역갈등 심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투자가 감소하였고, 이에 더해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경기가 급격히 위축
 - 상반기 주요 제조업의 락다운 및 섣다운 조치와 기업들의 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 및 제품수요가 하락해 일반기계산업의 마이너스 성장

이 예상

- 중국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2조 달러 규모의 대형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계수요 기대
 - 중국 정부는 교통, 운수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권을 1조 위안 규모로 발행, 이는 중대형 건설기계 및 관련 부품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감소와 건설활동 생산 중단에 따른 건설기계 및 공작기계 수요 감소는 유지되고 있으나 하반기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시 개선 가능성
- 베트남 및 멕시코는 현지 제조공장 재개에 따라 하반기 기계 수요 증가 가능
- 인도 역시 코로나 19 진정세에 따라 기계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미국의 공장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따른 기계수요 증가 전망
- 그러나 당분간 국내 일반기계 주요 수입국의 수요산업의 생산 중단 및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기계류 수요는 감소세 지속 전망
 - 중국의 코로나 19로 인한 여파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으면서 산업활동 재개 그러나 미중관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자국 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해외 기계류 수요 부진은 리스크 요인
 - 미국도 경제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6월 1일 기준, 49개 주가 경제(부분)정상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요산업 및 인프라 건설에 따른 기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2-14〉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30	☂	☁	- 코로나 19 진정세로 인한 기업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도산기업 발생 등으로 기계수요 감소 - 자국산업 보호경향 증가로 인한 기계품목 수요 하락 가능 - 전자산업 설비투자에 따라 중고위기술군 제조용 기계 제품 증가 전망
미국	20	☁	☛	- 건설활동 위축 및 공작기계 수요 감소 -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시 건설, 금형, 공작기계를 중심으 로 신규 수요 발생 가능
베트남	10	☁	☁	- 현지공장 가동재개에 따른 수출 증가 가능 - 투자 및 사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공공투자 확대(1~2월 18% 증가) 등
일본	6	☂	☂	-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생산 감소로 3월 기준 자동차공업 -5.1%, 생산용 기계 -10.2%, 화학공업 -11.0% 등
인도	5	☂☂	☁	- 하반기 락다운 및 섯다운 해제로 수출 재개 - 코로나 19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내 미국 공장들의 인도이동으로 인한 설비품목 수요 증가 :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신설 제조법인에 한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15% 법인세 적용 : 2020년도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750억 달러 규 모로 전년동기비 200% 수준
멕시코	3	☂	☁	- 수요산업 조업중단 재개 시 수출 증가 가능 - 멕시코 정유프로젝트 등 EPC 수요 가능성
계	약 70	☂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상반기 큰 폭으로 하락했던 유가는 하반기 회복 예정이나, 교역환경
불확실성과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상승폭이 제한되어 자원
보유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지연 가능성

〈표 2-15〉 일반기계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글로벌 경제성장률 약화에 따라 수요산업의 생산 및 설비투자 축소 예상	●●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 예정	☀
	유가하락으로 자원보유국의 불안심리가 증폭되면서 프로젝트 발주 감소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중국 및 세계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국내 여건 변화

- 코로나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수요산업의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

〈표 2-16〉 일반기계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코로나 19로 인해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수요산업의 수출 및 내수 감소로 인한 기계류 수요 하락	●●
	반도체, 정유, 이차전지 산업의 적극적 설비투자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 주도의 건설투자 증가	∞
국내 생산능력	주 52시간 제도 시행	●●
국산 제품의 경쟁력	코로나 19 및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기 지연 가능성	●●
	일본 수출규제 재점화로 핵심부품의 수입 제한 시 완제품 경쟁력 하락	●●
	코로나 19로 지연된 중국발 부품의 대체 수요 증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17〉 일반기계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기존설비 확장, 신규설비 도입			
투자수요 특성	- 설비효율 증대 위한 개체, 유지보수			
원인	- 반도체, IT 등 전자산업에서의 수요 증가로 기존 설비 확장 및 신규설비 도입 증가 -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증가세는 소폭에 그칠 전망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일반기계산업은 상반기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요 증가로 기존설비 확장 및 신규설비 도입으로 인한 투자가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들의 심리위축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비 유지 또는 소폭 상승할 전망

- 사업 특성상 단기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건설기계, 농기계 분야 기업들은 단기적 급변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 가능성

□ 업종별 특징적인 여건변화

○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인력 이동 제한, 공장 가동 중단은 일반기계 수요산업의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요소의 급격한 둔화를 야기

- 특히 우리나라 일반기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1/4분기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인프라 투자 확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여 건설기계 등은 수출 반등세

〈표 2-18〉 일반기계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요산업의 생산 감소 -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 코로나 19로 인한 주력 제조업의 위축으로 내수 감소
수출	-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기계수요 증가 -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설비투자 증가 - 기수주한 국내 기업의 EPC 프로젝트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	- 코로나 19, 미중무역분쟁 심화 등 교역환경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리스크 - 일반기계 주요 수입국의 경제침체 및 공장가동 중단 - 유가하락으로 인한 자원보유국의 발주 위축으로 국내외 기업 간 수주경쟁 심화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생산	-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 가능	- 제조업 전반의 내수 및 수출 침체	- 내수 및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감소
수입	- 제조설비 스마트화 정책에 따른 첨단 제조장비 핵심부품 수입 수요	- 주요 제조업의 생산감소에 따른 부품수입 수요 감소	- 전반적 내수 경기 위축으로 수입 감소세

○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국내 수요산업의 안정화와 국내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공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에 따라 일반기계 여건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

2) 2020년 전망

□ 내수는 수요산업의 수주감소 영향으로 전품목에 걸쳐 감소세 전망되나 공공부문 중심의 국내기계수주 및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로 감소폭 상쇄 가능

○ (증가요인) 국가 주도의 인프라 및 건설 사업에 따른 건설기계, 냉각기기, 공기정화장치 등의 부품 수요 증가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및 도시 건축규제 완화, 도시재생 뉴딜,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사업,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정책 등에 활용되는 기계류 수요 증가
- 생산차질 완충을 위한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 등) 중심 제조 로봇 500대 보급 및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물류·서빙로봇 등 420대 보급 추진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
- 2021년 경제성장 기대에 선행하여 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기계류 구매로 4/4분기 내수 회복세 기대
 -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1년 경제성장률은 3.6%(전년비)로 소비심리 회복과 정부 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확장 기대
-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제조 기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업용 수요뿐 아니라 가정 내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수요 양호
 - 삼성전자는 약 20조 규모의 생산라인 구축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비메모리의 생산의 경우 메모리 대비 장비소요량이 2~3배 많음.
- (감소요인)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자동차, 전자산업 등 일반 기계 수요산업의 생산부진과 코로나 19, 미중무역분쟁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제조업 전반의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 수출은 코로나 19뿐 아니라 무역갈등 심화, 보호무역조치 증가,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제조업 생산 및 투자 위축으로 감소
- (증가요인)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건설, 5G 통신망 등 인프라 건설용 기계 및 부품수요 증가와 디스플레이 설비투자에

따른 수요 기대

- 중국 중앙정부의 '신형인프라' 투자 방침(2020년 약 3조 위안 규모)에 따라 약 25개 지방정부가 '신형인프라' 건설계획을 명시하고, 총 42조 위안 규모의 관련 프로젝트 추진 중
 -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제조장비 수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주는 2분기부터 회복 추세
 - 중국 BOE 및 CSOT 공장증설 및 Visionox, HKC, Tianma 등으로부터 클린물류, 라미네이팅, 후공정 장비 등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부품 신규수주 가능 전망
 - 건설기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철도, 고속도로, 교각 등 인프라 투자에 따라 중대형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의 자국산 제품 선호정책으로 한국산 건설기계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중국 내 한국산 굴삭기 시장점유율: (2018) 12.4% → (2019) 10.8% → (2020.1Q): 8.8%
-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LNG 프로젝트의 연이은 발주에 따라 국내 기업의 EPC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수요 증가
- 국내 기업의 LNG 관련 EPC 사업 수주에 따른 플랜트 건설 부품 수요 증가
 - 모잠비크 LNG Area(5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LNG Tangguh 배관 시공(0.5억 달러), 나이지리아 LNG Train #7(16.8억 달러) 프로젝트 기수주, 카타르 North Field Expansion PKG 1(10억 달러) 예정 등 다수 프로젝트 등 신규수주 증가

-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 및 세계 원유수요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자원보유국의 해양플랜트 해외 발주를 감소시키고,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국내기업의 해외 이차전지 공장 증설 및 수요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 LG화학의 폴란드 공장 증설 및 설비투자 확대 및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상승세(1분기 글로벌 점유율 27%), 삼성SDI의 헝가리 공장 증설 등
- (감소요인) 일반기계 주요 수입국의 경제 침체 및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계류 수요 감소와 상반기 해외영업활동 제약으로 국내 기업의 기계 수주 급감
 - 미국은 저유가 및 정치적 불확실성, 원유 감산 협의 등에 따른 변동성이 상존하여 설비투자 침체 예상
 - 일본의 경우 대내외적 투자여건 악화로 2019년 4/4분기부터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감안하여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4/4분기 설비투자: 범용기계 -27.7%, 생산용 기계 -27.7%, 정보통신용 기계 -45.8% 등 기계부문 설비투자 감소
-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가수요 효과가 전년도 소진되면서 건설기계 수요 감소
 - 2019년부터 시행된 유럽의 디젤엔진 미세물질 배출 제한 기준 스테이지5(Stage5) 규제에 따른 예상수요는 소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내 주요 건설기계 업체는 해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대응

〈표 2-19〉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전체
상반기 추정	-9.0	1.0	3.0	-8.0	-20.0	-10
하반기 전망	2.0	-1.5	3.0	-10.0	3.0	1.5

- 현대건설기계는 미국 커민스(Cummins)로부터 엔진을 공급받아 25개 제품에 적용, 두산인프라코어는 스웨덴의 스카니아(Scania)와 협력
- 해외 자동차업체 및 해외 진출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베어링 등 기계 부품 수요도 동반 하락
 - 공작기계, 금형, 베어링, 공구 등의 주요 수요처인 유럽의 자동차 소비는 3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55.1%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19의 주요 피해국인 이탈리아 85.4%, 프랑스 72.2%, 스페인 69.3% 등 급격한 소비 위축
 - 국내 완성차의 해외 공장은 가동을 재개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판매의 급격한 감소
- 현대차의 해외 공장 판매는 4월 기준 미국 -94.7%, 인도 -97.7%, 체코 -74.9%, 러시아 -89.3% 기록
- 생산은 제조업 내수 및 수출 하락으로 2.4% 감소 예상
- (증가요인)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산 증가 및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라 일반기계 생산 확대를 견인해 온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산업설비 생산 증가
 - 해외의 반도체 수요도 증가추세로 중국의 5G 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 증설, 필리핀 공장 반도체 패키징 물량 증가 등의 수요

- (감소요인) 대면영업을 통한 수출이 많은 금형, 공작기계의 경우 상반기 동안 인력, 기술교류 및 마케팅 활동 제약으로 급격한 생산감소 예상
 - 에너지기기, 냉동공조 등 제품군은 주택거래시장 침체로 교체수요가 줄어들어 생산 감소

□ 수입은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증가요인) 수입수요 확대를 주도해온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면서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비 0.4% 증가 전망
 - 노동정책 변화 대응 및 생산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의 자동화 설비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수입도 증가할 전망
- (감소요인) 생산 감소에 따른 기계 제조용 부품 수입 감소와 제조업 전반의 부진이 심화될수록 제조장비 수입 감소

〈표 2-20〉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단위: 10억 원,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12월	상반기	하반기	12월
생산	123,319 (2.1)	60,732 (-1.6)	60,263 (-2.2)	120,995 (-1.9)	58,890 (-3.0)	60,250 (0.0)	119,140 (-1.5)
수입	32,776 (-0.8)	16,553 (-5.0)	16,761 (1.9)	33,314 (3.5)	16,289 (6.8)	17,278 (0.4)	33,567 (-3.2)
내수	97,175 (-4.9)	49,332 (-0.9)	47,555 (-0.8)	96,887 (-0.8)	45,921 (-8.9)	45,641 (-4.0)	91,562 (-6.5)
수출	58,913 (10.2)	30,254 (0.5)	30,623 (-4.1)	60,877 (-1.9)	29,258 (-8.4)	31,887 (1.4)	61,144 (-3.5)

주: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2-21〉 일반기계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입	29,796 (-0.8)	14,437 (-5.0)	14,324 (1.9)	28,761 (3.5)	13,462 (6.8)	14,386 (0.4)	27,848 (-3.2)
수출	53,557 (10.2)	26,386 (0.5)	26,171 (-4.1)	52,557 (-1.9)	24,180 (-8.4)	26,550 (1.4)	50,730 (-3.5)

주: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 환율 영향 및 국내 재고 증가, 설비투자 및 기계류 내수 둔화에 따라 수입 감소
- 주로 수입하는 신성장동력 관련 장비와 첨단 기계류 부품 등은 기업 심리 위축으로 도입유보 및 지연되어 생산 및 수출 대비 수입 감소율이 심할 것으로 전망

4. 철강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내수는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산업의 철강 수요 감소로 큰 폭 감소
- 2020년 상반기 철강재 내수는 코로나 19의 영향이 본격화된 4월 이후로 국내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반기내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년비 9.6% 감소

- 유가하락 및 경기부진에 따른 자동차, 조선, 건설수요 감소로 냉연, 후판, 철근, 강관 등의 철강재 수요가 부진
- 품목별 철강재 내수 증감률(1~4월, 전년 동기비)
 - 봉형강류: 형강 -10.6%, 봉강 -8.9%, 철근 -18.5%
 - 판재류: 열연강판 1.8%, 중후판 -8.0%, 아연도강판 -48.5%, 컬러강판 -24.8%
 - 강관류: 강관 -59.4%

□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 심화로 큰 폭 감소

- 2020년 상반기 철강재 수출은 전년비 9.1%(물량), 18.9%(금액) 감소된 것으로 추정
 - 4월 이전에는 글로벌 철강수요 부진에 따른 철강가격 하락으로 금액 기준 수출액이 감소
 - 수출증감률(1~3월, 전년동기비), 금액 -8.6%, 물량 -0.9%
 - 4월부터는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 여파가 수출에 반영되며 수출 물량도 큰폭 감소
 - 수출증감률(4월, 전년동기비), 금액 -24.1%, 물량 -17.8%
 - 수출증감률(5월, 전년동기비), 금액 -34.8%, 물량 -14.8%
- 중국측 공급확대로 인한 가격하락이 수출 감소를 가속화
 - 생산활동을 일찍 재개한 중국의 조강생산 점유율이 확대되고 중국내 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발 공급확대의 영향으로 글로벌 철강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물량감소에 더하여 금액기

준 수출이 급감

- 철강재 수출단가 (\$/톤): (2019.1) 919 → (2019.5) 917 → (2020.1) 853 → (2020.4) 836 → (2020.5) 774
- 코로나 19의 여파로 제조업 생산 차질이 발생한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
 - 코로나 19의 진원지인 중국이 2월 말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하며 대중국 수출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 일본, EU, 인도, 미국 등 주요 수출지역의 경제 침체와 수요산업의 생산시설 셧다운 여파로 대다수 주요국 수출이 큰 폭 감소
 - 코로나 19의 영향이 큰 미국의 경우, 지속된 수입규제에 따라 최근 대미국 수출이 감소된 이유로(기저효과) 수출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국가별 수출증감률(1~4월, 전년동기비): (물량기준) 중국 -5.0%, 일본 -22.1%, 인도 -20.6%, 멕시코 -23%, 이탈리아 -13.8%, 미국 -4.5%

□ 생산은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감소

- 2020년 상반기 생산은 약 3,500만톤으로 내수판매와 수출의 동반부진으로 인해 전년비 6.3%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조강생산을 위한 철광석, 원료탄, 철스크랩, 합금철과 같은 원부자재 공급에 있어서는 수입선 다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며 장기계약으로 조달이 이뤄지고 있어서 1분기 코로나 19로 인한 생산차질은 발생치 않음.

- 다만, 국내외 수요부진이 2분기에 심화되며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 베스틸 등 주요 기업들이 감산, 개보수, 가동 중단 등 탄력적 생산에 돌입한 상황

□ 수입은 수입수요 감소와 수입품 가격경쟁력 약화로 큰 폭 감소

○ 2020년 상반기 철강재 수입은 중국 및 동남아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환율상승과 국내 수요 부진에 따른 수입수요의 감소로 인해 전년 비 19% 하락한 440만톤 규모로 추정됨.

- 2020년 1~4월까지의 내수판매가 3.5% 감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20년 상반기 내수의 감소는 상당 부분 수입 감소에 기인

- 봉형강류와 강관의 수입감소가 약 30%(물량기준)로 가장 큰 편이며 판재류도 11% 감소

- 코로나 19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주요 요인이며 수입가격이 하락한 4월 이후에는 수입수요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

- 2020년 1차금속 수입물가지수 등락률(전년비): 2월 2.3%, 3월 0.0%, 4월 -3.3%, 5월 -3.8%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코로나 19 여파로 단기간 세계 수요의 회복은 쉽지 않겠지만,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2020년 하반기 글로벌 철강수요는 소

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투자의 확대에 따라 중국, 동남아에서의 수요 회복이 선진권 국가에 비하여 빠를 것으로 예상되나 남미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이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 연중 수요의 회복이 불투명
- 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조기 집행으로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

- 전 세계 주요 철강사들이 감산을 진행한 가운데 세계 철강 소비와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조강생산 확대와 재고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 판매 경쟁 및 가격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철강산업의 과잉설비 문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확대되면서

〈표 2-22〉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15	☹	☺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경기 상승,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의 회복
선진국 (EU, 북미, 일본)	35	☹☹	☹	큰 폭의 경제성장률 하락, 기계,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부진 지속,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산업 부진
동남아시아	25	☹	☺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상반기 섰다운 여파 지속 인프라 투자는 지속
남미, 중동 등 기타	25	☹☹	☹	코로나 영향이 하반기에 집중, 인프라 투자 지연, 세계 경제 변화에 취약
합계	100	☹☹	☹	개도국 중심의 수요 회복으로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수출시장에서의 경합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철강 보호 무역기조가 보다 확대되어 글로벌 수입규제가 빈번해질 가능성 존재

○ 수급변화와 경쟁관계의 변화가 반영되어 국제철강가격은 상반기의 하락세에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이 예상되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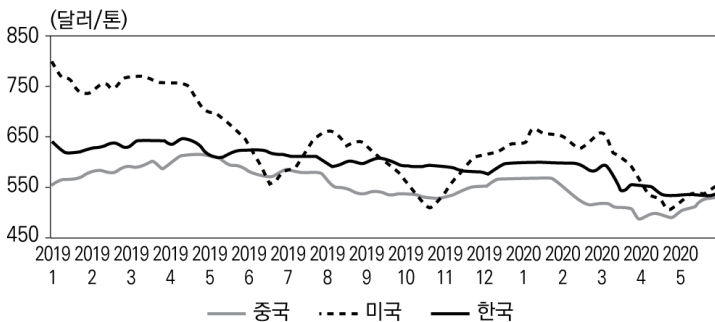
- 세계 수요가 완만히 회복되고 철광석 가격이 수요증가와 남미의 코로

〈표 2-23〉 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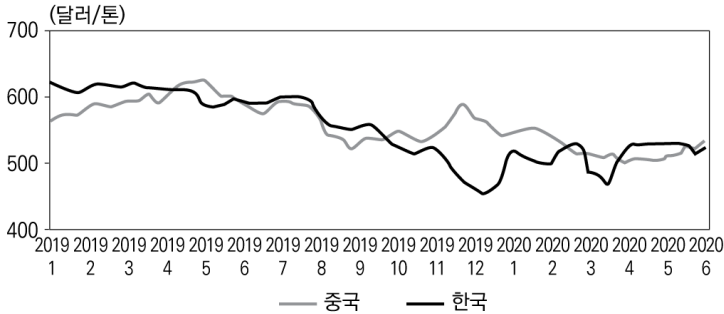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세계 경제성장률 감소	☹
	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중국 조강생산량 확대	☹
	각국의 무역규제 강화	☹
제품 단가	재고물량 증가	☹
	원료가격 인상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그림 2-1〉 국내외 열연강판 내수가격 동향



〈그림 2-2〉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 동향



나 영향으로 인상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2020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철강 가격이 인상될 여지는 있으나 전 세계적 재고 부담으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

□ 국내 여건 변화

-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의 부진이 예상되지만 상반기 대비 수요산업의 둔화폭이 낮을 것이며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수요 진작책 및 그린뉴딜 등과 같은 정책으로 하반기 수요는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수요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 상승 요인이지만 환경규제의 강화추세, 노동시간의 여건변화 및 전력요금 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들이 주요 경쟁국 대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 국내 기업의 수입재 대응으로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좁아진 상반기의 경향이 유지되어 수입 철강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격경쟁력은 약화되겠지만

- 코로나의 영향이 연중 지속된다면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 저가의 재고물량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 존재

○ 철강산업은 불황이 수년째 지속됨에 따라 신규설비 투자보다는 유지보수, 환경규제 대응,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와 같은 소극적 투자 위주로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역시 현 기조가 유지될 것

〈표 2-24〉 철강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경제성장률	☹☹
	수요산업 동향	☹☹
국산 제품의 경쟁력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	☺
	환경규제	☹☹
	노동시장 변화	☹☹
	에너지 가격 (전력 등)	☹☹
수입제품의 경쟁력	수입재 가격	☹☹
	환율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25〉 철강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수요감소 시기의 설비 개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설비 구축 - 스마트제조 도입을 위한 자동화 투자 - 고부가가치 품목/친환경 제철기술 관련 연구개발 투자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표 2-26〉 철강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수요산업의 내수축소폭 둔화 -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 수요산업의 생산 감소 - 경제성장률 둔화	- 상반기 대비 수요회복되나 전년 대비로는 감소
수출	- 신흥국 증심 철강수요 회복 - 수출제품 고도화	- 세계 철강수요 감소 - 수출경쟁 심화 - 보호무역 심화	- 세계 철강수요 회복속도가 관건
생산	- 설비효율성 제고 - 친환경설비 투자 확대	- 내수판매 감소 - 수출감소	- 수요감소에 따른 생산/품목고도화 시도
수입	- 수입대응재 비중 확대 - 환율 상승	- 중국의 높은 재고 수준 - 낮은 진입장벽	- 코로나 영향으로 가장 큰 감소

□ 국내외 수요의 회복 속도가 철강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여건일 것임.

○ 산업의 공급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수요 부진의 심화가 내수, 수출, 생산, 수입 등 전 부분에 영향

- 철강산업은 2010년대 이후부터 과잉설비 문제와 구조적 수요침체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는 국내외 수요부진을 가속

- 202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수요 충격이 일정 부분 회복될 전망이며 공급 부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

2) 2020년 전망

□ 내수는 수요산업의 생산 증가로 감소폭 둔화

○ 2020년 철강산업의 내수는 전년에 비해 7.5% 감소하여 2010년 이후 최저치인 4,923만톤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2020년 하반기에는 조선, 자동차산업에서 상반기에 비해 생산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신속한 SOC 집행 등과 같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건설업도 둔화의 폭이 감소될 전망
-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이 연중 지속되어 경제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2020년 내수는 약 8.8% 감소한 4,855만톤 규모까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 수출은 수요회복과 기저효과 및 가격요인으로 상반기 대비 실적이 개선될 전망

○ 2020년 철강수출은 전년비 7.6% 감소하여 약 2,808만톤 규모일 것으로 전망(물량기준, 철강재)

-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이 둔화되며 철강수요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상반기에 비하여 철강수요 역시 부분적으로 회복 되겠지만
-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전 세계 주요 철강사들의 공격적 영업과 중국의 공급증가로 따른 전 세계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경쟁이 예년보다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수요회복에 따른 수출단가가 상반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비로는 감소하여 금액기준 수출(MTI 61 기준)은 하반기 9.8% 감소되고 연간으로는 약 14.5% 감소가 예상
- 미국과 유럽의 경우 코로나 19의 부정적 영향이 높았던 자동차산업의 생산이 다시 재개되었지만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산업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아세안·중동·아프리카

등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의 신규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아세안과 인도시장에서 상반기 섣다운으로 급감하였던 우리 수출이 하반기 빠른 수요 회복에 따라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생산은 내수판매와 수출의 개선으로 하반기 감소폭 둔화

○ 2020년 생산은 전년비 5.2% 감소한 6,973만톤으로 추정되는데 내수 판매와 수출의 동시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한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에는 수출보다 내수판매의 회복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은 시장 방어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와 동시에 수익성 추구를 위해 프리미엄 제품군 비중이 확대될 것이며 고부가가치 강재의 생산비중과 항균기능을 갖춘 기능성 강재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불황에 따른 과잉 재고 수준이 지속되고 있기에 재고조정을 위한 생산 증가의 여지는 낮은 편

□ 수입은 하반기 감소폭 둔화되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 2020년 철강재 수입은 수입수요의 감소와 수입재 대응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며 전년비 14.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반제품을 포함한 금액기준(MTI 61)으로는 전년비 19.4%의 큰 폭 감소가 예상

-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시장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는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중국 정부는 판재류, 강관, 선재, 철근, 스테인리스강, 철강 가공품 등 대부분 제품의 수출세 환급률을 13% 인상

〈표 2-27〉 철강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단위: 천톤,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75,211 (-2.4)	37,388 (-1.7)	36,172 (-2.7)	73,560 (-2.2)	35,043 (-6.3)	34,689 (-4.1)	69,732 (5.2)
수입	8,939 (-18.1)	5,444 (24.2)	4,599 (0.9)	10,043 (12.4)	4,407 (-19.0)	4,162 (-9.5)	8,569 (-14.7)
내수	53,710 (-4.6)	27,644 (3.2)	25,579 (-5.0)	53,223 (-0.9)	24,990 (-9.6)	24,242 (-5.2)	49,232 (-7.5)
수출	30,440 (-3.9)	15,186 (-2.9)	15,193 (2.6)	30,379 (-0.2)	13,802 (-9.1)	14,281 (-6.0)	28,083 (-7.6)

-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3) 철강재 기준.

〈표 2-28〉 철강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입	21,849 (-0.2)	11,471 (4.1)	10,177 (-6.0)	21,648 (-0.9)	8,649 (-24.6)	8,793 (-13.6)	17,442 (-19.4)
수출	33,973 (-0.7)	15,932 (-5.1)	15,161 (-11.8)	31,093 (-8.5)	12,921 (-18.9)	13,675 (-9.8)	26,596 (-14.5)

-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MTI61 기준으로 수입은 반제품 포함.

- 수입수요 둔화, 국내 업체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수입재 대응 등의 노력으로 하반기에도 수입이 9.5% 감소하며 연중 수입 규모는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

5. 정유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5% 감소
 - 2020년 상반기 내수는 코로나 19로 인한 수송용 석유제품의 수요 위축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산업별로는 전체 석유제품 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 및 도로용 석유제품의 소비가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제품별로는 항공유의 소비가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휘발유 및 경유도 10% 이상 축소
- 수출은 단가 급락으로 약 30% 감소
 - 2020년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년동기대비 29.3% 감소
 - 상반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37.9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1%나 하락하였으며, 석유제품 수출단가는 약 34% 하락
 - 수출물량은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위축에도 불구하고 소폭 확대

-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1~3월까지 약 3.0%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석유 제품 소비 감소 지속 및 국내 정유사의 정기보수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생산은 가동률 하향조정 및 정기보수 확대로 감소

- 2020년 상반기 생산은 수출물량 정체 및 내수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
- 정제설비 고도화로 생산능력은 확대되었지만 내수 감소 및 정제마진 하락으로 인한 가동률 하향조정 및 정기보수 확대로 생산물량 감소
- 석유제품 재고는 정유사의 생산량 조정으로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 수입은 물량이 증가한 반면 수입단가 하락으로 감소

- 석유제품 수입물량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및 LPG의 수요 확대 및 국내 생산감소로 약 13% 증가
- 수입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수입단가가 15% 이상 하락하며 수입액은 2.7% 감소 전망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국내·외 이동 제한으로 항공용 및 차량용 석유제품의 글로벌 수요 감소가 불가피

- 최근 수송용 석유제품의 성장률은 코로나 19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연비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현저히 둔화
 - 한편, 글로벌 플라스틱 소비 증가 등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용 나프타 및 LPG의 수요확대는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
 - IMO 2020 시행에 따른 저유황 경유 및 수송용 병커C유의 글로벌 수요는 큰 폭으로 확대 전망
-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감소로 정제마진의 약세 추세 지속
- 글로벌 정유설비 증설계획 지연 및 정제설비 가동률 하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급보다는 수요 감소 폭이 큰 상황
 - 하반기에도 석유제품의 공급과잉 추세가 이어지며 국제유가와 제품 단가, 정제마진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표 2-29〉 정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차량 및 항공용 석유제품 수요감소	↑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요확대	∞
	기타 석유제품 수요 감소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신규 정제설비 증설	∞
	기존 설비 가동률 하향 조정	↑
제품 단가	국제유가 하락(두바이유 기준)	↓↓
	정제마진 하락	↓↓
	수출단가 하락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하반기 석유제품 수요는 글로벌 락다운(lockdown)의 점차적 해제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경우, 2/4분기 수송용 석유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 봉쇄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 미국도 석유제품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3/4분기 이후에

〈표 2-30〉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14	☂	☁	- (수요) 2/4분기 이후 석유제품 수요 개선 전망이 우세하나 미중 분쟁 장기화 및 경기부진의 불확실성 존재 - (공급) 신규 정제설비 증설(2019~2020년, 124만b/d): 국영 정유업체 및 티파트의 정제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자급률 및 수출 확대
일본	4	☂	☹	- 자동차 운전 인구 감소 및 전기차 보급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수송용 연료 수요 감소
미국	20	☹	☁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봉쇄로 수송용 석유제품 소비 감소 -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및 LPG/에탄 수요 확대
Non-OECD 아시아 국가	28	☹	☁	- (수요) 자동차 판매량은 증가 추세이지만 대중교통 운영 및 공장 조업 중단으로 인한 수요 감소: 석유화학 원료 수요는 증가 - (공급) 자체 신규 정제설비 증설(2019~2020년): 말레이시아(30만b/d), 브루나이(17만b/d), 베트남(20만b/d) 등
유럽	17	☹	☹	- 수송용 석유제품 소비 감소
기타	17	☁	☁	- 중동 및 인도 등 주요 수출경쟁국의 가동률 하향조정
합계	100	☹	☁	- 하반기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는 확대되겠지만 2020년 전체 수요는 소폭 감소 전망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럽 및 일본, 중동의 경우는 코로나 19 방역체계 미흡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석유제품 수요가 정체 혹은 소폭 하락 전망

□ 국내 여건 변화

- 하반기 국내 석유제품 수요는 수송부문의 수요 회복 및 석유화학제품 부문의 수요 확대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석유제품 전체 수요 중 수송용 석유제품은 약 30%, 석유화학제품용 석유제품은 약 57%의 비중을 차지
 - 수송용 석유제품(휘발유, 항공유 및 경유 등)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 19의 영향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수요 감소가 불가피
 - 석유화학제품용 석유제품(나프타 및 LPG 등)은 상반기의 확대 추세를 유지하며 전체 석유제품 수요확대 견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석유제품의 수출물량 확대 및 내수 회복으로 정제설비 가동률은 90% 대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

〈표 2-31〉 정유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수송용 부문의 수요 회복	↑
	석유화학제품용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 추세 지속	∞
	가정, 상업 및 발전부문 수요 회복	↑
국내 생산능력	정제설비 가동률 회복	●
	고도화설비 확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32〉 정유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기존설비 확장, 연구개발, 합리화			
투자수요 특성	- 설비효율 증대 위한 개체, 유지보수			
원인	- 최근의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 - 장치산업 투자 특성상 2018년 대규모 신규 정제설비 투자 완료 후, 2019년부터 설비고도화 및 친환경 시설 위주의 투자를 진행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국내 정유사의 1/4분기 정제설비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석유제품의 수요감소에 따른 정제마진 악화 및 재고확대로 80% 초반대로 하락

- 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하락하겠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가 가동률 상승을 견인

○ 정유산업은 2018년에 대규모 신규 정제설비 투자가 완료된 이후, 설비고도화 및 친환경 시설구축 위주의 투자를 추진 중

□ 업종별 특징적인 여건변화

○ (부정적 요인) 코로나 19의 영향 지속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수출단가 및 정제마진 상승폭이 제한인 상황

- 중국 및 미국 등의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조정 및 석유제품 수출확대로 인한 수출경쟁 심화

- 중동(570만 b/d) 및 중국(310만 b/d)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규 정제설비 증설(1,018만 b/d)에 따른 공급 증가 요인 존재

- (긍정적 요인)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및 LPG의 글로벌 수요 확대 추세 지속
 - 중동 국가의 정제설비 증설 계획의 지연 및 가동률 하향조정에 따른 공급 과잉 완화
 - 국제유가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재고평가손실 발생 위험 축소
- (종합평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하반기에도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주요 글로벌 정유사들이 정제설비 가동률을 하향 조정 중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가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
 - 종합적으로는 석유제품 공급 우위의 상황이 유지되며 정제마진의 약세 및 상승폭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표 2-33〉 정유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및 LPG 수요 확대	- 항공용 및 차량용 석유제품의 소비 감소	-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위축으로 인한 내수 감소
수출	- 주요 수출대상국의 3/4분기 이후 전반적 석유제품 수요 회복 - 저유황 경유 및 벙커C유 수요 확대 - 글로벌 신규 정제설비 증설 지연 및 가동률 하향조정	- 중국의 신규 정제설비 가동 및 가동률 상향 조정 - 글로벌 신규 정제설비 가동	- 수출물량 확대 - 단가하락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
생산	- 수출물량 확대 - 주요 수출지역인 아시아 역내의 경기회복	- 수송용 석유제품 내수 감소 - 저유가 및 정제마진 약세	- 내수 위축으로 인한 생산 감소
수입	- 석유화학제품용 석유제품 수요 확대 - 국내 석유제품 생산 감소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 수입물량 확대 - 단가하락으로 인한 수입액 감소

2) 2020년 전망

□ 내수는 수송용 부문의 소비 위축으로 감소

- 생활방역 전환에 따른 점차적 석유제품소비 확대가 예상되지만 전년 대비 약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증가요인) 석유화학제품용 수요 확대 추세 지속 및 IMO 2020 시행에 따른 저유황 선박연료유의 소비 증가
- (감소요인) 코로나 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으로 항공 및 도로용 석유제품의 소비 감소
 - 수송용 석유제품의 내수 비중은 약 30% 정도로 전체 석유제품 내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수송용 석유제품의 상반기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15% 이상 하락
 - 상업활동 제약에 따른 가정상업부문의 석유제품 수요 위축 및 발전용 병커C유의 소비량 대폭 감소

□ 수출은 단가 하락 영향으로 큰 폭 감소

- (증가요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물량의 소폭 확대
 - 석유화학제품용 나프타 및 LPG의 수요 호조와 경제봉쇄 및 이동제한 완화에 따른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 회복
 - IMO 2020 시행에 따른 저유황 경유 및 수송용 병커C유의 글로벌 수요 확대

〈표 2-34〉 석유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전체
상반기 추정	8.0	15.0	5.0	3.0	0.8
하반기 전망	7.0	14.0	4.0	5.0	1.0

○ (감소요인)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글로벌 공급과잉의 가능성이 우세

- 코로나 19의 영향 지속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 및 수출단가, 정제마진의 약세 추세 지속
- 수출 물량의 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체 수출액은 36.0% 감소

□ 생산은 내수 위축으로 2.5% 감소

○ (증가요인) 석유화학제품용 석유제품의 글로벌 수요 호조 지속 및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물량 확대가 생산을 견인

- 중국, 미국 및 아세안 지역의 석유제품 수요가 3/4분기 이후에는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감소요인) 석유제품의 내수 위축 및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가동률 조정이 전체 생산량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석유제품 생산 중 내수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 정도이며, 수송용 부문을 중심으로 한 내수 감소가 생산 감소를 초래
- 이와 더불어 상반기의 마이너스 정제마진 지속에 따른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정기 유지보수 확대도 생산량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

〈표 2-35〉 정유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단위: 십만 배럴,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12,589 (2.4)	6,245 (1.4)	6,255 (-2.7)	12,501 (-0.7)	6,022 (-3.6)	6,166 (-1.4)	12,189 (-2.5)
수입	3,416 (8.6)	1,597 (-5.3)	1,924 (11.2)	3,521 (3.1)	1,813 (13.5)	1,752 (-8.9)	3,565 (1.2)
내수	9,348 (-0.6)	4,576 (-2.4)	4,753 (2.0)	9,329 (-0.2)	4,350 (-4.9)	4,611 (-3.0)	8,961 (-3.9)
수출	5,316 (4.4)	2,582 (0.9)	2,646 (-4.0)	5,228 (-1.6)	2,603 (0.8)	2,673 (1.0)	5,276 (0.9)

주: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2-36〉 정유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입	21,443 (41.8)	8,264 (-17.1)	9,275 (-19.2)	17,539 (-18.2)	8,041 (-2.7)	6,491 (-30.0)	14,532 (-17.1)
수출	46,349 (32.3)	20,018 (-9.0)	20,672 (-15.1)	40,690 (-12.2)	14,145 (-29.3)	11,878 (-42.5)	26,023 (-36.0)

주: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 수입은 수입단가 하락으로 약 17% 감소

○ (증가요인)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및 LPG의 수요 확대 및 상반기 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입물량 확대

- 전체 석유제품 수입물량 중 나프타는 약 65%, LPG는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

- (감소요인) 전체 수입물량은 확대된 반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15% 이상 하락
 - 하반기 수입물량은 전년도 기저효과 및 국내 생산량 확대로 8.9% 감소

6. 석유화학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2020년 상반기 내수는 전방산업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3.1% 감소
- 코로나 영향에 따른 자동차, 섬유, 가전, 통신기기와 같은 전방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내수 축소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ECC 대비 NCC 기반 국산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회복되어 생산시설 가동률은 증가하였지만 수요부진에 따른 재고량은 증가
 -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방산업 조업 중단 사례가 증가하며 석유화학 중간재 수요 감소
 - LG화학(오창 배터리), 삼성전자(구미 스마트폰), LG전자 계열사(구미), 코오롱생명과학(김천)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마스크, 소독제, 방역복 등의 일부 의료용 제품과 항균필름, 위생장갑 등 포장용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량 증가

- 의료용 알콜, 의료장비용 플라스틱, 장갑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마스크용 부직포 원단 수요 증가
- 음식료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포장용기, 포장지 등 수요가 증가하며 합성수지(LDPE) 수요 증가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른 화학제품 수요 감소로 수출액 급감

○ 2월에는 중국 PX 생산설비 증설과 춘절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로 수출액 감소

-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및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

-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11.9%)하였으나 인도, 브라질 등의 수출선 다변화에 따른 수출량의 지속적 증가로 전체 수출량은 소폭 하락(-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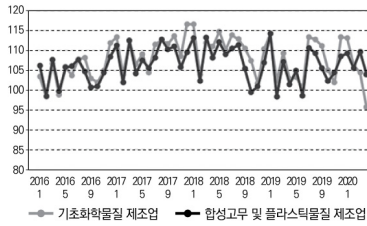
-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PX, PE, PP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여 수출액 감소 장기화 주도

- 주요 수출국 중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이 큰 중국(수출용 중간재 수요 감소), EU(차량용 화학제품 수요 감소)지역으로의 수출량이 각각 35.3%, 31.0% 감소

□ 2020년 상반기 생산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으로 생산시설 가동률 및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수요 위축으로 재고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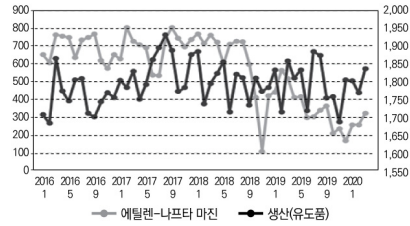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료비 부담이 감소하여 국내 생산량과 가동률 증가

〈그림 2-3〉 석유화학제품 생산활동 추세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2020).

〈그림 2-4〉 석유화학 유도품 생산 추세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2020).

-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세의 장기화로 NCC 업체들의 마진이 축소되어 가동률 하향 조정
- 생산시설 가동률 조절을 위한 정기보수 추진: 롯데케미칼 타이탄(말레이시아), 엑손모빌 등 아세안 지역 생산시설 정기보수를 상반기에 진행
- 미국발 석유화학제품의 공급량은 감소했으나 공급 과잉 현상 지속에 따른 동아시아 화학시장 내 가격 하락세 장기화
- PX는 동아시아 시황 악화로 수급이 타이트해지며 국내 생산 감소
- 국내 석유화학 업스트림 생산공정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유화사 자체적으로 집중 방역에 대응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생산시설 가동률 변화 폭은 미미
- 국내외 유화사들은 가동률을 정상 운영하며 직원 외부 접촉 및 출장 최소화, 실시간 체온 측정 등 비상 방역체계 가동 중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NCC) 폭발사고(3월 4일)로 인해 생산시설 정상화까지 공급 차질 우려

- 대산공장은 롯데케미칼 기초유분 생산능력 및 전체 연결영업이익 (2019년 기준)의 30% 점유
- 사고 원인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공급 차질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보다 대산공장 사고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량이 더 클 것으로 판단

□ 수요 감소에 따른 일본, 대만, 브라질, 네덜란드 등 주요 수입국의 수입액 감소

○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1.3% 하락하였으며 수입액은 24% 감소(기초유분 기준)

- 톨루엔, 자일렌 등의 국내 생산 가능한 품목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액은 각각 63.8%, 29.1% 감소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발 공급규모가 축소되고 과잉공급은 완화되나 수요 위축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세 장기화 우려

○ (중국)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중 43.6%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2020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조치로 수입수요가 감소했으나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전망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바이러스 영향에서 벗어나 2분기 중 봉쇄 조치를 해제한 이후로 석유화학 주요 수요산업을 중심으로 석유

화학제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 중국 내 석유화학 생산시설 가동률이 회복됨에 따라 자급률이 낮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국산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제품 수입수요 증가 전망
- 중국 내 주요 전방산업(자동차, 건설, 생활소비재 등) 업황이 평년보다 부진할 전망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요 회복 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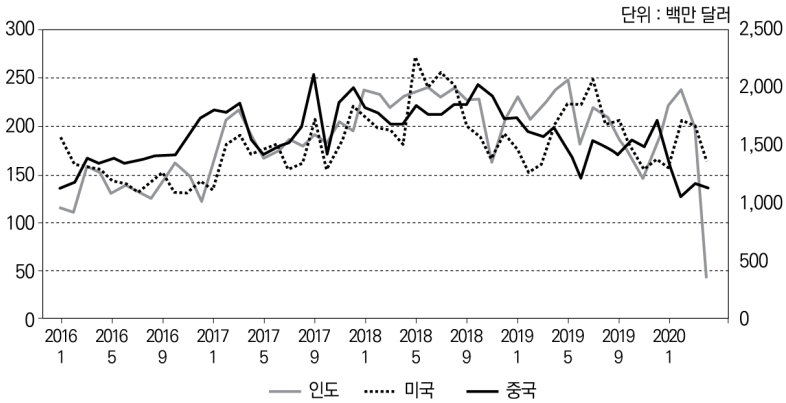
○ (인도) 자동차산업 업황 호조에 따라 국산 중간재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수요 감소

〈표 2-37〉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43.6	☛	☹	- 봉쇄 해제 후 수요산업 내 석유화학제품 재고 확보 수요 증가 - 생산시설 가동률 회복에 따른 국산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수입수요 증가 - 전방산업(자동차, 건설, 생활소비재) 부진으로 수요 회복 폭 제한
인도	5.7	☛	☛	-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률 부진에 따른 자동차용 중간재 수요 감소
미국	5.4	☹	☛	- 개인방호구(PPE), 세정/소독제, 의료자재 관련 소재 수입 수요 호조세 - 전방수요(자동차, 건설), 고용 규모 감소에 따른 수입수요 규모 축소
합계	100.0	☛	☛	- 공급망 단절 우려 재고 확보 수요 일시적 증가 - 의료용, 세정/소독용 화학소재, 포장재(점접착제) 수요 호조 - 전방수요 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뚜렷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그림 2-5〉 주요 수출국별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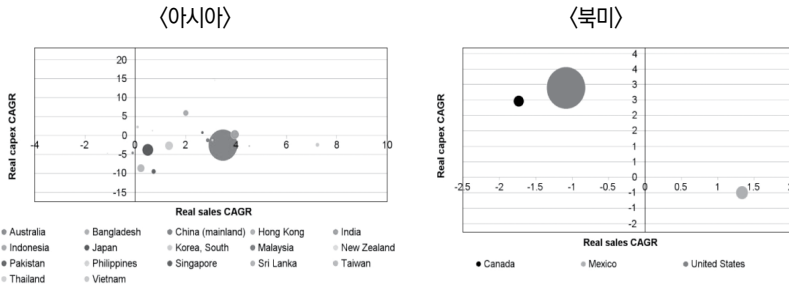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

주: 우측은 대중국, 좌측은 인도 및 미국 수출액을 표기.

-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의료자재 관련 수입수요는 증가
하나 경기 위축에 따른 전방수요 부진 우려
 - 미국 내 개인방호구(PPE), 세정제, 소독제, 의료자재 관련 석유화학 소재(알콜, PE, PPS 등)의 수입수요 증가
 - 방역을 위한 폐쇄, 고용 감소, 주요 내구재 구매 지연 등으로 인해 자동차 및 건설 수요가 위축되며 석유화학제품 수입수요 규모도 축소되는 모습
- 세계 최대 화학시장인 동아시아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중국과 대만, 일본의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증설 투자는 지속되는 모습
 -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는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정책을 추진 중

〈그림 2-6〉 권역 내 국가별 경영성과 비교



자료: IHS Markit (2020).

- 북미 지역도 판매 증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전망에 힘입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생산시설 투자가 지속되는 특징
 - 중국산 화학제품(HDPE, LLDPE, PP)이 관세 비적용 제품으로 분류되는 등 미중간 무역갈등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IHS, 2020)
-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며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국들의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수요 감소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의약품, 개인보호용품, 음식 포장재 관련 석유 화학 중간재 수요는 폭증한 특징
- 중국과 한국 내 바이러스 영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주요 수출국들(미국, 유로권 등)도 3분기 이후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
- 국제유가 하락으로 셰일 및 천연가스 기반 제품의 채산성이 크게 하락한 반면, 나프타 기반 제품의 원가경쟁력은 회복
- ECC 기반 미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며 동아시아 시

장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원가경쟁력이 하락하며 공급규모가 축소되는 모습

- 중동 및 중국을 중심으로 COTC(Crude Oil To Chemical) 생산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NCC 기반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동아시아 화학시장에서 공급규모는 유지된 채 수요 감소가 뚜렷함에 따라 제품 단가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 미국산 제품의 공급량은 감소했으나, NCC 기반 생산시설이 정상 가동되며 공급 규모는 유지

〈표 2-38〉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의약품, 개인보호용품, 음식 포장재 중심 소재 수요 증가	↔
	중국 경기 회복세, 주요 수출국 경기부양책 시행 기대(3Q 이후 수요 회복세)	↔
	경기 하락에 따른 주요 전방산업 수요 부진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국제유가 하락으로 NCC 기반 제품의 원가경쟁력 회복(EU, 동아시아) ECC 기반 제품 공급 감소(미국, 중동)	☼
	중동, 중국 중심 COTC 생산설비 투자 지연	↘
제품 단가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부양책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나 연말까지 석유화학제품 수요의 평년 수준 회복 여부 불투명	☂
	미국산 제품의 동아시아 공급량은 감소하나 동아시아 지역 NCC 가동률이 정상을 유지하며 공급 증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일정 수준 회복되겠지만, 화학제품 수요 규모가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한 제품 단가 하락세는 2020년 말까지 지속될 우려
-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함에 따라 자동차, 섬유, 가전,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국내 수요 축소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료비 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량 및 제품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생산 시설 가동률은 증가하였으나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 하락 가능
 - 코로나에 따른 국내 생산 능력의 증감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수요 부진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세가 지속되어 석유화학 생산시설 가동률은 하향 조정 가능
 - 또한, 제품 가격 하락세의 장기화로 NCC 업체들의 마진이 축소되어 가동률 하락에 영향
-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화학제품 수요 감소로 매출액 급감
 - (4월 기준) 수출단가가 90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4% 감소하면서 수출액 감소 장기화 주도
 - 국제유가가 폭락함에 따라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미국 석유화학제품 공급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생산설비의 정상 가동으로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아 가격 하락세 유지
- 내수는 전방산업(ICT 제외) 수요 부진 속 방역 관련 중간재 수요가 증가했으며,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 기대
 -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추가 정책도

예고되고 있으므로 하반기부터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생활소비재, 자동차, 건설 시황은 하반기에도 크게 회복될 요인이 많지 않아 석유화학 내수 감소세 지속

○ 국제유가 하락으로 ECC 대비 NCC의 원가경쟁력이 회복되었지만 수요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능력 확대 시기가 다소 지연될 우려

- NCC 기반 제품의 원가경쟁력이 회복되어 중국 화학시황이 개선될 경우 저자급률 품목 중심으로 적시 납품이 가능한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가능

-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가 감소하며 제품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정유사들의 석유화학 업스트림 부문 진출을 위한 신증설 완료 시기가 다소 지연될 우려

○ 미국산 ECC 기반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되지만 중국산 증저가 범용제품의 국내 유입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석유화학산업은 2020년 3.3조 원으로 2019년과 비슷한 규모의 보수적 설비 투자 기조 유지 전망

-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공급과잉 등의 업황 문제로 투자 규모 제한

- 미국 에탄 생산설비 증설,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력 확대를 위한 투자, 아랍 기업들의 석유화학 기업 전환 등의 글로벌 공격적 투자로 투자 확대 어려움

〈표 2-39〉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의약품, 소독용, 세정용, 음식 포장재 중심 수요 증가	☁
	ICT산업 제외 전방산업(생활소비재, 자동차, 건설 등) 수요 부진	☁
	2분기 이후 경기 회복 기대	☀
국내 생산능력	국내외 석유화학제품 수요 감소로 인한 신증설 완료 시기 지연 우려	☁
국산 제품의 경쟁력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ECC 대비 국산제품(NCC 기반) 원가경쟁력 회복	☀
	중국 화학시장 내 저자급률 품목 중심으로 적시 납기 대응 능력 확보	☁
수입제품의 경쟁력	미국산 ECC 기반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중국산 범용제품 수입규모 확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40〉 석유화학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기존설비 확장 및 신규설비 증축			
투자수요 특성	- 나프타 외 원료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원인	- 설비투자는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 19의 영향 등으로 신규투자가 지연되어 증가폭이 제한될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유가가 급락하여 비정유 분야 등에 대한 보수적 투자 기조로 전년 수준의 투자 예상 - 미국 에탄설비 증설, 중국 석유화학 자금 투자 확대, 아람코 등 석유기업의 화학 전환 등으로 공격적 투자 확대 어려운 상황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코로나 19로 계획되었던 신규투자가 지연되면서 투자 증가 폭은 제한적일 전망

- 국내 생산 여건은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 수요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며 전년 대비 수출과 내수 감소
- 내수는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와 ICT산업 중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가 부진하며 전년 대비 감소
- 수출량은 동아시아 시장 내 과잉 공급이 일시 해소되며 전년 대비 견조하게 감소하나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폭 확대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
- 국내 생산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러스 확산에도 상반기 생산시설 가동률은 정상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에는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향 조정 불가피

〈표 2-41〉 석유화학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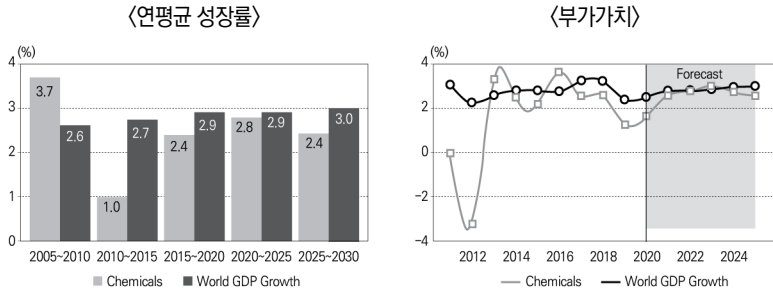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ICT 산업 중심수요 회복 기대 - 일부 의료용품 및 음식 포장용 중간재 수요 증가 - 경기부양책 시행 효과	- ICT 외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량 증가	- 경기부양책 시행 효과와 ICT 산업 중심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
수출	- 미국산 에탄 기반 제품의 동아시아 유입량 감소로 동아시아 시장 내 과잉공급 일시 해소 - 중국 중심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재고 확보 수요 증가 - 미중간 무역갈등 완화	-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에 따른 국산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 - 주요국 생산시설 가동률이 평시 수준을 유지하며 공급 증가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세 지속	- 수출량은 전년 대비 견조한 감소 -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로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
생산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경쟁력 회복	- 생산시설 가동률이 평시 수준을 유지 - 수요 위축에 따른 가동률 하향 조정 불가피	- 원가경쟁력이 회복되나 수요 부진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불가피
수입	- 수입단가 하락 폭 확대	- 중국산 범용제품 수입량 증가	- 제품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국산 제품 수입액 증가

2) 2020년 전망

- 내수는 ICT 산업용 중간재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타 전방산업부진이 부진하며 전년 대비 2.0% 감소
 - (감소요인) 2020년 내수는 자동차, 생활소비재, 건설산업 등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며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
 - (증가요인)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를 포함한 ICT산업의 업황이 호조세를 유지하며 석유화학 중간재 내수 증가 견인
 - 부정 시나리오하에서도 의료용품, 개인방호용품, 음식 포장용 중간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확대 시행되면 전방 산업 수요 증가 기대

- 하반기 수출은 수요 부진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며 수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
 - (증가요인) 미국산 에탄 기반 제품의 동아시아 유입량 감소로 동아시아 화학시장 내 과잉 공급이 일시적으로 해소 기대
 - 중국을 필두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주요 수요산업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중간재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 증가
 - 중국 내 화학제품 생산시설 가동률 회복에 따라 국산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의 수입수요 증가 기대
 - 미국 화학시장은 3분기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시황이 개선되나,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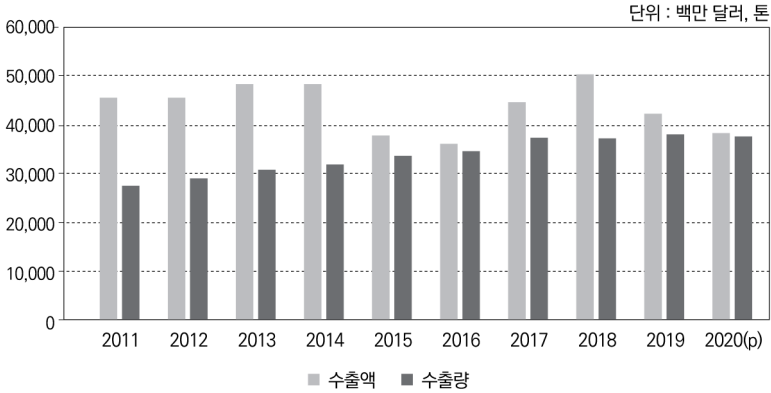
〈그림 2-7〉 석유화학산업 전망



자료: IHS Markit (2020).

- 세계 석유화학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20년 이후로 2025년까지 세계 GDP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2.8%)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수요가 증가할 전망(IHS, 2020)
- (감소요인) 수요 위축과 공급 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며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감소 추세 지속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평시 수준을 유지하며 공급 증가세 유지
 - 중국 외 인도와 미국 시장 내 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세가 하반기 내 반전되지 못하며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될 전망
- 2020년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액은 2015년 수준까지 하락하며 다운사이클로 진입할 전망
 - 2022년까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시장 내 석유화학 생산설비가 증설될 예정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제품 가격 하락세 지속
 -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둔화의 회복 속도가 늦는 비

〈그림 2-8〉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및 수출량 전망



관 시나리오하에서 수출액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

- 국내 유화사 및 정유사들의 신규 투자로 인해 생산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중국 자급률 상승 및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2020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0.5%) 감소

□ 2020년 국내 생산량은 원가경쟁력을 회복하지만 가동률이 하향 조정되며 전년 대비 0.7% 감소

○ (증가요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NCC 기반 원가경쟁력을 회복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이 정상 가동되며 생산 증가 주도

- 공급 증가 대비 수요 증가 폭이 작아 재고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

○ (감소요인)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하반기 수출량 및 내수 감소로 인해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불가피

- 전방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비관 시나리오하에서 국내 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8.2% 감소

□ 2020년 수입액은 수입량 감소 및 수입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

○ (증가요인) 생산능력이 회복된 중국산 범용제품의 한국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조달 문제가 발생한 상반기에는 수출량이 전년대비 5.6%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증가세로 반전

- 하반기 일부 화학제품(대만, UAE, 태국산 PET film)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수입량 증가 폭에 영향을 줄 전망

〈표 2-42〉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전망(물량기준)

단위: 백만 톤,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21,553 (-1.9)	10,770 (-0.4)	10,767 (0.3)	21,537 (-0.1)	10,766 (0.0)	10,611 (-1.5)	21,377 (-0.7)
수입	10,959 (-3.5)	5,674 (6.8)	5,296 (-6.2)	10,970 (0.1)	5,357 (-5.6)	5,340 (0.8)	10,698 (-2.5)
내수	11,199 (-3.7)	5,595 (-1.7)	5,388 (-2.2)	10,984 (-1.9)	5,421 (-3.1)	5,345 (-0.8)	10,766 (-2.0)
수출	37,149 (-0.2)	18,467 (0.2)	19,518 (4.3)	37,985 (2.3)	18,904 (2.4)	18,904 (-3.1)	37,808 (-0.5)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3) 생산과 내수는 3대 유도품, 수출입은 MTI 21(석유화학제품) 기준.

〈표 2-43〉 석유화학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49,985 (11.9)	21,688 (-13.1)	20,890 (-16.5)	42,578 (-14.8)	19,113 (-11.9)	19,163 (-8.3)	38,276 (-10.1)
수입	14,534 (5.5)	6,699 (-5.4)	5,977 (-19.8)	12,676 (-12.8)	5,984 (-10.7)	6,458 (8.1)	12,442 (-1.8)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MTI 21(석유화학제품) 기준.

- (감소요인) 하반기 국내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중간재 수입 수요 규모도 축소되며 수입량 증가 폭을 제한할 전망

7. 섬유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내수는 국내 실물경기 하락에 따른 소비 둔화로 큰 폭의 감소세
- 상반기 섬유 내수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소비 심리 둔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외출 자제 등 소비 급감 등으로 의류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감소세 전환
 - 국내 의류용 섬유, 직물, 원부자재 등 수요 동반 부진
 - 실질GDP 성장률: (2019.상) 1.9% → (2020.상) -0.7%
 - 민간소비 증감률: (2019.상) 2.0% → (2020.상) -3.8%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기준 전년동기비): (2020.1월) -7.2%
→ (2월) -25.1% → (3월) -39.5% → (4월) -21.7%
- 가두매장, 대형유통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의 내방객 급감에 따른 봄 시즌 의류 매출 급감 및 재고 체증, 패션 내수업체의 OEM 및 원부자재 협력업체의 연쇄적 경영난 심화
-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 운송기기, 가구 등 수요산업의 생산 위축으로 비의류용 산업용 섬유 수요 부진
- 그간 내수 성장을 견인해 온 모바일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거래가 감소로 전환하고, 국내 소비 및 산업활동 위축으로 수입 역시 큰 폭으로 감소
- 수입 증감률(전년동기비): 2020년 4월 누계기준 -7.3%
- 의류 온라인쇼핑몰거래액 증감률(전년동월비): (2019.12월) 2.3% → (2020.1월) -4.0% → (2월) 1.3% → (3월) -3.9% → (4월) -1.0%
- 수출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침체 및 수요 절벽으로 큰 폭 감소
- 상반기 섬유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섬유 수요의 위축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비 21.2% 급감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국가의 대규모 봉쇄와 이동제한 등이 5월까지 이어져 외출 억제에 따른 소비 둔화로 의류 소비가 급감
- 글로벌 대형 유통바이어가 의류벤더에 오더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생산된 물건의 선적을 거부하는 등 수출 제약

- 동남아 국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수출관련 업무제약, 비즈니스 소통 단절 등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며 개도국으로의 의류용 섬유 소재 위주의 우리 수출에 타격
- 국가별로는 4월 누적 기준 베트남(-18.7%), 미국(-8.8%), 인도네시아(-19.4%), 일본(-11.5%)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
- 반면 대중국 수출은 중국내 코로나 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2월 마스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4월 누적기준 19.4% 증가
 - 수출(4월 누계기준 전년동기비): 아세안(-19.4%), EU(-16.9%), 베트남(-18.7%), 중국(19.4%), 미국(-8.8%), 인도네시아(-19.4%), 일본(-11.5%)
 - 대중 마스크 수출(전년동월비): (1월) 7,286.8% → (2월) 20,549.1% → (3월) -6.8% → (4월) -51.7%

□ 생산은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감소세

- 상반기 섬유 생산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절벽 및 가동률 하락으로 큰 폭 감소
 -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의류 소비 및 국내 산업활동 부진에 따른 산업용 섬유 내수가 부진하면서 생산물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구조적 악순환
 -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자가격리 및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요절벽이 중첩되면서 생산이 급락
 - 특히 지난 4월 섬유생산이 21.8%나 감소하고 가동률이 22.8% 하락하는 등 코로나 19의 충격이 확산

〈표 2-44〉 석유산업 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18	2019	2020	2019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4	-6.8	-5.4	-7.1	-8.3	-1.2	-12.4	-21.8
	생산(전기비)	-	-	1.2	-0.3	-0.6	-0.8	-2.4	-5.3
	출하	-3.6	-5.3	-6.2	-5.4	-9.6	-1.0	-16.5	-21.9
	재고	4.6	-0.8	4.4	-0.8	7.0	3.9	7.0	10.7
	가동률	-0.9	-2.7	0.3	-3.4	0.3	9.7	1.1	-22.8

자료: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주: 1) 3월 및 4월은 잠정치.

2) 석유산업은 석유, 의복, 화학석유 기준임.

- 국내 석유 생산(전년동기비): (2월) -1.2% → (3월) -12.4% → (4월) -21.8%

□ 수입은 내수 및 국내 생산활동 부진으로 감소

○ 상반기 석유수입은 의류 소비가 크게 둔화하고, 국내 석유 및 주요산업의 생산활동 부진으로 석유소재의 수입수요가 줄면서 큰 폭 감소

- 수입단가(누계기준, 달러/kg): (2019.4) 7.73 → (2020.4) 7.38 (-4.5%)
- 수입 증감률(전년동기비): 2019년 상반기 0.8% → 2020년 상반기 -9.3%
- 품목별로는 4월 누계 기준 총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의류가 국가간 이동 제한 및 해외 생산기지의 생산 애로, 의류 소비 급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0.9% 감소
- 유가, 원면, 양모 등 원자재의 단가가 수요 부진으로 하락하고 수입 물량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입 감소를 견인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코로나 19에 따른 주요 시장의 대규모 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가 6월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각국 정부의 소비 촉진과 산업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 민간소비는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나, 전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하반기에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시장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의류 소비가 전년동기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예상

〈표 2-45〉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베트남	19.4	↑↑	↑↑	- 미국, EU 등 의류수요 위축에 따른 의류용 섬유소재 수출 부진
중국	16.5	☼☼	↑	-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의류용 및 비의류용 섬유수요 위축
미국	11.1	↑↑	↑↑	- 의류수요 위축
EU	9.7	↑↑	↑↑	- 의류수요 위축
인도네시아	6.5	↑↑	↑	- 미국, EU 등 의류수요 위축에 따른 의류용 섬유소재 수출 부진
일본	6.4	↑↑	↑	- 의류수요 위축
합계	100.0	↑↑	↑↑	- 글로벌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산업용 섬유수요 위축으로 큰 폭 감소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주요시장의 의류소비 위축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의류생산국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섬유 및 직물 등 섬유소재의 수요감소 불가피
 - 하반기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내수 및 생산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으나, 주요 수출시장의 부진에 따른 연쇄 충격으로 낮은 성장이 예상되어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도 큰 폭 하락 전망
-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영향력이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동시다발적인 산업활동 애로 발생, 특정 국가 중심의 경쟁력 제고 또는 GVC 변동 등의 국지적 효과는 미미
-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재개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표 2-46〉 섬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글로벌 경기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 감소	☂☂
	세계 생산활동 둔화에 따른 산업용섬유 수요 둔화	☂
	공급 과잉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
	미·중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확대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가격경쟁력	☹☹
	품질 제고	☹☹
제품 단가	환율	☁
	유가	☁
	원부자재가(천연섬유소재, 의류 부자재 등)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산업활동 애로에 따른 공급조달 및 생산 문제보다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절벽이 국내외 생산에 미치는 연쇄 부진이 더욱 심각
- 민간소비 부진 및 산업활동 위축으로 유가, 천연섬유 원료, 원부자재 등의 수요 감소에 따른 제품단가 하락 지속 전망

□ 국내 여건 변화

-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의류 소비를 대폭 감소시키고,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이 감소
- 코로나 19 확산을 거치면서 국산 마스크 및 방진복 관련 신규 투자가 확대되고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 및 경쟁력이 크게 향상
- 유가 및 섬유원료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제품의 단가가 하락하여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겠으나, 수요 위축으로 큰 폭의 상승은 역부족
- 국내 생산능력은 수요단절에 따른 기업의 경영악화로 기업의 신규투자가 부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하락할 가능성
 - 특히 패션대기업 또는 벤더업체의 협력업체인 중소 봉제 OEM업체, 원부자재업체 등의 구조조정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
- 국산 제품 및 수입 제품의 경쟁력은 단기간 요인보다는 장기적 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기적 추세에 의하면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다소 약화되는 반면, 제품 경쟁력은 다소 상승하는 추이

〈표 2-47〉 섬유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국내 경제 성장률/민간소비	●●
	수입	●●
	의류 및 수요산업 생산활동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
국내 생산능력	투자 부진	●●
	한계기업 구조조정	●●
국산 제품의 경쟁력	가격경쟁력	●●
	품질 수준	○
수입제품의 경쟁력	수입단가	●●
	품질 수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해외 생산 이후 역수입되는 봉제의류, 중저가 섬유소재 등은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추세

○ 생산설비 등의 신규 투자는 경기 위축 및 섬유 수요 감소, 미래 불확

〈표 2-48〉 섬유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합리화			
투자수요 특성	- 유지보수			
원인	- 수요절벽에 따른 가동률 하락 및 생산 감소로 일부 합리화 투자 추진 - 신규 투자보다는 설비의 유지보수 투자에 집중 -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용품 관련 투자 일부 확대 전망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표 2-49〉 석유산업의 2020 하반기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금리 인하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 경기 및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위축 - 제한적 일자리로 소비여력 저하 - 수요산업의 부진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감소 - 수입 감소	- 민간소비, 국내 산업 활동 위축 등으로 섬유 내수 부진
수출	- 방역제품 수출 확대 - 한류기반 의류수출 확대 - 역지구 활성화 - 환율 상승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 - 글로벌 경쟁 심화 - 수출단가 약세 - 보호무역주의 강화	- 글로벌 수요절벽, 수출 단가 약세,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부진 지속
생산	- 방역관련제품 생산 확대	- 내수 및 수출 부진 - 국내 투자 감소 및 생산기반 약화	- 내수 및 수출 부진, 해외생산 확대 및 수입 증가로 생산 부진 지속
수입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 수입단가 하락	- 민간소비 위축으로 해외 생산의류 역수입 감소 - 의류 및 산업용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감소	- 민간소비 및 국내 생산 활동 둔화 등 수요 부진으로 수입 감소

실성 확대 등으로 지연 전망

- 현재의 생산능력하에서 가동률 조정을 통한 생산물량 감소로 수요 절벽에 대응하는 구조로 투자 유인은 매우 낮은 수준

2) 2020년 전망

- 하반기 섬유 내수는 민간소비 둔화 및 산업활동 위축으로 부진
-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으로 민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제한적인 일자리에 따른 소비여력이 줄면서 의류소비 감소

- 의류 소비 위축으로 봉제 OEM, 섬유사, 직물, 원부자재 등 협력업체로까지 연쇄적 내수 부진
 - 국내 제조업 부진에 따른 투자 위축과 국내 섬유산업의 생산 위축으로 산업용 섬유 및 섬유소재의 내수 부진
 - 의류유통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모바일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소매판매가 확대되어 의류 유통시장이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 가속화
- 섬유 수출은 글로벌 섬유 수요 부진 및 수출단가 약세로 큰 폭 감소
- 코로나 19 영향으로 선진권 및 개도권의 경기둔화로 의류 소비가 급감하고, 의류용 중간소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에 연쇄적 충격
 - 의류 수출국인 중국 및 동남아로의 국산 섬유소재 수출의 큰 폭 감소가 불가피
 - 의류유통은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산 및 경험 누적으로 모바일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소매판매가 확대되어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 가속화
 - 수출단가는 패션 소비 둔화에 따른 대형 바이어들의 단가 인하 압력, 신흥국간 경쟁 심화 등 상품단가 인하 압력이 지속되며 하락
 - 환율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섬유 수출단가 및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거래 단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서 수출 감소가 불가피
 - 하반기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및 재확산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

〈표 2-50〉 섬유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베트남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EU	전체
상반기 추정	-22.5	15.6	-9.2	-23.4	-18.7	-21.2
하반기 전망	-11.0	-4.7	-4.5	-14.2	-15.0	-12.0

년동기비 40% 이상 하락하며 수출단가 인하에 영향

○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로 섬유소재의 현지 조달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산 섬유소재 수출 확대는 제한적

- 코로나 이후 중국의 산업활동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산화율 제고, 중국의 동남아 수출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국 요인은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제약

- 또한 베트남 등 신흥국의 경쟁력이 과거 단순 봉제에서 직·편물, 원사 가공 등으로 상향 이동하면서 국내 섬유소재 수출구조가 직물에 서 원사 및 화섬원료 부문으로 전환하는 중

□ 생산은 내수 및 수출 부진, 해외생산 위축으로 감소 지속

○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시장의 소비 절벽으로 내수 및 수출이 급감하면서 생산 감소 유발

- 국내외 의류소비 급감으로 내수 패션대기업 및 글로벌 의류벤더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사, 직물, 부자재 등 협력업체의 연쇄적 경영 악화

- 코로나 19로 글로벌 섬유패션 시장이 더욱 악화되면 패션·수출 대기업 및 관련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 압력이 더

육 거세질 전망

- 국내 건설, 가구,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생산 부진 유발
- 상반기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되고, 하반기 패션소비 전망이 불투명하여 글로벌 대형 유통바이어가 가을과 겨울 시즌상품 기획 및 주문을 취소하면서 국내 섬유업계의 재고 체증 및 생산 타격 우려
 - 특히 중국, 베트남 등 해외생산기지의 섬유소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국내 생산 감소 전망
- 유럽, 베트남 등 아세안의 산업활동 위축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며 중저가 섬유소재 및 섬유기계 등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조달난 발생 우려
- 고비용 및 인력난, 52시간제 실시 확대 등 국내 생산 여건의 악화로 국내 생산기반 위축 지속
 - 베트남 등지로의 해외생산 투자가 봉제에서 면방, 직물 등 소재로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설비 축소 등 생산에의 부정적 영향 예상
- 수입은 민간소비 및 국내 생산활동 둔화 등 수요 부진으로 감소
- 코로나 19의 영향이 하반기까지 지속되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의류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수입 감소 전망
 - 해외 생산 중저가 수입의류뿐 아니라 국내 생산용으로 들여오는 섬유소재까지 전방위적 수입 감소가 불가피
-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온라인 거래 이용자가 폭

〈표 2-51〉 섬유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단위: 10억원,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74,128 (-0.2)	36,250 (-1.9)	35,802 (-3.7)	72,052 (-2.8)	33,120 (-8.6)	33,744 (-5.7)	66,864 (-7.2)
수입	17,141 (12.8)	7,771 (0.8)	9,359 (-0.8)	17,130 (-0.1)	7,050 (-9.3)	8,600 (-8.1)	15,650 (-8.6)
내수	77,494 (2.1)	37,564 (0.0)	39,272 (-1.7)	76,836 (-0.8)	35,343 (-5.9)	37,371 (-4.8)	72,714 (-5.4)
수출	14,080 (2.5)	6,617 (-7.8)	6,342 (-8.2)	12,959 (-8.0)	5,213 (-21.2)	5,580 (-12.0)	10,793 (-16.7)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생산과 내수는 10억원, 수출과 수입은 백만 달러.

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모바일 등 거래수단의 다양화와 편의성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제품의 국내 유입이 점차 확대

8. 가전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내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폭 감소

○ 2020년 상반기 내수는 전년동기비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이 본격화한 3월 전후로 오프라인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나, 4월부터는 수요가 회복세를 보임.

- 오프라인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판매는 증가하여 오프라인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
-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가전 주요 9개 품목의 2020년 5월 17일 까지 누적 판매금액은 오프라인 7% 감소, 온라인 14% 증가
-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의 신제품 출시와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 증가, 정부정책이 내수시장을 견인
- 2019년 판매량이 대폭 증가한 건조기와 공기청정기는 보급률 증가에 따라 판매량 감소

□ 수출은 전 세계적인 수요감소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

- 2020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7.9%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020년 1분기 수출은 안정적인 수요 여건을 유지하면서 음향기기, 냉장고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수준을 유지
-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가전 수요와 생산이 급감하면서 4~5월 수출이 대폭 감소
- 전년 동기비 수출 증가율(%): 2020.4월 -32.1% → 5월 -37.0%
- OLED TV, 청정가전 등 일부 가전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수요 증가로 수출에 다소 긍정적
- 코로나 19로 가정 내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유럽, 일본 등에서 OLED TV 수요 증가, 청정가전은 5월 누적 수출액 35.9% 증가³⁾

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6.1.), 청정가전은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의류관리기(스타일러)로 구성

- 그러나 OLED TV와 청정가전의 수출 비중이 낮아 효과는 낮음.

□ 생산은 해외생산 확대와 내수 감소로 감소세 지속

- 2020년 상반기 생산은 전년동기비 5.6%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소폭 감소에 머물렀으나, 수출급감으로 상반기 생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해외생산 확대는 지속적으로 국내생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가성비를 갖춘 중국 글로벌 가전기업의 세계시장 영향력 확대로 국내기업은 경쟁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해외생산 확대 지속

□ 수입은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감소세 심화

- 2020년 상반기 수입은 전년 동기비 6.9%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내수감소는 제한적이었으나 해외생산 차질과 공급망 어려움으로 수입 감소세 심화
- 연초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와 중국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5월부터 회복세에 접어드는 추세
 -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4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본격화
- 미국과 일본 수입은 통상마찰 등으로 연초부터 감소세가 지속
 - 미국 수입은 TV와 조명기기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일본 수입도 통상마찰 영향으로 대폭 감소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코로나 19 여파로 주요 수출국의 수요와 생산이 위축

-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상반기 수요 위축에 비해 국내 수출이 적은 감소폭을 나타냈고, 하반기 수요회복 기대
- 일본은 도쿄올림픽 연기와 코로나 19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최근 한일 무역갈등으로 하반기 수출 감소 우려
-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은 국내기업 주요 생산거점으로 부품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반기 수출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분기부터 회복에 접어드는 추세

○ 2분기부터 주요국 경제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있으나, 실직과 소득감소로 수요회복은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내수진작을 위한 대규모 정책지원을 추진하면서 하반기 수요회복이 기대되나, 세계시장과 주요국 시장이 모두 역성장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큼.
-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가전시장은 전년비 3.9% 감소, 미국 가전시장은 전년비 7.0% 감소 전망

○ 국내기업이 주도권을 보유한 OLED TV 신제품과 청정가전의 수요 확대는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 요인

〈표 2-52〉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수출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미국	37.0	☝	☹	- 국내 기업이 가전 브랜드 1위, 2위이며 중국과 미국 글로벌 기업과 경쟁 상황 지속 - 세이프가드로 세탁기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 중이나 프리미엄 냉장고, 음향기기 수출은 증가 - 코로나 19로 4~5월 오프라인 매장이 폐쇄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나,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
일본	8.0	☝	☹	- 일본 현지 브랜드 파워가 강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나, 최근 OLED TV를 중심으로 국내 프리미엄 제품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 - 코로나 19 및 올림픽 연기에 따라 수요가 둔화하였고 최근 한-일 무역갈등으로 수출 감소 우려 증가
중국	7.1	☝	☹	- 중국 브랜드 기업의 성장으로 국내 완제품 수출은 매우 제한적이며, 코로나 19에 따른 생산차질로 상반기 부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코로나 19가 진정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수요진작 정책으로 하반기 수요반등 기대
베트남	4.6	☹	☼	-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가전 수요는 성장세를 유지 - 전 세계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상반기 영상음향기기 부품 등 국내 수출이 크게 감소
멕시코	4.0	☝	☹	- 코로나 19로 가전수요는 감소세,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감소로 상반기 국내 냉장고 부품, TV 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
UAE	3.2	☼	☹	- 코로나 19 및 유가하락 영향으로 상반기 수요는 감소, 그러나 생활패턴 변화와 청정가전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수출은 전년비 큰 폭으로 증가
기타	36.1	☼	☹	- 코로나 19로 유럽시장은 감소세를 보이나, 가전 보급률이 낮은 아프리카 시장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
합계	100.0	☼	☹	- 코로나 19로 전 세계 가전 수요와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 코로나 19가 진정되고 각국 정부의 수요진작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수요는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53〉 가전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지출	☹
	-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생산국의 경제성장	☺
	- 세계 가전시장 규모	☹
	- OLED TV, 청정가전 등 신제품 수요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 국내기업 세계 TV 시장점유율	☺
	- 국내기업 생활가전 시장점유율	☺
	-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
제품 단가	- 세계 가전 평균가격	☹
	- 국내 가전 수출단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자 인식 및 생활패턴 변화로 프리미엄 TV와 청정가전(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의류관리기, 건조기 등) 수요는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

- 다만, OLED TV는 패널 공급 부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며 최근 국내 생산량이 더욱 줄면서 생산과 수출에 끼치는 영향이 낮음.

□ 국내 여건 변화

○ 코로나 19 사태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비지출 여건도 부정적이나, 정부 지원정책이 부정적 여건을 일부 상쇄

- 코로나 19 사태로 오프라인 판매감소가 집중된 3~4월에도 내수감소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기하락 및 소득감소로 하반기 소비지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 내구재 소비지출 지수(CSI): 2019.5월 95 → 2020.5월 83
- 다만,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과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책이 하반기 민간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2020년 국내 가전 시장은 역성장이 예상되나 4월부터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내수 회복 기대
 - 시장조사기관 Statista는 2020년 국내 가전시장이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
- 주요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로 2020년에도 국내 생산여건은 부정적
 - 생산비 절감과 해외시장 진출 대응을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확대는 국내생산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A사는 2020년 3월까지 광주 세탁기 공장을 태국으로 이전
 - B사는 2020년 연말까지 구미 TV 공장 일부를 인도네시아 이전
- 스마트가전, 스마트홈과 같은 가전 신시장도 코로나 19로 성장세가 둔화하나, 기존 가전시장이 역성장세를 보인 것과 달리 성장세를 유지
 - 스마트가전, 스마트스피커 등 내수 신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우위를 보이면서 생산과 내수에 긍정적 영향
 - 다만, 스마트가전의 시장규모가 작고 스마트홈은 서비스 매출액의 비중이 높아 가전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 2020년 하반기에도 국내공장 해외이전으로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코로나 사태와 경기 위축으로 설비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2-54〉 가전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국내 경제성장 및 소비지출	☹
	정부정책을 통한 소비진작	☺
	가전 신제품 수요	☺
국내 생산능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공장의 해외이전	☹
국산 제품의 경쟁력	국내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	☺
	국내 스마트홈 신분야에서 국내기업 매출	☺
수입제품의 경쟁력	가성비를 갖춘 중국 브랜드 제품의 내수영향력	☹
	국내기업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55〉 가전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기존설비 확장, 연구개발			
투자수요 특성	- 설비효율 증대, 생산능력 향상, 유지보수			
원인	- 내수위축 및 수출성장 정체로 국내생산은 지속적인 감소세,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설비투자 수요는 기존설비의 효율 개선과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신속한 신제품 양산 지원에 초점이 있고 신규설비 도입과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짐. - B사는 2020년 연내 국내 TV 생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생산을 더욱 확대할 계획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최근에도 국내 주요 기업의 국내공장 해외이전이 발표된 바 있고, 이는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업종별 특징적인 여건변화

-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생산 감소는 생산과 수출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 부진, 세계 가전시장 역성장은 내수와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신가전(건조기,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등)과 스마트가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체 수급구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
- 국내생산 비중이 높은 중견 생활가전 브랜드 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노력이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

〈표 2-56〉 가전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 신가전 수요 증가	- 경제성장 부진 - 부정적 소비지출 전망 - 코로나 19 재유행 우려	부정적 여건이 다소 심화
수출	- 국내기업 점유율 증가 - 청정가전 수요 증가 - 프리미엄 가전 수요 증가	- 세계 경제성장 부진 - 세계 가전시장 역성장 - 국내생산 감소 - 무역갈등(한-일, 한-미)	부정적 여건이 매우 심화
생산	- 글로벌 공급망 어려움에 따른 국내 대체생산 증가 및 수입 감소	- 해외생산 확대 - 국내 설비투자 감소 - 국내 수출 감소	부정적 여건 유지
수입	-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역수입 증가 - 경쟁국 제품경쟁력 개선	- 글로벌 공급망 차질 - 해외공장 가동 중단 - 국내기업 브랜드 우위	부정적 여건 심화

2) 2020년 전망

□ 내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하락으로 다소 부진

○ 2020년 내수는 전년비 1.3% 감소 전망

○ (증가요인) 가전 신제품 수요증가와 정부정책을 통한 소비촉진

- OLED TV, 식기세척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국내 가전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정부정책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전 소비지출 감소를 상쇄하면서 내수 감소 완화

○ (감소요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하락과 소비심리 위축

- 2020년 상반기 가전 내수시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 감소가 제한적이었으나 소득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하반기 내수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세계 수요감소와 해외생산 확대로 부진 심화

○ 2020년 수출은 전년비 14.2% 감소 전망

○ (증가요인) 국내기업 경쟁우위 강화와 신가전 수요 확대

- 코로나 사태로 해외생산 차질이 발생한 반면, 국내는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가전의 수출단가지수도 소폭 상승세

- 청정가전, OLED TV 등 가전 신제품의 해외수요 증가는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나 수출비중이 작아 영향력은 낮음.

〈표 2-57〉 가전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멕시코	전체
상반기 추정	-12	-19	-18	-17	-28	-17.9
하반기 전망	-8	-10	-6	-5	-10	-10.3

- (감소요인) 코로나로 인한 수출국 시장수요 감소와 해외생산 확대
 - 가전산업 세계 수요와 생산이 모두 위축되면서 선진국(완제품)과 신흥국(부품) 모두에서 상반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2분기 이후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수요회복이 예상되나 소득감소와 실직 등으로 단기 반등은 한계가 있을 것
 - 국내 주요기업 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내생산 감소는 지속적인 수출 감소요인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대형세탁기 셰이프가드)와 최근 한일 무역갈등도 하반기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생산은 수출 감소와 해외생산 확대로 감소세 지속
- 2020년 생산은 전년비 3.9% 감소 전망
- (증가요인) 글로벌 공급망 단절로 인한 수입 감소
 -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단절로 수입이 감소한 반면, 내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생산에 긍정적 영향
 - 해외공장 가동중단으로 국내 대체생산 수요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동시에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긍정적 효과는 미미한 편임.

○ (감소요인) 국내공장의 지속적인 해외이전과 수출 감소

- 국내 가전기업은 경쟁력 제고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 해외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도 국내공장 일부가 해외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내 생산은 더욱 감소
- 큰 폭의 수출 감소로 생산도 감소세를 보이거나, 높은 내수비중으로 인해 수출 대비 생산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수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감소세 심화

○ 2020년 수입은 전년비 5.8% 감소 전망

○ (증가요인) 해외생산 확대로 역수입이 증가하고 중국 글로벌 가전 브랜드의 영향력이 확대

- 하이얼(대형 생활가전), TCL(TV), 샤오미(중소형가전) 등 중국 주요 기

〈표 2-58〉 가전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단위: 10억 원,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27,574 (-4.1)	13,230 (-0.9)	13,599 (-4.4)	26,829 (-2.7)	12,492 (-5.6)	13,291 (-2.3)	25,783 (-3.9)
수입	7,934 (4.7)	4,259 (8.0)	4,020 (-4.1)	8,279 (2.3)	4,186 (-1.7)	3,892 (-3.2)	8,078 (-2.4)
내수	27,466 (4.7)	13,438 (0.8)	13,565 (-4.1)	27,003 (-1.7)	13,167 (-2.0)	13,497 (-0.5)	26,664 (-1.3)
수출	7,826 (-20.6)	4,051 (2.0)	4,053 (2.3)	8,104 (2.2)	3,512 (-13.3)	3,686 (-9.1)	7,198 (-11.2)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2-59〉 가전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입	7,119 (7.7)	3,716 (1.3)	3,394 (-1.7)	7,110 (-0.1)	3,450 (-6.9)	3,241 (-4.5)	6,701 (-5.8)
수출	7,216 (-18.3)	3,535 (-4.3)	3,422 (-2.9)	6,957 (-3.6)	2,902 (-17.9)	3,069 (-10.3)	5,972 (-14.2)

주: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역수입(국내기업의 해외공장과 해외위탁생산) 증가는 수입 증가 주요 요인

○ (감소요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단절과 내수 둔화

- 2019년 하반기부터 내수성장이 둔화하면서 가전 수입은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단절로 중국, 베트남 등의 수입이 감소하여 2020년에는 수입 감소세 심화
- 코로나 19 발생으로 국내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한 반면, 국내기업이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가전 신제품을 활발하게 출시한 것도 수입감소 요인

9. 정보통신기기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내수는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로 감소

○ 2020년 상반기 내수는 5G 서비스와 윈도10 교체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전년 동기비 1.4% 감소 추정

○ 통신기기 시장은 스마트폰 신제품(폴더블폰, 5G 프리미엄폰) 출시와 5G 장비 수입수요가 증가했지만, 코로나 19 확산과 5G 단말 보조금 축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진

- 2분기 들어 다양한 신규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와 온라인 구매 확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

○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시장은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노트북PC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5월 이후 윈도10 교체수요와 업그레이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

- 1분기 공공부문의 교체수요와 온라인 개학, 비대면 생활 확대 등이 PC 수요를 견인했으나, PC방 수요급감, 중국내 일부 PC·주변기기 부품의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지연 등으로 부정적 영향

□ 수출은 스마트폰이 크게 부진했지만 SSD 호조에 힘입어 증가

○ 2020년 상반기 수출은 코로나 19 팬데믹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스마트폰 수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SSD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

년 동기비 17.1%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상반기 큰 폭의 수출증가에는 전년동기 큰 폭의 수출감소(-28.0%)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

○ 통신기기 수출은 2분기 미국, 유럽 등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스마트폰의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동기비 약 13% 감소한 것으로 추정

- 폴더블폰 시장에서 호조를 보였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처에서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수요감소가 수출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주요국 입국제한, 이동제한 조치와 마케팅 제약, 오프라인 매장 폐쇄, 유럽 등 주요국의 5G 상용화 지연, 대형 IT전시회 취소 등

- 지속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및 중국 ODM(중저가폰) 생산, 부품의 현지조달 확대도 수출확대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수요위축과 일부 공급망 제약으로 PC 수출이 감소했지만, 비대면 수요확대에 따른 기업용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비 70% 내외의 큰 폭 증가 추정

- 특히 데이터센터의 SSD 수출이 급증했는데 이는 비대면 채널(재택근무, 온라인교육·쇼핑 등) 확산으로 초고용량 SSD 수요가 증가하고 낸드플래시의 단가 하락세 반등에 기인

□ 생산은 스마트폰, PC 등이 부진했지만 SSD 수출호조로 증가

○ 2020년 상반기 생산은 스마트폰과 PC 생산이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감소했지만 SSD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비 6.1% 증가 추정

- 통신기기 생산은 신규 프리미엄폰(고급형 5G폰, 폴더블폰) 출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등에 따른 수요위축과 스마트폰(부품 포함)의 해외생산 확대 지속으로 감소
- 국내 컴퓨터·주변기기의 경우, PC 생산이 교체수요 부진과 일부 중국 내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

□ 수입은 전년 수준에서 보합세 전망

- 2020년 상반기 수입은 휴대폰부품과 PC부문이 감소한 반면 휴대폰과 5G 통신장비, SSD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비 1.6% 증가 추정
- 통신기기는 외산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국내 5G망 구축 확대로 스마트폰 및 5G장비 수입이 증가했지만 휴대폰부품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
 -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중국내 생산차질로 외산(애플)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되었지만, 5월에 출시되면서 국산휴대폰의 역수입과 함께 휴대폰 수입이 증가
- 컴퓨터·주변기기 수입은 데스크탑PC, 모니터, 프린터 등의 수요가 부진했지만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개학 등으로 휴대형PC와 SSD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2020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출하량 기준)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수요감소의 영향으로 13.7% 감소할 것으로 전망(가트너, 2020.5)

-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에서 신규 폴더블폰과 고급형 5G폰 수요가 증가했지만, 2분기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장수요가 크게 감소

• 코로나 19 확산으로 주요국에서 이동제한 및 비대면 조치, 유통망 제약, 소매점 폐쇄로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마케팅이 제약

- 중국은 2분기 들어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내 브랜드의 중국내 입지가 낮은 상황

• 중국 내에서 국내업체들의 스마트폰 생산(2019년 삼성은 모두 철수)이 크게 축소되면서 대중국 부품 수출수요도 감소

- 베트남은 국내 휴대폰의 최대 생산지로 1분기 일부 코로나 19 영향이 있었지만 안정되었으며, 세계 수요감소로 국내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

○ 세계 PC시장은 2020년 시장포화와 특히 코로나 19 영향으로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카날리스, 2020.6)

- 세계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산으로 휴대형 PC 수요 증가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소득감소 등으로 교체수요가 부진할 전망

- 그러나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초고용량 SSD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 세계 정보통신기기 시장은 당초 글로벌 5G 상용화,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시장수요 감소가 전망
- 비대면·온라인(재택근무, 원격 교육·쇼핑 등) 서비스 활성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하반기 코로나 19 장기화 시 주요국에서의 이동제한, 유통망 단절 등이 초래되며 수요에 부정적 영향 전망
- 세계 SSD시장은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2020년 출하량(18.6%)

〈표 2-60〉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미국	28.0	☆☆	☆	- 코로나 19 영향으로 스마트폰 시장수요 감소, 하반기 감소세 완화(5G폰, 폴더블폰 수요) 전망 - 비대면산업 확대로 SSD(데이터센터) 수요 큰폭 증가
중국	26.0	☆☆	☆	- 2분기 코로나 19 안정화로 스마트폰 수요 회복세 - 중국내 국내업체 휴대폰 생산 축소 및 경쟁업체 생산차질로 부품수요 감소 - 초고용량 SSD(데이터센터) 수요가 큰폭 증가
베트남	14.0	☆	●	- 휴대폰부품은 1분기 확대(31%) → 2분기 감소 전환 - 프리미엄폰 수출 증가: 국내 대체생산 추정 - 컴퓨터 수출비중(약 1%)은 낮음
EU	10.0	☆☆	☆	- 4월까지 5G폰·폴더블폰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2분기 수요 감소(이동제한, 소매점 폐쇄 등) - SSD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
합계	100	☆☆	☆	-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하나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과 매출액(25.7%)이 크게 증가할 전망(IITP, 2020.3)인 가운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성장세가 예상

- 한·중·미 3강 경쟁구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다양한 보급형 제품이 출시되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5G 장비 시장에서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하반기 코로나 19 영향 지속 시, 중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경쟁업체가 제품 생산 및 공급망 차질을 겪을 경우 중국내 생산비중이 낮은 국내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상존
- 국내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해외생산(90% 이상 비중) 규모는 상반기에 글로벌 수요축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 등으로 감소하지만 하반기에

〈표 2-61〉 정보통신기기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 스마트폰 및 PC 수요는 주요국의 이동제한 조치, 소득감소 등으로 부진할 전망 - 하반기에도 코로나 19 영향 지속 시, 5G 투자가 지연되면서 수요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	☂
	- 디지털기반 비대면 확산으로 SSD 채용 가속화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 중국 5G폰(세계 2위), 5G장비(1위) 경쟁심화 전망 - 하반기 중국내 코로나 지속 시 생산·공급망 차질로 국내 반사이익 가능성 상존	☁☁
	- 미국 5G폰 신규 출시로 하반기 한·미 경쟁 심화	☁☁
	- SSD시장에서 한국이 1위이나, 한·미·일 경쟁구도 - 중국도 고사양 SSD를 공개하며 시장 진출(19.4)	☀
제품 단가	- 보급형 폰과 프리미엄폰(폴더블폰 등) 등 시장 양극화 확대	☁
	- 낸드플래시 단가 반등, 고용량화로 SSD 단가상승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코로나 19 영향이 안정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상반기 국내 휴대폰의 생산거점인 베트남(약 70%)과 인도(약 16%), 중국(6%), 인도네시아(3.6%), 브라질 등에서 모두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국내 휴대폰의 중국내 생산 비중이 크게 낮아진 한편, 2019년 삼성이 중국에서 철수한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중국내 생산감소 폭은 클 전망
- PC부문은 중국내 생산 및 공급차질, 수요위축 등으로 중국 등 해외생산 거점에서의 생산이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소폭 개선이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여건 변화

- 코로나 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5G망 구축 투자와 신규 보급형 제품 출시 확대는 국내 산업 및 시장 확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하반기 미국 및 중국 업체들의 신규 5G폰과 가성비가 높은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가 전망되지만, 국내 시장에서 국산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국내 5G 인프라 투자 확대는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산업은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는 연구개발, 해외에서 생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

〈표 2-62〉 정보통신기기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 5G 전국서비스 및 고도화 투자 확대	☆
	- 하반기 국내외 신규 보급형·고급형 스마트폰 출시	☆
	- 단말 보조금 축소, 코로나 19 등 소비심리 저하	●
	-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	○
국내 생산능력	- 휴대폰, PC 해외생산 및 부품의 현지조달 확대	●
	- 코로나 19 팬데믹화로 국내 대체생산 가능성	○
국산 제품의 경쟁력	- 스마트폰(폴더블폰, 5G폰) 신제품 출시 확대	☆
	- 국내 5G 장비시장에서 국산제품의 경쟁력 제고	○
	- 세계 최고 수준의 SSD 개발 역량과 경쟁력	☆
수입제품의 경쟁력	- 미국기업의 5G 스마트폰 출시	●
	- 중국기업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본격 진출	●
	- 외산 5G 장비 경쟁력 강화	●
	- 중국의 기업용 SSD 시장 진출 확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63〉 정보통신기기산업을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연구개발, 합리화, 설비확장			
투자수요 특성	- 설비효율 증대 위한 개체, 신제품 생산, 유지보수 등			
원인	- SSD 및 5G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휴대폰의 해외생산 및 ODM 확대,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수요 감소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는 둔화될 전망 • LG전자는 국내 휴대폰 생산을 중단('19.10)하고 해외로 이전 •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세계 수요 감소로 투자 위축 컴퓨터의 경우, 세계 비대면산업 성장에 따른 SSD 수출 호조가 투자 증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5G 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투자 확대도 긍정적 요인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비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표 2-64〉 정보통신기기산업의 2020년 하반기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코로나 19 사태 안정화 - 5G 서비스 및 신제품 출시 확대 -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산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휴대폰·PC 교체주기 연장	코로나 19 안정화와 5G 서비스 확대로 개선 기대
수출	- 신제품(폴더블폰, 5G폰 등) 출시 확대 - 비대면 서비스(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 글로벌 5G 투자 강화 - SSD(낸드플래시) 단가회복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 및 수요 감소 - 세계 5G 상용화 지연 - 해외생산 확대 지속 - 중국과 경쟁 확대	세계 시장수요 회복과 SSD 수요에 힘입어 수출증가세 지속
생산	- 수출개선, 내수 회복 - 신제품 출시 확대 - 생산의 탈중국화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조달 비중 확대	- 해외생산 및 현지 부품조달 확대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제약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지속 증가
수입	- 5G망 구축 확대 - 외산 신제품 출시 - 국내 제품 역수입 증가	- 소비심리 위축 - 코로나 장기화로 글로벌 기업 신제품 출시 지연	5G 투자 및 신제품 수요로 증가

- 국내투자는 기존설비의 효율 증대 및 신규 프리미엄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수준
- 하반기에는 5G 투자와 SSD 생산을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설비 투자가 증가할 전망

2) 2020년 하반기 전망

□ 내수는 코로나 19 안정화와 5G 서비스 확산으로 소폭 증가

○ 2020년 하반기 내수는 코로나 19 사태 안정화와 5G 서비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2.1%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0.4% 증가 예상

- (증가요인) 코로나 19 영향 축소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국내외 업체들의 신규 5G폰 및 폴더블폰 출시가 수요회복에 긍정적 작용 전망
 - 국내 PC시장은 포화상태로 부진이 전망되나, 코로나 안정화와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휴대형PC와 PC방 활성화 등에 따른 게이밍 PC 및 업그레이드 수요로 부진완화가 예상
- (감소요인) 하반기에도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득감소 및 구매심리 저하 지속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가성비 높은 신규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PC 및 스마트폰의 교체주기 증가, 단말 보조금 축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수출은 스마트폰 개선과 SSD 수요확대 지속으로 증가
 - 2020년 하반기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개선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SSD 수요확대, 기저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비 5.5%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0.8% 증가 전망
 - 그러나 하반기 주요국에서의 코로나 19 재확산, 미·중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증가요인)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SSD 수요와 국내업체들의 신규 5G폰 및 폴더블폰이 수출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데이터센터의 SSD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플래시메모리 단가가 안정되면서 경쟁력 높은 국내 SSD가 하반기 수출을 견인할 전망

〈표 2-65〉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중국	베트남	EU	전체
상반기 추정	29.0	21.0	12.0	10.0	17.1
하반기 전망	11.0	7.0	1.5	5.0	5.5

- SSD 주요 수출시장은 2019년 기준 미국이 30.8%로 비중이 가장 크며, 중국(28.8%), 홍콩(11.7%), EU(14.2%) 등의 순
- 하반기에 코로나 19 안정화 시 미국 등 주요국의 5G 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되고 미루어왔던 스마트폰 소비가 급증할 가능성도 상존
- (감소요인) 국내 스마트폰 및 PC의 해외생산 확대와 현지 부품조달 증대, 중국과 경쟁심화는 수출증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운데 국내업체의 중국 ODM 생산 확대 전망은 국내 휴대폰부품 수출확대에 소폭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SSD 시장에서 중국 등 후발주자의 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쟁 확대는 수출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생산은 SSD 수출호조에 힘입어 증가 지속
- 2020년 하반기 생산은 SSD 수출호조세 지속과 스마트폰 수출 및 내수개선으로 전년 동기비 4.3%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5.2% 증가 예상
- (증가요인)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생산도 스마트폰 및 PC의 국내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SSD 수출호조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19 안정화로 세계 스마트폰 수요감소가 개선되고 베트남 등 해외생산 거점에서의 부품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도 개선될 전망
- (감소요인) 국내 스마트폰 및 PC의 해외생산과 부품의 현지조달 확대는 국내 생산 및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 전망
- 하반기에 코로나 19의 영향이 지속될 경우 시장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내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수입은 5G 서비스 확산과 신제품 수요로 소폭 증가
- 2020년 하반기 수입은 상반기 흐름이 이어질 전망으로 외산 휴대폰, 5G 장비 및 SSD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비 1.9%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8% 증가할 전망
- (증가요인) 하반기 코로나 19 안정화에 따른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애플의 신규 5G 스마트폰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확산 및 관련 투자가 확대되면서 5G 장비, 휴대형PC, SSD 수입이 증가할 전망
- 국내 스마트폰의 베트남 생산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역수입도 증가 전망
- (감소요인) 국내 정보통신기기시장이 포화에 이른 가운데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소득감소,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은 수입감소 요인으로 작용 전망

〈표 2-66〉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단위: 10억 원,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53,259 (-5.1)	23,553 (-14.4)	24,306 (-5.6)	47,859 (-10.1)	24,992 (6.1)	25,342 (4.3)	50,334 (5.2)
수입	29,130 (-7.9)	14,539 (3.9)	16,238 (7.2)	30,777 (5.7)	15,590 (7.2)	17,004 (4.7)	32,594 (2.9)
내수	51,110 (0.4)	25,977 (1.0)	25,849 (1.8)	51,826 (1.4)	25,616 (-1.4)	26,402 (2.1)	52,018 (0.4)
수출	31,279 (-15.1)	12,116 (-23.3)	14,694 (-5.2)	26,810 (-14.3)	14,967 (23.5)	15,944 (8.5)	30,911 (15.3)

주: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2-67〉 정보통신기기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입	26,475 (-3.2)	12,680 (-2.5)	13,889 (3.1)	26,569 (0.4)	12,885 (1.6)	14,153 (1.9)	27,038 (1.8)
수출	28,428 (-10.8)	10,567 (-28.0)	12,577 (-8.6)	23,144 (-18.6)	12,369 (17.1)	13,272 (5.5)	25,641 (10.8)

주: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10. 반도체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내수는 국내 수요산업의 호조로 증가

○ 2020년 상반기 내수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관련 전자기기 수요가 확대하여 증가

- 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을 비롯하여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

- 컴퓨터, 태블릿 PC 등 온라인 접속에 필요한 전자기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수요도 증가

○ SSD 수출 증가가 내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

-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는 컴퓨터(SSD)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내수도 증가

□ 수출은 세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감소

○ 2020년 상반기 수출은 중국의 생산 차질과 선진국의 전자기기 수요 감소로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우리 수출도 감소

-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서 1/4분기 전자기기 생산공장의 가동이 일부 중지되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이 일부 감소

- 중국 공장 가동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대비하여 재고를

비축함에 따라 우리 수출 감소 폭이 크지 않았으나, 세계 전자기기 최대 수요국인 미국, EU 등에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우리 반도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 메모리반도체 단가의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수요가 정체되고 있어 수출이 소폭 감소

□ 생산은 생산설비 확장 및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

○ 2020년 상반기 생산은 차질없이 순조롭게 증가

- 최근 서버 수요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5G 통신의 본격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0년 상반기 생산 증가를 위한 투자가 진행 중
-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 예정대로 생산은 증가세

○ 수출 향상과 미세공정 전환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생산은 증가세 유지

- 우리 기업의 주력제품인 메모리반도체는 수출 향상과 빠른 미세공정 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우리 기업은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진행하여 생산 증가세 유지

□ 수입은 국내 수요산업 위축으로 감소

○ 2020년 상반기 수입은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수요산업 위축으로 소폭 감소

- 국내 생산 반도체의 대부분은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이 어려운 시스템반도체 수입이 반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

차를 비롯하여 국내 수요산업이 위축되어 반도체 수입이 감소

- 수입되는 반도체 대부분이 특수 목적용 반도체로 관련 산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 감소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하여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

- 2016년과 2017년 반도체 호황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과 수요 시장 부진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
 - 서버수요 증가, 5G 통신의 본격 도입, 신산업 발달 등으로 2020년부터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
 - 우리의 최대 반도체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코로나 19가 진정되어 산업이 회복되고 있으나 반도체 수요 회복은 둔화
 - 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최대 전자기기 수요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코로나 19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중 무역마찰 심화, 미국의 시위 등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의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
-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변동이 없으나 수요산업의 세계적인 부진으로 인하여 반도체 수출 회복은 불투명

〈표 2-68〉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39.7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전자기기 생산공장에서 내·외수용으로 반도체를 소비 - 코로나 19 영향으로 중국 전자기기 내수가 감소하여 상반기 수요 감소 - 세계 전자기기 최대 수요처인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코로나 19 영향을 받고 있어 전자기기 생산이 감소하고 반도체 수요도 감소 - 하반기 미국과 유럽의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단,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하여 세계경기가 둔화하면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홍콩	23.7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은 중개 무역지로 수입되는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혹은 제3국으로 재수출 - 하반기에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다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최근 홍콩 사태로 인하여 반도체 중개무역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농후
베트남	11.4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 이동을 비롯하여 전자기기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대베트남 반도체 수출이 증가 - 코로나 19 영향으로 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하며 반도체 수요도 감소 -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반도체 수출이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
미국	6.3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대미 반도체 수출이 증가 - 미국 지자체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대미 수출은 가전제품 및 개인용 전자기기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
기타	18.7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의 반도체 수요 개별 비중은 크지 않음. - 나머지 국가들의 반도체 수요는 세계경기 변동과 유사한 움직임

(계속)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합계	1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의 전자기기를 생산하면서 반도체를 소비 - 또한, 홍콩은 중국과 제3국으로 재수출을 위한 수요가 발생 이러한 중화권의 수요는 코로나 19 진정 이후 수요가 가파른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미국 국내 사태로 인하여 수요 회복이 늦어지면 중화권 수출도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의 세계 위상은 견고하게 유지
 -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가 예정보다 빠르게 도래하며, 이에 필요한 컴퓨터, 휴대용 단말기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수요가 늘어나며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수요 감소로 인하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전체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감소추세로 수출회복이 불투명
-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수요가 소폭 감소
- 코로나 19 영향으로 중국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감소
 - 중국에 코로나 19가 확산한 시기에는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일부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공장 재가동 이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를 비축하였기 때문에 감소 폭은 제한적

-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반도체 수요산업 내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수요는 감소
 -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스마트폰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여 관련 제품과 서버 수요는 증가
 -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말 전망에서는 반도체를 소비하는 모든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었으나 스마트폰 분야는 감소한 반면, 서버 등 분야는 예정보다 가파르게 증가
 - 스마트폰 분야에서 축소된 수요가 서버 등에서 보충되었으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 메모리반도체 단가는 안정세로 전환하였으나 기존 전망대비 낮은 수준
 -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D램의 단가 하락세가 둔화하여 안정되고 있으나 지난 호황기 대비 여전히 절반 수준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가 단가 상승을 저지

〈표 2-69〉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중국의 전자기기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	☹
	미국, EU 등 선진국의 소비 심리 악화로 전자기기 수요 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반도체 수요 감소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경쟁 관계 변동 없음.	☺
제품 단가	국내 기업의 대표품목 제품 단가는 안정세로 전환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낸드플래시 단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였고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호황기 수준을 거의 회복

□ 국내 여건변화

- 반도체산업은 국내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우리 기업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반도체는 수율 향상과 미세화 전환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경쟁우위를 유지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 중
 - 반도체산업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올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외부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향후 반도체 수요는 확대될 것이므로 예정된 설비투자는 착실하게 진행 중
 - 코로나 19 확산 이전 올해 초부터 반도체 호황이 예견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반도체 경기 회복이 둔화

〈표 2-70〉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자동차를 비롯한 시스템반도체 수요산업 부진	☹☹
국내 생산능력	수요산업 부진 및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속해서 생산능력 확충	☺
국산 제품의 경쟁력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의 경쟁력 유지	☺
수입제품의 경쟁력	반도체 수입제품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여전히 국내 기술이 열악한 상황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71〉 반도체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신규설비 도입, 설비능력 확충, 연구개발 등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 등			

-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로나 이후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도 설비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가 변화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강화 전망

○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발표와 함께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뒤처진 반도체 제조 기술확보를 위하여 반도체 선진 해외 기업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견제로 인해 대부분 무산
-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었고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지연
- 미국의 대표적인 제재 대상인 화웨이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으나 계열사인 HiSilicon에서 설계 후 대만의 TSMC를 통해 반도체를 공급

-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상무부가 더욱 강화된 제재 방안을 발표하면서 화웨이는 더는 자기 주도로 생산하는 반도체를 외부로부터 조달받을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중국 자국 기업을 통해 반도체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표 2-72〉 반도체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SSD 수출 증가 - 5G 통신 확대 - 신산업 발달	- 자동차를 비롯한 시스템반도체 수요산업 부진 -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비 심리 악화	수요산업의 증감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내수는 증가
수출	-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서버 등 수요 증가 - 전자기기에서 채용하는 메모리반도체 용량 증가 - 메모리반도체 단가 안정	- 코로나 19 영향으로 세계 스마트폰 매출 감소 - 미국, EU 등 전자기기 주요 소비국의 소비 심리 악화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전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수출 증가 폭 축소
생산	- 수출 향상 및 미세공정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 - 생산 설비투자가 차질없이 진행 중	- 수요가 애초 예상보다 저조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지만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생산은 점진적으로 확대 중
수입	- 제조 공정상 수입 증가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특수목적용 시스템반도체 수요 감소	국내 소비 심리 악화로 인해 수입에 의존하는 시스템반도체 채용 전자기기 수요 감소로 수입 감소

2) 2020년 전망

□ 내수는 일부 수요산업의 수출 확대로 호조

○ 2020년 내수는 수요산업의 증감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

○ (증가요인) 주요 요인 서술

- 반도체를 주요 부품으로 사용하는 SSD 수출이 증가하여 낸드플래시 내수가 증가

- 5G 통신 확대로 인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와 서버 수요 증가로 내수 증가

- IoT,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Cloud, Big Data 등은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 (감소요인) 주요 요인 서술

- 자동차를 비롯하여 일부 수요산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반도체 수요도 감소

- 코로나 19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한 전자기기 수요 감소

□ 수출은 지난해보다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증가요인) 주요 요인 서술

- 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등이 증가하였고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비대

면 사회로 전환이 진행되어 이와 관련된 서버 수요가 증가

-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전자기기에 채용되는 반도체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증가 추세
- IoT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 수요도 증가
-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5G 통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장비, 서버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

○ (감소요인) 주요 요인 서술

- 스마트폰을 비롯한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매출 감소로 인하여 반도체 수출이 감소
- 코로나 19 초기에는 중국의 생산공장 가동 중지로 인하여 일부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과 EU 등 전자기기 주요 소비시장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표 2-73〉 반도체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중국	홍콩	베트남	미국	기타	전체
상반기 추정	-6.5	-6.1	-7.3	20.4	-3.5	-4.1
하반기 전망	7.2	6.3	7.1	9.9	4.3	2.0

□ 생산은 외부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점진적으로 증가

○ (증가요인) 주요 요인 서술

- 2020년부터 반도체 수요가 다시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계획한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
- 우리 기업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반도체는 수율 향상과 미세공정 전환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 중

○ (감소요인) 주요 요인 서술

- 코로나 19 영향으로 반도체 일부 수요산업이 부진상태이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일시적인 생산 조정은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은 지속해서 증가 전망

□ 수입은 시스템반도체 수요산업 부진으로 소폭 감소 전망

○ (증가요인) 주요 요인 서술

- 반도체는 제조 공정상 웨이퍼 단계의 수입도 반도체 수입으로 계상되므로 전체 생산이 늘어나면 수입도 증가

○ (감소요인) 주요 요인 서술

-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대부분 수출되고 있으며, 수입제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특수목적용 시스템반도체인데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반도체 수입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2-74〉 반도체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단위: 10억 원,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140,962 (26.4)	56,001 (-19.2)	56,225 (-21.5)	112,256 (-20.4)	61,622 (10.0)	62,463 (11.1)	124,085 (10.5)
수입	49,221 (6.0)	24,545 (8.0)	24,441 (-7.9)	48,986 (-0.6)	27,861 (13.5)	28,160 (15.2)	56,021 (14.4)
내수	50,796 (7.2)	28,609 (13.7)	29,891 (16.6)	58,499 (15.2)	33,360 (16.6)	31,240 (4.5)	64,600 (10.4)
수출	139,462 (26.3)	49,456 (-25.0)	51,645 (-29.8)	101,101 (-27.6)	56,229 (13.7)	59,267 (14.8)	115,496 (14.2)

주: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2-75〉 반도체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입	44,726 (8.6)	23,562 (11.5)	23,463 (-0.6)	47,025 (5.1)	23,026 (-2.3)	23,447 (-0.1)	46,473 (-1.2)
수출	126,726 (29.4)	47,476 (-22.5)	46,481 (-29.0)	93,957 (-25.9)	46,470 (-2.1)	49,348 (6.2)	95,818 (2.0)

주: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11. 디스플레이산업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내수는 LCD 패널 부품 수요 감소와 IT 제품 수요 감소로 축소
- 디스플레이 내수는 프리미엄 IT 제품 일부와 패널 제작용 소재·부품을 포괄하며 IT 제품 수요 감소와 패널 생산 감소로 축소
 - 스마트폰 구매는 개통 절차에서 대면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가중되어 2020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
 -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⁴⁾: 2019년 1분기 - 3억 4,100만 대, 2020년 1분기 2억 9,500만 대
 - LCD 패널 생산 축소로 인하여 소재·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짐.
- 수출은 중국 생산량 확대에 의한 가격하락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큰폭으로 하락
- 2020년 상반기 패널가격은 중국의 10.5세대 LCD라인 양산 확대에 인하여 하락 지속⁵⁾
 - 코로나 확산 초기 우한 지역 중국 LCD 생산 제약으로 인하여 LCD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LCD 가격 하락이 이어짐.

4) 카운터리서치 <https://www.counterpointresearch.com/global-smartphone-share/> (2020.06.03)

5) 옴니아 2020.03.31.

<https://technology.informa.com/622337/omdia-cuts-2020-tv-shipment-forecast-by-10-percentage-points-as-coronavirus-crisis-goes-global>

- 2020년 상반기 수요는 코로나 전세계 하락으로 인하여 주요 수요처인 TV와 스마트폰의 판매량 감소로 수출 감소
 - 주요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 유로)의 연기 및 프로스포츠 개막 지연으로 인하여 TV 수요 감소와
 - 애플을 중심으로 저가폰 제품 출시로 인하여 프리미엄 폰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스마트폰용 OLED 시장 축소
 - 비대면, 비접촉 교육 및 업무 확대로 인하여 노트북과 모니터용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요의 비중이 낮아 영향력이 제한적

□ 생산은 글로벌 수요감소와 LCD 감산으로 인하여 하락

- 2019년 상반기 생산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와 더불어 LCD 라인 폐쇄로 인하여 축소
 - 중국의 10.5세대 LCD라인 양산 능력 확대로 인하여 LCD 수익 하락이 나타났으며 국내 패널 양사는 라인 폐쇄를 추진
 - 올해 LG는 1월⁶⁾, 삼성은 3월⁷⁾에 국내 LCD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

□ 수입은 디스플레이 시장 둔화로 인하여 감소

- 디스플레이 수입은 AS를 위한 재수입 물량으로 수출량 변화에 연동하며 상반기 전체 시장 둔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짐.

6) LG 디스플레이 1월 31일 컨퍼런스콜 발표

7) 삼성 디스플레이 3월 31일 아산사업장 설명회

관련 보도 전자신문 2020.03.31. <https://m.etnews.com/20200331000351>

- 시장 둔화로 수출물량 축소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액 축소로 이어짐.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코로나 확산으로 주요 디스플레이 수요처의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요감소가 예상된다.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디스플레이 최대 수요처인 스마트폰과 TV의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디스플레이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 OLED 중심의 국내 생산 체계는 프리미엄 제품군 판매에 따라 변동하며 코로나 확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시장 축소의 영향력이 더 강함.
 - 비대면, 비접촉 확대에 따른 모니터와 노트북 수요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LCD 중심의 시장으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디스플레이산업의 비중이 적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어려움.
- 중국의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하여 중국 세트사의 국내 패널 수요 하락이 크게 나타날 것이며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 중국 10.5세대와 8.6세대의 LCD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내 중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

〈표 2-76〉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50	☞☞	☞☞	- 중국 패널사 생산 확대에 인하여 수출하락
베트남	40	☞☞	☞	- 국내 기업의 주요 모듈공장이 위치하여 국내 전자기업의 판매량 감소로 하락
기타	10	☞☞	☞☞	-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중심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축소가 나타남
합계	100	☞☞	☞☞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 수요 하락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77〉 디스플레이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스마트폰 신기종 출시	☆
	주요 스포츠 이벤트 연기 및 취소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중국 생산 능력 확대 및 양산기술 향상	●
제품 단가	대형 라인 가동 확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마더글라스 대형화에 따른 생산단가 하락으로 작년 내내 이어져 왔던 가격하락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OLED의 가격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여건 변화

○ 패널 양사의 LCD라인 축소로 인하여 생산 규모 축소

- 중국 대형 LCD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으로 인한 양사의 라인 축소가 올해 상당부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 능력이 큰 폭으로 축소

〈표 2-78〉 디스플레이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국내 생산능력	LCD라인 폐쇄	☂
국산 제품의 경쟁력	스마트폰 OLED 채택 확대	☀
	저가폰 수요 지속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로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존 계획보다 설비 투자가 앞당겨 질 것

- 삼성의 LCD에서 QD 디스플레이로의 전환을 빠르게 앞당겨 2021년 양산을 목표로 진행함으로써 설비투자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양사의 LCD라인 폐쇄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표 2-79〉 디스플레이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OLED 설비 확장			
투자수요 특성	- 제품구조 변화 가속화로 인한 설비투자 확대			
원인	- QD 디스플레이 양산 계획이 앞당겨짐에 따라서 설비투자 계획 확대가 예상됨 - 삼성이 추진 중인 QD 디스플레이 양산이 2021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 LCD 라인 폐쇄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는 감소할 것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코로나 19,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적 리스크가 산재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변화 가능성이 매우 큼
- 코로나 19의 재확산 여부 및 각국 정부 대응에 따른 TV, 스마트폰 수요의 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더불어 주요 스포츠 이벤트 취소 및 연기 등에 따른 TV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5G 보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수요 변화 가능성도 높음.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중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내 아이폰 판매량 하락으로 인하여 수출 감소로 나타날 수 있음.
 - 미중 무역분쟁에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부품 조달 문제에 따른 생산 차질은 디스플레이 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

〈표 2-80〉 디스플레이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LCD 생산 감소 - 프리미엄 제품 수요 감소	-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패널, 소재, 부품 모두 수요 부정적
수출	- OLED 스마트폰 적용확대 - 비대면 문화 확산	- 상반기 저가폰 수요 지속 - 광저우 OLED 양산시작 -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요 감소	- 세계경기 둔화와 중국 내 생산확대로 수출 수요 감소
생산		- LCD라인 폐쇄 - 패널단가 하락 - 일본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 존재	- LCD 생산 축소 및 불확실성 확대로 부정적
수입		- 수출량 감소로 인한 축소	- 세계시장 축소로 인하여 감소

-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스마트폰과 TV의 주요 시장으로 각 시장에서 브랜드 선호도 변화에 따라 패널 수요 변화가 복잡하게 나타날 것
- 일본 수출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어 조달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
- 작년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으나, 국내 기업의 일본 후방기업의 의존도가 높아 제재 확대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2) 2020년 전망

- 내수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 감소와 패널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하락
- (감소요인) 프리미엄 제품 수요 감소로 LCD 라인 축소로 인한 소재 부품 수요 감소 및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지속
 -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프리미엄 시장 축소로 OLED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광저우 8.5세대 OLED 가동으로 인하여 판매단가 하락이 예상됨.
 - LCD 생산 규모 축소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산의 여파가 후방기업으로 전이되어 내수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임.
- 수출은 글로벌 불황으로 인한 수요감소와 해외생산 확대로 인하여 큰 폭으로 감소가 지속될 것
- (증가요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노트북 및 모니터용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영향력은 미미
 - 재택근무, 비대면 학습, 원격 진료 등 비대면 사회 진입으로 인한 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노트북 및 모니터용 패널 시장이 작아 영향력은 미미

○ (감소요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불황 및 수요 감소로 인하여 주요 수요처에서 큰 폭으로 감소할 것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주요 수요처인 TV와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패널 판매량 감소도 예상됨.

- 연기된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여부 및 개최 시점에 따라 TV 판매량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패널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것

- 애플 신제품의 OLED 채택 비율이 상승함에 하였으나, 아이폰 판매량이 미중 무역갈등과 상반기 출시된 아이폰 SE2이 판매량이 양호하여 신제품 효과가 제한적일 것

○ (감소요인) 광저우 공장 양산으로 인하여 대중 수출 감소가 예상됨.

- 광저우 OLED 8.5세대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여 중국 내 TV용 OLED 수요를 담당할 것이며, OLED TV 패널 생산량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도 예상됨에 따라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

〈표 2-81〉 디스플레이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중국	베트남	전체
상반기 추정	↕↕	↕↕	↕↕
하반기 전망	↕↕	↕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생산은 수요부진과 LCD라인 축소로 인한 물량 감소와 더불어 중국내 패널생산 확대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하락 전망
- (감소요인) 글로벌 수요감소와 LCD라인 축소로 인하여 생산량 축소 전망
 - 패널 양사가 제품 구조 전환으로 인한 LCD라인 축소로 생산량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LCD용 소재·부품의 생산 축소로 이어져 작년 대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날 것
 - OLED라인 신증설은 수익성 악화에 따라 지연되고 있어 생산규모 축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
 - 삼성의 QD 디스플레이 생산은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G의 파주 10.5세대 OLED 생산은 2024년 양산을 계획 중
- (감소요인) 중국 내 신증설 라인의 양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패널가격 하락이 예상
 - BOE 10.5세대 LCD, LG 8.5세대 OLED 등 대형 마더글라스 라인의 양산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전망
- 수입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축소로 인하여 감소
- (감소요인) 글로벌 디스플레이산업 축소로 인하여 전체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AS 물량인 수입도 감소로 나타날 것
 - 수요 변화에 따라 수입물량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가격하락도 예상되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2-82〉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단위: 10억 원,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60,727 (10.4)	25,024 (-11.5)	27,268 (-15.94)	52,292 (-13.9)	20,344 (-18.7)	22,223 (-18.5)	42,568 (-18.6)
수입	5,847 (-1.1)	2,939 (-5.5)	2,511 (-14.1)	5,450 (-6.8)	2,182 (-25.8)	2,263 (-9.9)	4,445 (-18.5)
내수	38,819 (31.3)	16,894 (-11.2)	17,008 (-15.5)	33,902 (-12.7)	13,895 (-17.8)	13,385 (-21.3)	27,280 (-19.5)
수출	27,754 (-9.9)	11,068 (-9.8)	12,771 (-7.4)	23,839 (-14.1)	8,631 (-22.0)	11,101 (-13.1)	19,732 (-17.2)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생산은 광공업제조업조사 KSIC 2621 기준, 수입과 수출은 MTI 8361 기준.

3)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하며 KSIC와 MTI의 범위 불일치에 따른 오차를 가짐.

〈표 2-83〉 디스플레이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입	5,199 (-1.1)	2,580 (-5.5)	2,119 (-14.1)	4,699 (-9.6)	1,803 (-30.1)	1,884 (-11.1)	3,687 (-21.5)
수출	24,679 (-9.9)	9,716 (-9.8)	10,777 (-7.4)	20,493 (-8.5)	7,133 (-26.6)	9,243 (-14.2)	16,376 (-20.1)

주: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12. 이차전지산업⁸⁾

(1) 2020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상반기 내수는 국내 수출용 EV 생산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2.3% 성장
- 2020년 상반기 내수는 국내 수출용 전기차 생산 및 비대면 수업 증가에 의한 태블릿시장 성장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증가
 - 국내에서 제조되는 친환경자동차(EV, HEV, PHEV 등)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11.0% 증가(2020년 1~4월 누적 기준)
 - 이 가운데 이차전지가 많이 사용되는 전기차(EV) 생산량은 전년대비 27.6% 증가하며 이차전지 산업의 내수를 견인
 - 이 외에도 비대면 수업 실시에 따른 태블릿 및 노트북 등의 수요가 확대되며 상반기 국내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2.3% 확대
- 수출은 유럽 및 미국 등의 이차전지 생산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부분품 및 최종재 수출 감소 발생으로 위축
- 수요처의 가동중단으로 리튬이온전지와 그 부분품, 연산 축전지 등의 수출이 전년 상반기 대비 7.7% 감소
 - 이차전지 수출은 리튬이온전지의 최종재와 그 부분품, 연산 축전지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해외 전기차 제조사와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생산 시설 등으로 주로 수출되는 경향

8) 이차전지 산업은 HS Code 기준으로 8507 축전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의미하며, 이들은 리튬이온전지 및 부분품, 연산 축전지 등으로 구성

-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유럽 및 미국 등의 제조시설 가동중단조치로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생산에 투입되는 리튬이온전지 수출 감소와 더불어 국내 이차전지 제조사의 해외생산에 투입되는 부분품 등의 수출이 4~5월 급감하며 전년 상반기 대비 7.7% 하락

- 생산은 해외 전기차 제조사 및 이차전지 해외생산설비의 가동중단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며 전년대비 4.7% 감소
-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위험보다는 해외 수요처의 가동중단에 따른 수출 감소로 생산은 하락
 - 코로나로 인한 국내 생산설비의 전면적인 가동중단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 수요처의 가동중단 조치로 주요 수출품인 리튬이온전지 및 부분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국내 생산은 전년대비 축소
 -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여 이차전지 산업은 타 업종 대비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내 생산의 70~80%가 수출분이므로 코로나로 인한 해외 수요처의 가동중단이 영향을 미쳐 상반기 국내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하락

- 수입은 무선 전동공구 및 무선가전 등의 수요 확대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이차전지 수입이 증가
- 무선 전동공구 및 무선가전에 대한 소비자 선호 확대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이차전지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 무선 드릴 및 드라이버 등의 전동공구와 무선 청소기 등의 가전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로 인해 소형부문의 중국산 이차전지 수입이 지속하여 증가

- 코로나로 인한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2월 수입은 급감 (전년 동월대비 -25.2%)하였으나, 3월과 4월은 전년 동월대비 16.5%, 21.8%로 증가하는 등 3월부터는 수입이 가파르게 회복

(2) 2020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글로벌 여건 변화

- 각국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하나의 부양책으로 등장하며, 하반기에는 이차전지산업 성장이 기대
 - 특히,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주요 수요처인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으로 하반기 이차전지산업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 프랑스는 지난 5월 26일, 전기차 보조금으로 기존 대당 6천€에서 7천€로 확대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독일은 6월 2일 경기부양책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대당 최대 3천€에서 6천€로 증액을 발표
 - 다만,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해외생산을 위해 수출되는 부분품과 관련 소재를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전기차시장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은 자국기업에 편향된 전기차 보조금 연장을 결정하며, 연내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중국시장 진출은 지연
 - 당초 중국의 자국 이차전지 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계된 전기차 보조

금이 2020년 6월 폐지가 예상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폐지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

- 그러나 제한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자동차 기업 또는 이차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의 전기차 수요 확대로 부품품 등을 중심으로 기존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등 그 영향은 제한적

- 다만, 중국의 보조금 폐지 연장으로 중국발 이차전지산업 재편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경쟁 심화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음.

○ 세계 이차전지 수요는 각국의 환경친화적인 경기부양책 마련에 따라 전기차 및 ESS 등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선가전에 대한 소비자 선호증가로 이차전지 수요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전기차는 고급화 전략으로 소득 비탄력적인 수요층을 확보하였고 무선청소기 등을 중심으로 한 무선가전 시장 등의 신시장 개척 등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

〈표 2-84〉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동향 및 특성

	비중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15.8%	↔	↔	중국 생산설비 가동률 보안을 위한 리튬이온전지와 부품품 수출 확대
독일	14.5%	↕	↔	유럽 전기차 수요 확대로 부품품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기대
폴란드	10.9%	↕	↔	유럽 전기차 수요 확대로 부품품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기대
합계	100	↕	↔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상승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따라서 추후에는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 농후하며, 제 품군별 요구기술 차이로 이분화된 시장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음.

○ 주요 원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가격 변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나 원자재의 수급안정성 등이 하반기 이차전지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가진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주요 원자재인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은 현재는 공급과잉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

-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코발트의 경우, 2018년 높은 가격 형성 이후, 기업 차원에서 관련 소재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술개발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등 원자재의 공급망 강건성 개선을 위해 노력

〈표 2-85〉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세계 수요	각국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
	EV 신모델 출시	☆
	무선가전 시장의 확대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	☺
	견고한 내수 시장확보	☺
	주요 EV 제조사로부터 수주	☺
	원자재 확보	☺
제품 단가	원자재 가격 변동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국내 여건 변화

- 그린뉴딜 등에 힘입어 전기차 및 ESS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외에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확대 기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수출용 전기차의 증가 기대
 - 아웃도어 활동 자제 및 소비위축에 따라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의 이동 수단 및 휴대폰 등의 전방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그린뉴딜 정책으로 전기차 및 ESS 보급확대에 더불어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확대 지원정책에 기인한 수출용 전기차의 생산 증가로 국내 이차전지 생산은 확대
- 더불어 무선전동공구 및 무선가전 등에 대한 소비 증가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중국산 이차전지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2월 리튬이온전지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물류 중단으로 관련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3월과 4월 전년동월의 수입을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수입물량이 증가
 - 이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이차전지의 소비 확대를 의미하며, 인도어 활동 증가로 무선전동공구 및 무선가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생산 및 관련 제품의 교체품 이차전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의미
- 결과적으로 아웃도어 활동 자제 및 소비위축에 따라 전방수요 일부에서 감소가 예상되나 전기차 및 ESS 등 이차전지 소비량이 많은 전방산업의 성장으로 이차전지산업은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이차전지 최종재 기업은 해외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는 관련 양극재 및 음극재와 관련한 설비투자가 진행

〈표 2-86〉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내수	국내 전기차 생산량	☆☆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의 판매량	☂
	국내 휴대폰 생산량 및 무선가전 수요	☁
	ESS 보급 현황	☁
국내 생산능력	해외 생산설비의 수출 하락	☁
	공급망 위협 발생	☁
국산 제품의 경쟁력	기술 경쟁력	☆
	공급가능 품목의 다양성	☆
수입제품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표 2-87〉 이차전지 산업의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19	☆	2020	☆
투자종류	- 해외 신규설비 투자 지속, 연구개발, 인력양성			
투자수요 특성	- 생산능력 확대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속 -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엔지니어 양성			
원인	- 세계 수요 대응 - 가격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 생산설비 수출 안정화와 관련한 인력 부족 해결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투자종류: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상반기에는 코로나 발발로 관련 투자가 지연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신설 및 증설 등이 이루어질 예정

- (상반기) 포스코케미칼(광양)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 2단계 생산라인 준공
- (하반기) 포스코케미칼(세종) 음극재 2공장의 2단계 라인증설 작업을 진행, 일진머트리얼(말레이시아) 일렉포일 공장 증설 등

□ 업종별 특징적인 여건변화

- 이차전지산업은 해외생산의 지속 확대로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및 수출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외생산에 투입되는 핵심소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
 - 내수의 상당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차 생산에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는 정부의 ESS 보급, 가전 및 기타 제품제조 기업에 판매되는 형태
 - 이차전지 수출의 대부분은 리튬이온전지 완제품과 관련 부분품 그리고 납축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튬이온전지 기업의 수요처 인근으로의 해외생산설비 투자 확대로 장기적으로 수출증가폭은 둔화 예상
 - 따라서 향후, 국내 거점은 R&D 기능 및 해외생산설비의 수율 보완을 위한 대체품 생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기지의 역할을 수행
- 이차전지 국내 생산의 지속적 증가를 위해서는 전방산업의 내수 확대가 요구되며, 이는 국내 수출용 전기차의 생산 및 국내 전기차 및 ESS의 보급 확산 등이 선결되어야 함.

〈표 2-88〉 이차전지 산업의 2020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내수	- 수출용 전기차 생산 증가	-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의 수요 감소 - 소비침체	-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기조에 기반하여 하반기 내수 확대 전망
수출	- 각국 경기부양책으로 전기차 보조금 증액 결정	- 해외생산의 증가 - 중국 이차전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점유율 상승	-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생산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부분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생산	-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부분품 수출 증가 및 국내 수출용 전기차 생산 증가	- 해외생산의 증가	- 내수 및 수출 증가에 따라 생산 증가가 예상
수입	- 무선가전 수요확대	- 무선가전 등의 중국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완제품 수입의 확대	- 인도어 활동 증가로 무선가전 등의 저렴한 중국산 부분품의 수요가 증가

2) 2020년 전망

□ 내수는 친환경자동차 생산 확대로 2019년 하반기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20년 하반기 내수는 국내 수출용 전기차 생산량의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와 관련한 각국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따라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관련하여 국내 자동차 기업의 친환경자동차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국내 전기차인 코나 및 니로의 HEV, EV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이들 제조를 위한 이차전지 판매가 확대되며 내수를 견인

- 반면 이차전지의 새로운 전방산업인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등은

코로나의 발생으로 외부활동 자제움직임에 따라 관련 내수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친환경자동차용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내수부문은 전년대비 4.2%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수출은 해외생산설비의 가동중지 해제 및 세계 전기차 보급확산 기조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

○ 해외생산설비의 가동중지 해제 및 각국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경기부양책 실시로 인해, 리튬이온전지 및 관련 부분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

- 하반기에는 유럽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 폴란드 등의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생산 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리튬이온전지 및 부분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
- 다만, 해외생산 설비의 수율 안정화에 따라 전년대비 관련 수출은 소폭 감소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수출은 전년 하반기 대비 0.8% 성장
- 전년 하반기 수출은 해외생산설비의 수율 안정화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져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한 물량이 많아 전년도 수출이 기대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표 2-89〉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중국	독일	폴란드	미국	베트남	전체
상반기 추정	2.1	2.2	1.2	-3.4	-0.6	-7.7
하반기 전망	-0.6	0.9	-3.0	-1.8	-0.3	0.8

□ 생산은 국내 친환경 자동차 제조사에 의한 내수확대로 하반기 3.6% 증가

○ 국내 생산은 현대, 기아, 한국GM 등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확대에 힘입어 전년 하반기 대비 3.6% 성장할 것으로 기대

- 국내 전기차 모델에 대한 대세계의 선호도 증가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국내 이차전지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3.6%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더불어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 해외설비의 생산도 개선되며 관련 부분품 수출이 증가하며 하반기 국내 생산은 호조세

□ 수입은 무선가전 등에 사용되는 소형 이차전지 수요 확대에 힘입어 1.3% 증가

○ 휴대용 전자제품 및 무선 전동공구, 무선가전 등의 수요 확대에 따라 중국산 리튬이온전지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

- 휴대 가능한 선풍기, 공기청정기 등의 소비확산으로 관련 이차전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더불어 최근에는 드라이버 등의 전동공구까지 이차전지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등 무선제품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산 리튬이온전지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에도 수입이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기대

〈표 2-90〉 이차전지 산업의 수급 전망(금액기준)

단위: 10억 원(혹은 물량),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산	7,896 (32.7)	4,551 (7.7)	4,852 (8.5)	9,403 (8.1)	4,339 (-4.7)	5,026 (3.6)	9,364 (-0.4)
수입	1,815 (79.8)	945 (18.3)	904 (-0.5)	1,850 (1.9)	991 (4.8)	940 (4.0)	1,931 (4.4)
내수	1,259 (47.8)	1,184 (3.4)	1,391 (11.8)	2,573 (7.5)	1,211 (2.3)	1,449 (4.2)	2,658 (3.3)
수출	8,452 (25.7)	4,313 (18.5)	4,365 (1.1)	8,679 (2.7)	4,118 (-4.5)	4,517 (3.5)	8,637 (-0.5)

주: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2-91〉 이차전지 산업 수출입 전망(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입	1,551 (73.7)	808 (8.7)	773 (-4.3)	1,581 (1.9)	819 (1.4)	783 (1.3)	1,602 (1.3)
수출	7,224 (21.4)	3,686 (9.0)	3,731 (-2.9)	7,418 (2.7)	3,404 (-7.7)	3,761 (0.8)	7,165 (-3.4)

주: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ISSUE PAPER 2020-13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인쇄일 2020년 7월 29일
발행일 2020년 7월 31일
발행인 장지상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287-3114
팩스 044-287-3333
문의 044-287-3215
인쇄처 이호문화사

값 10,000원

ISBN 979-11-90712-32-3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